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樓然廓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fter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국제학술포럼 자료집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eowon Forum



2021년 11월 12일(금)~13일(토)
호텔인터불고 대구 즐거운홀

November 12 (Fri)~13 (Sat), 2021
Hotel Inter-Burgo Dae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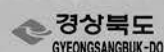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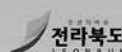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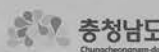
주최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Hosted by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주관 ICOMOS-KOREA
Organized by Korea Nation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후원
Supported by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Golden City
Gyeongju

경주시



장성군
Jangseong



정읍시
JEONGEUP-S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을 위한 기존 연구성과 목록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한국의 서원’ OUV 발굴을 위해 다수의 국내외 학술포럼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 개최되는 국내외 학술포럼을 포함하여 총 8회의 학술포럼[국제(5회), 국내(3회)]과 9회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서원’에 대한 세계유산 가치, 서원의 보호관리 방안, 서원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이에 서원관리단은 ‘한국의 서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술연구자료 축적을 통해 서원이 지닌 세계유산의 가치(OUV)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별도의 학술자료집(DB)으로 만들었다. 자료집은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주제별[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서원의 보호 및 관리, 서원의 활용, 실사대비 워크숍]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홈페이지(<http://k-seowon.or.kr/>)를 통해 온라인 자료(E북, PDF)로 제공합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성과 목록(2011~2021)

대분류	중분류	발표 주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유학 교육시설의 세계유산 가치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교육기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의 의미와 과제
		타문화권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가치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기조강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성과와 과제
	완전성과 진정성: 서원의 기능	한국서원 유·무형유산의 특징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
		한국서원의 제향의례
		서원제향(書院祭享)의 현대적(現代的) 계승(繼承)과 과제(課題)
		한국의 전통시대 교육공간의 구성 원리
		승지(勝地)에 있어서의 군거이업(群居肄業)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서원의 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서원 강화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19세기 서원 강화활동 사례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서원 현판류(기문) 자료의 기록문화적 가치
		서원 현판류(제영) 자료의 문학사적 가치
		9개 서원 현판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서원 교육
		도산서원의 교육과 활용사례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한국의 전통적 교육공간, 서원의 인문적 가치
		서원의 교육환경
		서원의 인성교육
		한국서원과 주변경관
		조선시대 지방정치와 문화의 핵심 기지로서의 서원
		서원 당호 현판의 교학적 의미
	비교연구	유교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교육
		근세 이전 그리스도교의 교육과 교육시설의 역사와 가치
		이슬람 메데레스의 교육과 유산적 가치
		중국 전통사회의 교육 시설과 유산적 가치
		배움의 원점, 시즈타니학교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전통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로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의 탄생과 역할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서원의 보호 및 관리	1차	서원 주변 경관의 훼손과 보존관리 문제점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관리 문제
		서원 보존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
	2차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건축 및 시설물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주변 환경 및 경관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체계 점검 및 실행과제
		서원 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3차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
		한국의 서원 개요 및 OUV 설명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설명
	4차	한국의 서원,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
서원의 활용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및 계승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방향
		활용 -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고찰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불교문화와의 만남 : 템플스테이
		한국의 서원,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국내 세계유산 관광체험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 해설, 홍보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활용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한국의 서원 관리·홍보·활용의 현황과 대책
실사대비 워크숍	1차	1차 예비실사 관련 지적사항 전달
		2차 예비실사 보존관리 발표 관련
		2차 예비실사 준비사항 전달
		2차 예비실사 동선안 확정
	2차	실사 관련 주요 전달 사항
		9개 서원 현황 및 현안 사업
	3차	실사 관련 주요 전달 사항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

행사일정	Program	2
환영사	Welcoming speech	4
이배용_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Lee Bae Yong_ Chairperson,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8
김현모_ 문화재청장 Kim Hyun-Mo_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권영진_ 대구광역시장 Kwon Young-jin_ Mayor, Daegu Metropolitan City		
기조강연	Keynote address	13
리처드 맥카이 교수_ 이코모스 세계유산 자문가, 호주 Prof. Richard Mackay_ ICOMOS World Heritage Advisor, Australia		
1부 원칙과 전략	Part 1. Principles and Strategies	67
발표 1.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 샤리프 샴스 이몬, 조재모 67 Presentation 1.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 Sharif Shams Imon, Cho Jaemo 발표 2.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 해설, 홍보 / 옌 하이밍, 배지연 101 Presentation 2. Integrated Presentation, Interpretation, and Promotion of Seowon / Yan Haiming, Bae Jeeyeon 발표 3.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활용 / 가리야 유가, 심승구 145 Presentation 3. Integrated Use of Seowon / Kariya Yuga, Shim Seungkoo		
2부 현황과 대책	Part 2. Policies, Challenges and Measures	183
발표 4.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 / 이해준, 최종호 183 Presentation 4. Polic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 Lee Haejun, Choe Jong-Ho 발표 5.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 박동석, 류호철 213 Presentation 5. Policies for Integrated Promotion and Use of Seowon / Park Dong-Seok, Ryu Hocheol 발표 6. ‘한국의 서원’ 관리·홍보·활용의 현황과 대책 / 금창헌, 황상훈 249 Presentation 6. Challenges and Measures in Managing, Promoting and Using Sites / Geum Changheon, Hwang Sang hoon 발표 7.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홍보·활용의 성과와 과제 / 박성진, 류한욱 269 Presentation 7. Outcomes and Tasks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Promotion, and Use of Seowon / Park Seongjin, Rhew hanwook		

포럼_1일차

2021. 11. 12.(금) 9:00 am~8:00 pm / 공식 언어: 한국어/영어(동시통역)

시간	활동	내용
09:00~09:30		등록
	개회식	사회: 김영수_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교수
09:30~10:00	환영사	이배용_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축사	김현모_문화재청장 / 권영진_대구광역시장
	내빈 소개 / 기념 촬영	
10:00~10:30	기조강연	Richard Mackay 교수_이코모스 세계유산 자문가, 호주
10:30~10:40		휴식시간
	1부 원칙과 전략	진행: 송인호_(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10:40~11:10	발표 1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Sharif Shams Imon 박사_방글라데시 이코모스 (토론: 조재모_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1:10~11:40	발표 2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 해설, 홍보 Yan Haiming 박사_중국 이코모스 (토론: 배지연_서울시 주택정책과 주무관)
11:40~12:10	발표 3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활용 Kariya Yuga 박사_일본 이코모스 (토론: 심승구_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2:10~12:55	지정토론	토론자 3인
12:55~14:00		점심시간
	2부 현황과 대책	진행: 한필원_(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14:00~14:30	발표 4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 이해준_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최종호_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14:30~15:00	발표 5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박동석_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 (토론: 류호철_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5:00~15:30	발표 6	‘한국의 서원’ 관리 · 홍보 · 활용의 현황과 대책 금창현_경북 영주시 문화예술과 팀장 (토론: 황상훈_기분좋은큐엑스(주) 대표)
15:30~16:00	발표 7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 · 홍보 · 활용의 성과와 과제 박성진_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국장 (토론: 류한욱_한국의 서원 협의회 회장)
16:00~17:00	지정토론	토론자 4인
17:00~17:20		휴식시간
17:20~17:50	정리·총평	이상해_국민대학교 석좌교수
17:50~20:00	폐회식, 만찬	

Forum_Day 1

November 12 (Fri), 2021 (9:00 am~8:00 pm) / Official language: English (English -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ime	Activity	Details
09:00~09:30	Registration	
Opening Moderator: Prof. Kim Youngsu_University of Seoul		
09:30~10:00	Welcoming speech	Lee Bae Yong_Chairperson,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Congratulatory message	Kim Hyun-Mo_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Kwon Young-jin_Mayor, Daegu Metropolitan City
10:00~10:30	Keynote address	Prof. Richard Mackay_ICOMOS World Heritage Advisor, Australia
10:30~10:40	Break	
Part 1. Principles and Strategies Moderator: Prof. Song Inho_ICOMOS Korea		
10:40~11:10	Presentation 1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Dr. Sharif Shams Imon_ICOMOS Bangladesh (Discussant: Prof. Cho Jaemo_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1:10~11:40	Presentation 2	Integrated Presentation, Interpretation, and Promotion of Seowon Dr. Yan Haiming_ICOMOS China (Discussant: Ms. Bae Jeeyeon_Seoul Metropolitan City)
11:40~12:10	Presentation 3	Integrated Use of Seowon Dr. Kariya Yuga, ICOMOS Japan (Discussant: Prof. Shim Seungkoo_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10~12:55	Discussion	3 discussants
12:55~14:00	Lunch break	
Part 2. Policies, Challenges and Measures Moderator: Prof. Han Pilwon_ICOMOS Korea		
14:00~14:30	Presentation 4	Polic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Prof. Emeritus Lee Haejun_Kongju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Prof. Choe Jong-Ho_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14:30~15:00	Presentation 5	Policies for Integrated Promotion and Use of Seowon Dr. Park Dong-Seok_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ies Strategy Center (Discussant: Prof. Ryu Hocheol_Anyang University)
15:00~15:30	Presentation 6	Challenges and Measures in Managing, Promoting and Using Sites Mr. Geum Changheon_Yeongju City (Discussant: Mr. Hwang Sang hoon_GivenzoneQX)
15:30~16:00	Presentation 7	Outcomes and Tasks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Promotion, and Use of Seowon Mr. Park Seongjin_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Discussant: Mr. Rhew hanwook_Seowon Council)
16:00~17:00	Discussion	4 discussants
17:00~17:20	Break	
17:20~17:50	General review	Chair Prof. Lee Sang Hae_Kookmin University
17:50~20:00	Closing, Dinner	

환영사 Welcoming speech

이배용_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전 이화여대 총장

Lee Bae Yong_ Chairperson,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Former President, Ewha Womans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입니다.

풍성함이 가득 찬 만추의 계절 11월에, 팔공산과 낙동강의 뛰어난 자연을 품고 있으며, 오랜 역사·문화전통, 그리고 미래지향의 패션이 융합된 대구광역시에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문화재청과 14개 지자체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것임에 김현모 문화재청장님과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의 난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술포럼을 주관해 주시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노고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서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서원’을 유지·관리해 주시는 9개 서원연합회 류한옥 회장님과 유림분들, 그리고 서원의 가치를 방문객에게 전달해 주시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은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드디어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연속)으로 등재되었던 그 날의 기쁨이 어제 같은데 벌써 두 해가 흘렀습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세월과 함께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자인 Richard Mackay 교수는 2016년에 이코모스 자문 실사를 수행했고, 발표자 Kariya Yuga 박사는 2018년에 예비실사를 담당하시면서 등재 준비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 분의 말씀에 더욱 기대가 큼니다. 또한 서원 등재에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각별한 협력이 있었고, 금번 국제포럼을 맡아주신 송인호 위원장님과 준비에 힘써주신 한필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포럼 주제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는 세계유산 등재라는 영광의 순간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의 서원’이 한국사회뿐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정신문화 부흥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의 명성을 갖는 이유는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이란 기능뿐 아니

라 그 안에 선비정신이란 무형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관직을 마다하고 향촌으로 내려와 자연을 벗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서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9개 서원의 주인공들(주제향자)은 자신의 부귀영달과 입신출세에 연연한 분들이 아닙니다. 서원의 주제향자이신 안향, 퇴계, 서애, 회재, 한훤당, 일두, 하서, 고운, 사계 선생들은 그 시대를 온전하게 가꾸고 사회정의를 위해 직언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던 사표이자 참스승이요, 대학자이십니다.

요즈음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서원에서 구현해왔던 인간존중 사상, 자연에 대한 경외로움 속에 인간과 조화의 정신을 통해 삶의 지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도 대신할 수 없는 영혼, 따뜻한 가슴, 정신이 함께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산만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인간의 바르게 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 포럼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시에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9개 서원의 관계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한국 정신문화의 부흥과 인성교육의 강화라는 공론이 모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Lee Bae Yong, Chairperson of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I am very pleased to hold an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entitled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fter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Daegu city that has a long history and cultural tradition, and the future-oriented fashion industry, nestled in beautiful nature of Palgong-san mountain and Nakdong-gang river, at this season of abundance, late fall November.

This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is held with the support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14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especially I would like to thank Administrator Kim Hyun-Mo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Mayor Kwon Young-jin / Daegu Metropolitan City. And I extend my gratitude to ICOMOS Korea for organizing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in this tough time of COVID 19 pandemic. Also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all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n this forum with deep concern and support as presenters, discussants, and audience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President Rhew hanwook of Seowon Council and Confucians who maintain and man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nd cultural tourism interpreters who convey the values of Seowon to visitors.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comprised of nine sites is recognized as retain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hat it is an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and demonstrates the historical process transforming Neo-Confucianism to be adapted to the Korean reality. At last it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the 43rd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Baku Azerbaijan. It has already been two years since the joy of that day that seems like yesterday.

The inscription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needed the time of nearly ten years and efforts of numerous people. Professor Richard Mackay, the keynote speaker today, conducted the ICOMOS Advisory Mission in 2016, and Doctor Kariya Yuga, a presenter today, closely observe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nomination, doing the preparatory mission in 2018. This makes me have greater expectations of their presentations. There was also a special cooperation from the ICOMOS Korea colleagues. Thank you once again to President Song Inho for organizing this forum and to Professor Han Pilwon for efforts preparing this event.

I think that the title of the forum this year,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fter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reflects the new mission of Seowon, the revival of spiritual culture of the world, not only of the Korean society, that has risen before the moment of glory has gone away.

The fame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s a World Heritage is ascribed not only to the functions of veneration, teaching and learning, and interaction but to its intangible culture of Confucian scholar's spirit. We can meet the teachers, educating younger students, associating with Nature, who declined high-ranking government posts to return to rural societies. The heros of nine seowon, venerated scholars, did not dwell on their own riches,

honors or secular success. The main-venerated, Anhyang, Toigye, Seoae, Hoijae, Hanwondang, Ildu, Haseo, Goun, and Sagye, are models, true teachers, and great scholars who did not hesitate to be forthright, even to dedicate their lives for the sound cultivation of the era and social justice.

I think the wisdom and hope of life can be found in the philosophy of humanity and the sense of owe toward Nature that were practiced in seowon in the period of chaos, like these days of COVID 19 when future is unpredictable. It is because seowon has been imbued with soul, warm heart, and spirit that can not be replaced even by AI.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s not only a heritage from the past that should be conserved, but it should play a role of a compass directing the right way for humans today. I expect this forum not only to be an academic conference for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t the time of inscription, but to be a meeting of the people from the nine seowon, local community memb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exchanging opinions for the revival of Korea's spiritual culture and strengthening of humanistic education.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here today, and I wish all the best to the World Herit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Thank you.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김현모_ 문화재청장

Kim Hyun-Mo_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입니다.

한국의 서원 국제학술포럼이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녹색 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문화예술 도시인 이곳 ‘컬러풀 대구’에서 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서원 국제학술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고 열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인 전통의 증거이자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성리학 정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및 역사적 가치를 향유·확산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축전, 홍보 지원 사업 등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의 주제는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방안 및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학술포럼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토론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힘써주신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배용 이사장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송인호 위원장님,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Hello everyone. I am Kim Hyun-Mo,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ngratulations on the 2nd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 this 'Colorful Daegu', a environment-friendly green city loving Nature and humans and a city of culture and art boasting long history and tradition.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all the people who have consistently supported and shared passion for successful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last year and again this year.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by being recognized a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estifying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and illustrating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the Neo-Confucian spirit in the stream of Korea's social change over tim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promoting sustainable projects, such as the World Heritage Festival and the PR-support projects to enjoy and disseminat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uthenticity, and historical value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s a World Heritage.

The topic of this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this year is 'the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recommendations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the review of current state and tasks after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continuous development of Seowon through in-depth examination of excellent ideas proposed from papers and discussions presented in this academic forum.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here today, especially Chairperson Lee Bae Yong of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President Song Inho of ICOMOS Korea, and Mayor Kwon Young-jin of Daegu Metropolitan City.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권영진_ 대구광역시장

Kwon Young-jin_ Mayor, Daegu Metropolitan City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한국의 서원’이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벅찬 감동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을 통합해서 보존·관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국제 학술포럼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도동서원을 포함해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조선시대 사학 교육의 전형이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유네스코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그 탁월한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으며,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공론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서원’은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세계유산으로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한 의미있는 담론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부터 이번 학술포럼까지 누구보다 애써주시는 이배용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9개 서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학술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 국내외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see you. I am Kwon Young-jin,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It has already been two years sinc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on July 2019. I assume that many people including myself can not forget such overwhelming feeling at the moment of inscription.

Therefore, this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this year, proposing the integrate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our precious cultural herit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nd its future vision, is considered far more meaningful. Maintaining well Korea's unique spatial type and architectural style as a stereotype of private education in Joseon dynasty,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 serial property comprised of nine seowon including Dodong-seowon, such as Sosu-seowon, Namgye-seowon, Oksan-seowon, Dosan-seowon, Piram-seowon, Byeongsan-seowon, Museong-seowon, and Donam-seowon, was recognized as a world heritage by UNESCO.

In addition, Seowon that has been sustained as an important axis of education along with Hyanggyo has greatly contributed to enriching spiritual culture by taking roles of establishing morality based on Confucian philosophy, and developing and communicating public opinions in the local society.

It is important that more and more people enjoy and us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s a World Heritage to be shared and conserved by the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I expect meaningful discourses to find a direction for that in This forum entitled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fter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Lastly, I extend my gratitude to Chairperson Lee Bae Yong of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and nine seowon people for their great endeavors from the inscription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to this academic forum. And I would like to thank presenters and discussants from home and abroad who offered their precious time for this forum and all the people who contributed to this forum in spite of tough COVID 19 pandemic conditions.

Thank you.

기조강연

Keynote address

Manag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연속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 관리



리처드 맥카이_ 이코모스 세계유산 자문가, 호주

Richard Mackay_ ICOMOS World Heritage Advisor,
Australia

ABSTRACT

The serial property,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following a long period of documentation, research, assessment and evaluation. The final nomin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was assisted by an ‘upstream’ consultation and advisory process with ICOMOS International. At the time of inscriptio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These modest requests reflect the excellent work undertaken over the course of the nomination process to investigate and resolve questions about the OUV of the property and challenges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nine separate components that together comprise the World Heritage property.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y has an advantage over some other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because only one national government (State Party) has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total property is managed and con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 Nevertheless, there is a challenge arising from the diverse ownership, different site management arrangements and multiple local authorities. Integrated management and present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property may be assisted by the proposed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and informed by the experience of other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This paper and the related keynote address at the International Seowon Forum in 2021 will highlight lessons learned and approaches adopted at other serial World Heritage inscriptions that may be relevant to the Korean seowon and will also showcase some select practices and experiences from other World Heritage properties, including evaluation of management effectiveness, heritage impact assessment, opportunities arising from increased visitation and strategies for tourism management.

초록

연속 유산인 ‘한국의 서원’이 장기간의 기록, 조사, 평가와 심사를 거쳐 2019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대한민국의 최종 신청은 국제 이코모스의 ‘업스트림(upstream)’ 협의와 자문 과정의 도움을 받았다.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 서원들을 위한 총괄 관리 문서 개발을 완성할 것
- 하나의 유산으로서 9곳 구성요소의 통합 설명을 좀 더 발전시킬 것

이같은 평이한 요청사항들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의문들과 이 세계유산을 구성하는 9곳의 분리된 구성요소들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신청 기간 동안 훌륭한 작업이 착수되었음을 말해준다.

연속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하나의 국가 정부(당사국)가 〈세계유산협약〉과 〈운영 지침〉에 따라 전체 유산을 관리, 보존할 의무를 지니므로 몇몇 다른 연속 세계유산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유권, 상이한 유적지 관리 방식, 그리고 다수의 지방 정부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유산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설명하는 것은 제안된 바와 같은 총괄 관리 문서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연속 세계유산의 경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과 2021 ‘한국의 서원’ 국제학술포럼에서의 기조강연에서는 한국의 서원과 관련 있을 다른 연속 세계유산에서 얻은 교훈과 그것들에서 채택된 접근방법들을 강조하려고 한다. 또한 관리 효과성 평가, 유산영향평가, 방문객 증가에 따른 기회, 관광 관리 전략 등 다른 세계유산들의 몇몇 실천사례와 경험을 선정해 소개하고자 한다.

Manag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The serial property,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Seowon),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following a long period of documentation, research, assessment and evaluation. The final nomination by the State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ssisted by a prior ‘upstream’ consultation and advisory process with ICOMOS International. The original nomination had been submitted in 2015, but was withdrawn to enable further consideration of key matters, including the criteria under which the proposed property should be nominated, the components to be included and comparative studie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Following the ICOMOS upstream process, which included an Advisory Mission in 2016, a new nomination was submitted in 2018, including some significant and important boundary adjustments, refinement of the proposed criteria, additional comparative data and further management information. The ICOMOS technical evaluation of the nomination supported inscription and the property comprising nine groups of buildings was inscribed at the 43r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Baku in 2019.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ICOMOS technical evaluation, the property was inscribed under criterion (iii):

Criterion (iii):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 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¹⁾.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recognised that the integrity of the property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selection of components for inclusion, that the appropriate boundaries included well-resolved buffer zones, and that the property retained a high degree of integrity. Protection and management were also considered adequate, noting (*inter alia*) that:

...Each seowon has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which is equivalent to a management plan. In addition, there are a range of ke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nuals and guidelines ...²⁾

At the time of inscriptio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³⁾.

These modest requests reflect the excellent work undertaken over the course of the nomination process to investigate and resolve questions about the OUV of the property, the attributes that demonstrate that OUV, and challenges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nine separate components that together comprise the World Heritage property. The value of the upstream process is demonstrated by this outcome which, although it required some delay in the inscription of the Seowon group, has ultimately resulted in a more robust inscription and a much-reduced need for State of Conservation reporting and associated processes.

State of Conservation Processe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⁴⁾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⁵⁾ embody a series of obligations and processes related to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The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include a duty to ensure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der Article 4⁶⁾. Article 5 sets out the State Party responsibilities in some detail:

Article 5

To ensure that effective and active measures are taken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ituated on its territory,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endeavor, in so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a) to adopt a general policy which aims to give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 function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and to integrate the protection of that heritage into comprehensive planning programmes;

(b) to set up within its territories, where such services do not exist, one or more services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ith an appropriate staff and possessing the means to discharge their functions;

(c) to develop scientific and technical studies and research and to work out such operating methods as will make the State capable of counteracting the dangers that threaten its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d) to take the appropriate legal, scientific,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is heritage; and

*(e) to foster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national or regional centres for training in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to encourage scientific research in this field.*⁷⁾

World Heritage properties come befor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in a number of ways. Regular cycles of periodic reporting may reveal issues of concern, warranting investigation and reporting. The Asia-Pacific region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the Third Cycle of Periodic Reporting. In addition, State Parties have obligations to notify the World Heritage Centre about actions which may potentially affect the OUV of a World Heritage property, under paragraph 172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Civil society can also draw attention to similar concerns under paragraph 174. So; in summary, matters come befor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ate of Conservation, through reporting by the State Party, alerts from civil society, or the initiative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tself – either of its own volition or based on advice from the World Heritage Centre and / or the Advisory Bodies: ICCROM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OMOS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and 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n the case of the Seowo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made the two specific requests quoted above at the time of inscription but did not request a future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from the State Party. This indicates that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arrangements for the newly-inscribed Seowon were not of major concern at the time. Nevertheless,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State Party to fulfil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and to report back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World Heritage Centre.

For properties which are befor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State of Conservation process has a number of mechanisms which include: Reactive Monitoring missions, (usually undertaken by experts from the relevant Advisory Bodies, plus a representative from the World Heritage Centre within UNESCO), reports from the State Party itself, and short, focused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 which are provided for consideration at eac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n addition, and in parallel to this process, the Advisory Bodies may also provide 'Technical Review' of specific projects or proposals advised to the World Heritage Centr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72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Serial inscrip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recent years and enable a number of separate components to be nominated to the World Heritage List together, in a combination that demonstrates OUV. Under Article 1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⁸⁾ cultural heritage comprises buildings, monuments and sites (including groups). The *Operational Guidelin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enable inscription of serial properties, which have the same historico-cultural group; or are the same type of property which is characteristic of a geographical zone, or the same geological, geomorphological formation, the same biogeographic province, or the same ecosystem type.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property was inscribed as a serial property comprising nine 'groups of buildings'⁹⁾.

Approaches to cohesive an integrated management of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re still developing. While it is recognised that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serial nominations may have separate ownership, statutory and management arrangements, there is also an obligation to conserve the totality of the property and the attributes which demonstrate its OUV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s a cohesive entity. This can be

challenging, particularly in the cases where the serial inscription crosses state or national jurisdictions.

Hidden Christian Sites of the Nagasaki Region

An analogous property to the Seowon, inscribed in 2018, is the *Hidden Christian Sites of the Nagasaki Region*. This Japanese property comprises twelve components; being ten village sites, the remains of a castle and a cathedral: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Kyushu island, this serial property consists of ten villages, remains of the Hara Castle and a cathedral, dating from the 17th to the 19th centuries. They reflect the era of prohibition of the Christian faith,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Christian communities after the official lifting of prohibition in 1873. These sites bear unique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nurtured by hidden Christians in the Nagasaki region who secretly transmitted their faith during the period of prohibition from the 17th to the 19th century¹⁰.

Located in southern Japan, and including on a number of offshore islands, the serial listing spans two prefectures, multiple municipalities and has a variety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t a national level the components are all protected by the *Na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¹¹. There is also a cross-cutting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which applies to all 12 components.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Japan is overseen by a ‘World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Council’ which is advised by an ‘Academic Advisory Committee’¹².

The Silk Roads

By contrast, a very different form of serial inscription in Asia is the *Silk Roads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Tianshan Corridor*. This serial inscription extends across a 5,000 km section of the historic silk roads network between Chang'an/Luoyang, (a capital during the Han and Tang dynasties) and the Zhetysu region of Central Asia, and incorporates 33 sites inscribed as a “heritage route”, in accordance with Annex 3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is property is a 5,000 km section of the extensive Silk Roads network, stretching from Chang'an/Luoyang, the central capital of China in the Han and Tang dynasties, to the Zhetysu region of Central Asia. It took shape between the 2nd century BC and 1st century AD and remained in use until the 16th century, linking multiple civilizations and facilitating far-reaching exchanges of activities in trade, religious beliefs, scientific knowledge, technological innovation, cultural practices and the arts. The thirty-three components included in the routes network include capital cities and palace complexes of various empires and Khan kingdoms, trading settlements, Buddhist cave temples, ancient paths, posthouses, passes, beacon towers, sections of The Great Wall, fortifications, tombs and religious buildings¹³.

The nomination itself was overseen by an ‘Intergovernment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ilk Roads’ formed in 2009, some five years before the inscription occurred. Nevertheless, recognising the appropriateness and competence of individual site management, the Statement

of OUV for the property which was adopt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t the time of inscription indicates that:

... international collaboration needs to be supported by national collaboration, particularly in Kazakhstan and Kyrgyzstan . . .

The management arrangements are diverse and as yet not consistent between the three State Parties. So; although the presence and role of a co-ordinating committee is noteworthy, better precedents may be provided by serial properties that involve a single State Party and multiple regional or local jurisdictions and authorities.

Australian Convict Sites World Heritage Property

The Australian Convict Sites World Heritage Property¹⁴⁾ provides an exemplar fo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a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y within one country, but across multiple forms of ownership and state and local jurisdictions.

The property includes a selection of eleven penal sites, among the thousands established by the British Empire on Australian soil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sites are spread across Australia, from Fremantle in Western Australia to Kingston and Arthur's Vale on Norfolk Island in the east; and from areas around Sydney in New South Wales in the north, to sites located in Tasmania in the south. Around 166,000 men, women and children were sent to Australia over 80 years between 1787 and 1868, condemned by British justice to transportation to the convict colonies. Each of the sites had a specific purpose, in terms both of punitive imprisonment and of rehabilitation through forced labour to help build the colony. The Australian Convict Sites presents the best surviving examples of large-scale convict transportation and the colonial expansion of European powers through the presence and labour of convicts¹⁵⁾.

The individual components comprise:

- *Kingston and Arthur's Vale Historic Area, Norfolk Island (1788-1814 and 1824-1855);*
- *Old Government House and Domain, Parramatta Park, New South Wales (1788-1856);*
- *Hyde Park Barracks, Sydney, New South Wales (1819-1848);*
- *Brickendon-Woolmers Estates, Longford, Tasmania (1820-1850s);*
- *Darlington Probation Station, Maria Island National Park, Tasmania (1825-1832 and 1842-1850);*
- *Old Great North Road, Wisemans Ferry, New South Wales (1828-1835);*
- *Cascades Female Factory, South Hobart, Tasmania (1828-1856);*
- *Port Arthur Historic Site, Port Arthur, Tasmania (1830-1877);*
- *Coal Mines Historic Site, Norfolk Bay, Tasmania (1833-1848);*
- *Cockatoo Island Convict Site, Sydney, New South Wales (1839-1869); and*

- *Fremantle Prison, Fremantle, Western Australia (1852–1886)*¹⁶).

This serial inscription of eleven diverse components is located on three Australian states and in one offshore Australian territory. One component of the property is own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whereas the other components are owned at a state/territory level. All of the components are 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 which regulates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makes the National Minister responsible for matters that have potential impact on OUV¹⁷. However, they are also subject to state and territory legislation, as well as local planning instruments and guidelines. Each component has its own management plan and the specific site management organisations and arrangements are diverse.

The overarching strategic management of this eleven-component property is achieved through two mechanisms:

- Oversight by the Australian Convict Sites Steering Committee; which includes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jurisdictions; and
- The *Australian Convict Sites Strategic Management Framework*¹⁸) document.

The Australian Sites Convict Sites Steering Committee provides a forum through which information can be exchanged and differe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pproaches can be resolved. In addition, the Steering Committee provides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access to an official authorised group of ‘focal points’, thereby achieving an efficient and effective communication process.

The *Australian Convict Sites Strategic Management Framework* provides a potential exemplar of relevance to the Seowon. This document does not attempt to add to what is already a burdensome set of layered legislative and regulatory arrangements, but instead provides a coordinating framework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statutes, management documents, ownership, management arrangements and personnel.

For example, matters such as legislative context and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individual site plans, are summarised in graphics which clearly outl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ifferent agencies involved. This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making it clear to any interested party, which property is covered by which legislation or guidelines, who is responsible, and which management documents, such as individual site plans apply.

At an operational level, the coordination achieved through the Australian Sites Convict Sites Steering Committee enables and encourages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property and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to its OUV. This is manifest, for example, in standard sculptural signage, use of logos, graphics, connected messaging and a recognisable style of presentation and format. While all of this makes the experience at each of the components consistent, it supports, rather than interferes with the individual interpretive content, displays, programs and events at the individual sites.

Management Effectiveness

A particular challenge with serial World Heritage inscriptions is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of the inscribed property as a whole. Globally, there are many models and

approaches to evaluating management effectiveness. Particularly appropriate in a World Heritage context, is the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¹⁹). This framework, prepared by IUCN provides the best available and most relevant approach for evaluat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While it has been prepared for natural properties, it can be adapted to use for cultural properties and, there is a current a project to widen its scope to encompass both natural and cultural World Heritage.

The Framework sets out the following 12 tools:

Tool 1: Identifying Site Values and Management Objectives

Tool 2: Identifying Threats

Tool 3: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s

Tool 4: Review of National Context

Tool 5: Assessment of Management Planning

Tool 6: Design Assessment

Tool 7: Assessment of Management Needs and Inputs

Tool 8: Assessment of Management Processes

Tool 9: Assessment of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Tool 10: Work/Site Output Indicators

Tool 11: Assessing the Outcomes of Management

Tool 12: Review of Management Effectiveness Assessment Results

Not all of these tools will necessarily be relevant in every situation, but they provide helpful templates and approaches which may assist with concurrent consideration of the same questions and issues across multiple sites, enabling an overall picture and judgement to be made about the entirety of a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y.

Heritage Impact Assessment

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is usually undertaken for a specific activity or project and is focused on identifying and assessing the potential effects on the heritage values of a cultural heritage place. A HIA may be undertaken stand-alone or as part of a broad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context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 key consideration for HIA is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both negative and positive impacts on the attributes which convey the OUV of the property.

ICCROM, ICOMOS and IUCN have been collaborating, in partnership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 on a new joint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 Guidance docu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Heritage Leadership Programme²⁰), funded by the Norwegian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The forthcoming integrated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 in a World Heritage Context’ is anticipated for completion in late 2021. This new document follows current best practice in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will incorporate and replace the *2011 ICOMOS Guidance on Impact Assessment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the *2013 IUCN World Heritage Advice Note on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Guidance will provide an outline of the World Heritage system, high-level principles and a toolkit that explains the clear process for undertak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or HIA.

The new HIA Guidance and Toolkit should assist State Parties, heritage managers, decision-makers, communities or others in managing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circumstances where an action is proposed in or around the property which may affect its OUV. Once completed, the new Guidance and Toolkit will be accessible online²¹).

HIA may assist with the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by:

- assessing how attributes convey their OUV;
- relating attributes to the impacts of potential changes in a systematic manner;
- identifying information needed to establish a baseline for assessment;
- documenting the logic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 separating impact identification from impact evaluation; and
- guiding decisions which avoid or reduce adverse impact on OUV.

Relevantly and importantly, the methodology used to undertake heritage impact assessment is flexible and may apply to different places, ranging from monuments and landscapes to archaeological sites, and across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and projects – conservation programs, development, infrastructure, resource extraction or tourism. The methodology can addres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ttributes of places – both natural and cultural.

The fundamental logic for HIA involves some simple steps and questions, including:

- What attributes of the property convey its OUV?
- What is the project/activity?
- Who should be consulted about the project/activity?
- How will the project/activity affect the attributes that convey OUV?
- Are the impacts acceptable?
- Are there better alternatives?
- Should the project/activity proceed?
- What should be done to avoid, reduce or compensate for negative impacts?

There are some important over-arching processes that should be undertaken iteratively throughout the HIA steps. In particular, participation by relevant stakeholders and appropriate experts is fundamental, as is iterative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with potential to reduce heritage impacts. There are also a series of straightforward and logical steps to be undertaken

in completing and HIA. These are:

1. Screening
2. Scoping
3. Baseline Assessment
4. Proposed Action and Alternatives
5. Identifying and Predicting Potential Impacts
6. Evaluating Impacts
7. Mitigation and Enhancement
8. Reporting
9. Reviewing the Report
10. Decision Making
11. Follow Up.

Of particular relevance to the attributes of Seowon are their 'wider setting'. The necessity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an activity within an inscribed World Heritage property is now well accepted and has become common practice. Similarly, because of the identification of buffer zones, most of those involved, including State Party regulators, local authorities and development proponents, understand that actions within the buffer zone have potential to affect attributes that contribute to OUV.

Less well understood is the potential impact of activity in the wider setting which, even though outside the inscribed property and buffer zone, may still affect the values of a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y. This is an especially relevant consideration for Seowon where natural settings, mountain views and outlook are all part of the conceptual setting for both academic pursuits and contemplation. Therefore, although the buffer zones that were ultimately determined generally encompass the relevant visual setting of the Seowon, it is highly desirable that impact assessment considerations extend beyond to encompass their wider visual setting.

One further element in the HIA process which may assist in ongoing management of the nine components of the Seowon is the guidance about engagement methods. In this context, it may be helpful to include in the forthcoming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some information about the level of engagement with different stakeholders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Seowon. For example, local communities may simply be regularly informed about proposed activities and programs. Those who use the Seowon or those who are particularly close – either physically or operationally – might be consulted through opportunities like public meetings or interviews. At the next level, some local people may become directly involved in discussions or forums. Local authorities might be invited to collaborate, whereas the Seowon scholars and managers would be empowered to make decisions. The benefit of including specific description of the roles and is that the expectations of participants in the engagement process will be appropriately managed.

Visitor Management

It remains to be seen what long-term changes will occur to visitation at the Seowon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World Heritage inscription. The term ‘visitation’ applies to all visitors: scholars, or those coming for spiritual or cultural reasons as well as tourists. Tourism is addressed separately below. A major benefit of the current situation is the opportunity to manage visitation proactively in a manner which ensures that the implicit carrying capacity of the individual Seowon is not exceeded by over-visitation. In this regard, the quiet contemplative nature of the sites and the ability of scholars to continue to use them in traditional ways should remain paramount. Therefore, capacity for additional visitation may be more modest than might otherwise be the case for other forms of World Heritage property. Therefore, pro-active management of visitation is important.

There are many examples of outstanding visitation management globally. One case is provided by the Mogao Caves at Dunhuang, in western China.

Carved into the cliffs above the Dachuan River, the Mogao Caves south-east of the Dunhuang oasis, Gansu Province, comprise the largest, most richly endowed, and longest used treasure house of Buddhist art in the world. It was first constructed in 366AD and represents the great achievement of Buddhist art from the 4th to the 14th century. 492 caves are presently preserved, housing about 45,000 square meters of murals and more than 2,000 painted sculptures²²).

Here, with assistance from the Dunhuang Academy and Getty Conservation Institute²³), site managers pro-actively manage visitation with an off-site visitor centre, ticketed and timed grotto entry, regulated crowd control (especially on busy days) and evidence-based monitoring of site conditions such as air quality, humidity, groundwater, damage and dus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monitoring in turn feeds back into the system and informs management decisions about which of the grottos should be opened for visitation at what time – and how many visitors can be accommodated. The visitation pattern varies day-to-day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data that are recorded, and visitor expectations are managed through clear communication which explains that conservation of the fragile grottos and their amazing Buddhist artwork is paramount.

Visitor management challenges and circulation patterns have been successfully addressed at Stonehenge, a site that is part of the serial World Heritage inscription: Stonehenge, Avebury and Associated Sites.

The World Heritage property Stonehenge, Avebury and Associated Sites is internationally important for its complexes of outstanding prehistoric monuments. Stonehenge is the most architecturally sophisticated prehistoric stone circle in the world, while Avebury is the largest. Together with inter-related monuments, and their associated landscapes, they demonstrate Neolithic and Bronze Age ceremonial and mortuary practices resulting from around 2000 years of continuous use and monument building between circa 3700 and 1600 BC. As such they represent a unique embodiment of our collective heritage²⁴).

At Stonehenge, the visitor experience and qualities of the site have been greatly enhanc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new visitor centre some distance away from the main standing stone circle, within the World Heritage property, but outside the visual catchment of most of the significant monuments. This enables visitation to be managed proactively, by regulating the size and number of groups who are in highly visited precincts and delivering the main information content within a modern building, rather than at the principal historic areas of the site. This form of ‘off site’ visitor orientation and management may be appropriate if there is demand for increasing and potentially disruptive levels of visitation at the Seowon.

Tourism

World Heritage inscription could lead to increased tourism for some, if not all of the Seowon. Although the numbers involved are likely to be vastly different, some of the approaches adopted at the World Heritage property of Angkor in Cambodia offer relevant ideas and techniques. Although Angkor is not a serial inscription there are some important parallels with the Seowon: Angkor is a large cultural and spiritual landscape, with multiple monuments and sites, including a small number of very frequently visited temples. It is also a place in which traditional cultural practice continues, but where tourism has grown rapidly.

Angkor, Cambodia

Angk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 in South-East Asia. Stretching over some 400 km², including forested area, Angkor Archaeological Park contains the magnificent remains of the different capitals of the Khmer Empire, from the 9th to the 15th century. They include the famous Temple of Angkor Wat and, at Angkor Thom, the Bayon Temple with its countless sculptural decorations²⁵).

International visitation to Cambodia has grown from c118,000 in 1993, the year after Angkor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o more than 5 million today. The visitor numbers affect the ambience of sacred spaces, and tourism development has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equences, as community lifeways change in response to tourist expectations. However, despite these social impacts the effects of tourism do not necessarily provide widespread economic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Khmer people who live within the Angkor World Heritage property.

The Angkor Tourism Management Plan addresses tourism at this major cultural site through a structure program of six key policy initiatives:

- 1. providing positive visitor experiences by encouraging and promoting different opportunities, recognising that different visitors have different expectations and needs;*
- 2. reducing site impacts through visitor education, management of visitor flows and better information delivery;*
- 3. partnering with industry to provide incentives and new products for tourism operators;*
- 4. offering benefits for local people through greater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direct economic benefits and greater recognition, acceptance and celebration of local cultural beliefs, practices and traditions;*

5. improved governance which responds to the practical realities of th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to the Cambodian Government; and

6. stakeholder engagement through consultative implementation and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and organisations involved in tourism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²⁶).

Angkor Sunset

The Angkor Tourism Management Plan encourages tourism operators and visitors to change their behaviour because they perceive alternatives to existing destinations as better. The ‘Best Angkor Sunsets’²⁷) program is just one project which illustrates how simple strategies to deliver useful and inspiring online and published information can pro-actively manage visitation patterns and reduce congestion

The Best Angkor Sunsets initiative demonstrates how segmentation of the visitor markets and matching market segments with appropriate (but different) visitor experiences, in combination with communication with the tourism industry, can result in improvement to the Angkor sunset experience – for the World Heritage property and for visitors – by reducing congestion, avoiding physical damage, increasing safety and enhancing visitor experiences.

Watching the sunset is a key attraction for visitors to Angkor. The vast majority of visitors visit just a few temples such as Phnom Bakheng and Pre Rup, where the congestion reduces the quality of visitor experiences and creates physical pressure on significant features. There are also safety concerns for visitors at these sites especially when they are climbing down from the monuments following sunset.

The ‘Best Angkor Sunsets’ project identified and documented a range of sunset options and analysed potential experiences so as to match types of visitor with types of experience. The intent is to change the behaviour of tourists and operators by drawing their attention to alternatives that better suit their individual needs. This in turn reduces impact on specific sites and improves the overall visitor experience, while reducing site impacts.

Conclusion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y has an advantage over some other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because only one national government (State Party) has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total property is managed and con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 Nevertheless, there is a challenge arising from the diverse ownership, different site management arrangements and multiple local authorities. Integrated management and present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property may be assisted by the proposed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and informed by the experience of other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s well as by established techniques for evaluating management effectiveness, heritage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visitation and tourism.

Endnotes

- 1) <https://whc.unesco.org/en/list/1498/>
- 2) <https://whc.unesco.org/en/decisions/7381>
- 3) <https://whc.unesco.org/en/decisions/7381>
- 4)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5)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 6)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7)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8)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9) <https://whc.unesco.org/en/list/1498/documents/>
- 10) <https://whc.unesco.org/en/list/1495/>
- 11) https://www.bunka.go.jp/english/policy/cultural_properties/#:~:text=Under%20the%20Law%20for%20the,imp,oses%20restrictions%20on%20exports%20and
- 12) <https://whc.unesco.org/en/list/1495/>
- 13) <https://whc.unesco.org/en/list/1442/>
- 14) <http://www.environment.gov.au/heritage/places/world/convict-sites>,
- 15) <https://whc.unesco.org/en/list/1306/>
- 16) <https://www.australianconvictsites.org.au/home>
- 17) <https://www.environment.gov.au/heritage/about/world-heritage>
- 18) <https://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cf4c8497-8e31-483f-b9c2-be626d5bc96d/files/aust-convict-sites-strategic-management-framework.pdf>
- 19) <https://whc.unesco.org/en/eoh/>
- 20) <https://www.iccom.org/section/world-heritage-leadership,https://www.iucn.org/theme/world-heritage/our-work/world-heritage-projects/world-heritage-leadership>
- 21) <https://whc.unesco.org/en/eia-hia>
- 22) <https://whc.unesco.org/en/list/440/>
- 23) https://www.getty.edu/conservation/our_projects/field_projects/mogao/presentation.html
- 24) <https://whc.unesco.org/en/list/373/>
- 25) <https://whc.unesco.org/en/list/668/>
- 26) <https://t7txp90beitcxr8s5rxpohy-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18/02/Angkor-Tourism-Management-Plan-compressed.pdf>
- 27) <https://t7txp90beitcxr8s5rxpohy-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18/02/Angkor-Sunset-Brochure-English.pdf>

연속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 관리

연속 유산 ‘한국의 서원’은 장기간의 기록, 연구, 평가와 심사를 거쳐 2019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당사국 대한민국의 최종 신청은 국제 이코모스의 사전 ‘업스트림(upstream)’ 협의와 자문 과정의 도움을 받았다. 첫 신청서는 2015년에 제출되었으나 제안된 유산을 신청할 등재기준,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들, 국내외 비교연구들을 포함한 주요 사안들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 철회되었다.

이코모스의 업스트림 과정과 2016년 자문 미션을 거쳐, 몇 가지 의미 있고 중요한 경계 조정, 제안된 등재기준들의 개선, 추가 비교 자료와 관리 정보를 포함해서 새로운 신청서가 2018년에 제출되었다. 신청에 대한 이코모스 현지실사는 등재를 지지했고, 아홉 곳의 건물군으로 구성된 이 유산은 2019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었다.

이코모스 현지실사의 권고에 근거해 다음의 등재기준(iii)으로 이 유산은 등재되었다.

등재기준(iii):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에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해 교육과 사회 활동의 형태로 뛰어나게 증거하며, 그런 활동들의 많은 부분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유래한 성리학이 한국의 지역 조건에 적응해 형성된 교육기관으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기능, 계획, 건축의 측면에서 그러한 변형과 현지화의 과정에 대한 뛰어난 증거이다.¹⁾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관한 진술에서, 포함할 구성요소들의 선정을 통해 유산의 완전성이 설명되었고, 적절한 경계선이 잘 설정된 완충구역을 포함하며, 유산이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었다. 보호관리 또한 적절하다고 고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목했다.

...각 서원은 관리계획에 상응하는 종합관리계획을 갖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핵심 보전관리 매뉴얼과 지침들이 있다...²⁾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 서원들을 위한 총괄 관리 문서 개발을 완성할 것
- 하나의 유산으로서 9곳 구성요소의 통합 설명을 좀 더 발전시킬 것³⁾

이같은 평이한 요청사항들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러한 OUV를 보여주는 속성들에 관한 의문들과 이 세계유산을 구성하는 9곳의 분리된 구성요소들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신청 기간 동안 훌륭한 작업이 착수되었음을 말해준다. 비록 서원 집단의 등재를 지연시키기는 했으나, 결국 좀 더 탄탄한 등재가 이루어졌고 보전상태 보고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요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성과를 통해 업스트림 과정의 가치가 입증되었다.

보전 과정의 상태

〈세계유산협약〉⁴⁾과 그 〈운영 지침〉⁵⁾은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와 관련된 일련의 의무와 절차들을 담고 있다. 4조⁶⁾, 당사국의 의무에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식별, 보호, 보전, 설명,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전승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5조에는 다음과 같이 당사국의 책임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5조

각 협약가입국은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전과 설명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자국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a)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의 생활에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종합 계획에 유산 보호를 포함시키는 종합 정책을 채택한다.
- (b)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전, 설명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직원과 갖추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자국 내에 설치한다.
- (c) 학문적, 기술적 연구와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법들을 마련한다.
- (d) 이러한 유산의 식별, 보호, 보전, 설명과 재할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학술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e)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전, 설명 분야에서 전국 혹은 지역 훈련 센터의 설립 또는 개발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서 학술 연구를 장려한다.⁷⁾

세계유산들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어 여러 방식으로 검토된다. 정기보고의 정규 주기를 통해 조사와 보고를 요하는 관심사들이 드러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세 번째 주기 정기보고 과정에 있다. 덧붙여, 당사국들은 〈운영 지침〉의 172항에 따라 세계유산의 OUV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에 관해 세계유산센터에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 또한 174항에 따라 유사한 관심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당사국의 보고, 시민 사회의 경계, 또는 세계유산위원회 자체의 계획(자체적인 계획 또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들, 곧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의 자문에 근거한 계획)을 통해 사안들이 보전 상태의 틀 안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된다.

‘한국의 서원’의 경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위에 인용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청했으나 당사국에 향후 보전 상태 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새롭게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식이 그 당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앞에 놓인 유산들의 보전 상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메커니즘이 있다. 대응 모니터링 실사, (대개 관련 자문기구들의 전문가들과 UNESCO 내 세계유산센터의 대표자가 맡는다), 당사국 자체의 보고서, 각 세계유산위원회 회기에 고려하도록 제공된 간결

하고 집약적인 보전 상태 보고서. 덧붙여, 이러한 절차와 병행해, 자문기구들은 〈운영 지침〉의 172항에 따라 세계유산센터에 고지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제안에 대해 ‘기술 검토’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연속 세계유산

연속 유산 등재신청은 최근에 갈수록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분리된 구성요소들을 OUV를 나타내도록 조합해 세계유산목록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계유산협약〉의 1조⁸⁾에 의하면 문화유산은 건물, 기념물, 유적지(집단 포함)로 구성된다.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운영 지침〉은 연속 유산의 등재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은 동일한 역사-문화적 집단에 속하거나 어떤 지리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일한 유산 유형이거나 동일한 지질학적·지형학적 구성물, 동일한 생물지리적 지역, 또는 동일한 생태계 유형일 경우이다.

‘한국의 서원’은 아홉 개의 ‘건물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다.⁹⁾

연속 세계유산들의 응집력 있는 통합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연속 유산 등재신청의 개별 구성요소들은 별도의 소유권, 법적 규제, 관리 방식을 갖는 것이 인정되거나 응집력 있는 단일체로서 유산의 전체성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속성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특히 연속 유산 등재가 주 혹은 국가의 내 관할권을 넘어갈 경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

2018년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과 유사한 유산은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이다. 이 일본 유산은 10개의 마을, 성과 대성당 유적 등 1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규슈섬의 북서쪽 부분에 위치한 이 연속 유산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개의 마을, 하라성과 대성당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이 금지되었던 시대와 1873년 금지의 공식적 해제 이후 기독교 공동체의 재활성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적지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금지 기간 동안 신앙을 비밀리에 전도한 나가사키지역의 숨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를 지닌다.¹⁰⁾

일본 남부에 위치하고 다수의 연안 섬들을 포함한 이 연속 등재 유산은 두 개의 현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소유권과 관리 방식을 갖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모두 국가 〈문화재보호법〉¹¹⁾으로 보호된다. 또한 12개의 구성요소들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의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이 있다. 일본에서 세계유산 관리는 ‘학술 자문 위원회¹²⁾’가 자문하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실크로드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 연속 등재의 매우 다른 형태는 ‘실크로드: 창안-텐산 회랑 도로망’이다. 이 연속 등재 유산은 창안/튀양(한나라와 당나라 왕조의 수도)과 중앙아시아의 제

티슈지역 사이 역사적인 실크로드 도로망의 5,000km 구간에 걸쳐 있으며, 〈세계유산협약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부록 3에 따라 “경로 유산”로서 등재된 33곳 유적지를 포함한다.

이 유산은 한나라와 당나라 왕조에서 중국의 중앙 수도였던 창안/뤄양부터 중앙아시아의 제티슈지역까지 뻗는 5,000km 구간의 방대한 실크로드 도로망이다. 기원전 2세기와 서기 1세기 사이에 형태를 갖추어 여러 문명을 잇고 무역, 종교적 신념, 과학 지식, 기술 혁신, 문화 활동, 예술의 광범위한 교역을 용이하게 했으며 16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 경로망들에 속한 33개의 구성요소에는 수도, 여러 제국과 칸 왕국의 궁전, 교역 정주지, 불교 동굴사원, 고대의 길, 역참, 통행로, 봉화탑, 만리장성의 구간, 요새, 무덤, 종교 건물들이 포함된다.¹³⁾

등재신청 자체는 등재되기 약 5년 전인 2009년에 결성된 ‘실크로드 조정 정부간 위원회’가 감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유적지 관리의 적합성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표명하는 유산의 OUV 진술을 채택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국가가 협력해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리 방식은 다양하며 아직 세 당사국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조정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은 주목할 만하나, 단일 당사국과 다수의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연속 유산들로부터 더 나은 선례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세계유산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¹⁴⁾은 한 국가가 연속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전을 하지만 소유권이 다양한 형태이고 주와 지방 관할구역들에 걸쳐 분포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 유산은 18세기와 19세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에 대영제국이 설립한 수천 곳 가운데 선정한 11곳의 형벌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지들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프리맨틀에서 킹스턴 그리고 동부의 노퍽 섬 아서스 베일; 북부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주변 지역에서 남부의 태즈메이니아 주에 위치한 장소들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1787년에서 1868년까지 80년에 걸쳐 약 166,000명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 영국 사법부에 의해 유형수 식민지들로 유배를 선고받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송되었다. 각 유적지는 징역형과 식민지 건설을 돕는 강제노동을 통한 재활이라는 두 측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은 대규모의 죄수 이송과 죄수들의 존재와 노동을 통한 유럽 강대국들의 세력의 식민지 확장에 대한 최상의 잔존 사례들을 보여준다.¹⁵⁾

개별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노퍽 섬, 킹스턴과 아서스 베일 역사지구(1788~1814, 1824~1855)
- 뉴사우스웨일스 주, 파라마타 파크, 옛 총독 관저와 영내(1788~1856)
-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하이드파크 병영(1819~1848)

- 브릭켄돈 - 태즈메이니아 주, 룽퍼드, 울머스 에스테이트(1820~1850년대)
- 태즈메이니아 주, 마리아섬 국립공원, 달링턴 보호관찰소(1825~1832, 1842~1850)
- 뉴사우스웨일스 주, 와이즈먼스 페리, 올드그레이트노스로드(1828~1835)
- 태즈메이니아 주, 사우스 호발트, 캐스케이드 여성 공장(1828~1835)
- 태즈메이니아 주, 포트 아서, 포트 아서 역사유적지(1830~1877)
- 태즈메이니아 주, 노퍽 베이, 탄광 역사 유적지(1839~1869)
- 뉴사우스웨일 주, 시드니, 코카투 섬 유배지(1839~1869)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프리맨틀, 프리맨틀 감옥(1852~1886)¹⁶⁾.

이러한 11곳의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세 개 주와 호주 연안 한 준주(準州)에 위치한다. 이 유산의 한 구성요소는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반면, 다른 구성요소들은 주/준주(準州) 차원에서 소유한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세계유산에 규제하는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OUV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장관이 책임지도록 한다.¹⁷⁾ 그러나, 그것들은 지방계획 도구와 지침은 물론 주와 준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각 구성요소는 자체의 관리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유적지 관리 기구와 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11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유산의 총괄적인 전략적 관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성취된다.

-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운영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며, 여기에는 각 관할 구역 대표와
-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의 전략적 관리 체제¹⁸⁾’ 문서가 포함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운영위원회는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보전 관리 접근방법들을 다루는 포럼을 연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는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권한을 갖는 ‘간사(focal point)’ 집단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의 전략적 관리 체제’는 ‘한국의 서원’에 관련되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 문서는 이미 부담스런 일련의 법률과 규정의 더미에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령, 관리 문서, 소유권, 관리 방식, 그리고 인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정 체제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개별 유적지 계획을 포함한 법적 맥락과 관리 체계 같은 사안들을,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개괄하는 그래픽으로 요약해 준다. 이 접근방법에는 어느 유산이 어떤 법이나 지침으로 다루어지는지, 누가에게 책임이 있으며 개별 유적지 계획 같은 어떤 관리 문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이점이 있다.

운영 단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운영위원회를 통해 얻은 조정으로 유산의 구성요소들과 그것들 각각의 OUV에 대한 기여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장려된다. 이는, 예를 들어, 표준 조각 형태 사인, 로고의 사용, 그래픽, 연결 메시지, 식별이 쉬운 설명과 포맷 양식 등으로 구현된다. 이 모든 것이 각 구성요소들에서의 경험을 일관되게 하

며, 개별 유적지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해석 내용, 전시, 프로그램,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준다.

관리 효과성

연속 세계유산 등재의 특별한 어려움은 등재된 유산을 전체로서 관리하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많은 모델과 접근방법이 있다. 세계유산의 맥락에서 특히 적합한 것은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¹⁹⁾이다. IUCN이 마련한 이 체제는 세계유산의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자연유산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그것을 문화유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체제는 다음의 12가지 도구를 제시한다.

- 도구 1: 유적지 가치와 관리 목표 확인
- 도구 2: 위협요소 확인
- 도구 3: 이해당사자들 관계
- 도구 4: 국가의 맥락 검토
- 도구 5: 관리계획 평가
- 도구 6: 디자인 평가
- 도구 7: 관리 수요와 투입 평가
- 도구 8: 관리 절차 평가
- 도구 9: 관리계획 이행 평가
- 도구 10: 작업/유적지 산출물 지표
- 도구 11: 관리 성과 평가
- 도구 12: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 검토

이 모든 도구들이 매 상황에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을 것이나 여러 유적지에 걸친 동일한 문제와 사안들에 수반되는 고려사항들을 도출한 유익한 틀과 접근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연속 세계유산의 전체성에 관한 종합적인 그림과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유산영향평가

유산영향평가(HIA)는 보통 특정한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착수되며 문화유산 장소의 유산 가치들에 미칠 잠재적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에 집중한다. HIA는 독립적으로 또는 더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 착수될 수 있다. 세계 문화유산의 맥락에서, HIA의 핵심 고려사항은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전하는 특성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ICCROM, ICOMOS 그리고 IUCN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및 국제영향평가협회(IIA)와 협력하여 노르웨이 기후환경부의 자금 지원으로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²⁰⁾의 체제 안에 세계유산 영향평가 안내서 문서의 새로운 공동 작업을 진행해왔다.

곧 출간될 통합된 ‘세계 유산 맥락에서의 영향평가를 위한 안내서와 툴킷’은 2021년 하반기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문서는 현행 영향평가 방법론에서 최상의 사례들을 따르며 ‘2011 이코모스 세계 문화유산을 위한 영향평가 안내서’와 ‘2013 IUCN 환경평가에 관한 세계유산 권고’를 통합, 대체할 것이다. 이 안내서는 세계유산 체계의 개요, 높은 수준의 원칙들, 환경영향평가(EIA) 및/또는 HIA 착수의 명확한 절차를 설명하는 툴킷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HIA 안내서와 툴킷은 유산 내부나 주변에서 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당사국, 유산 관리자, 의사결정자, 지역사회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안내서와 툴킷은 완성되는대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HIA는 다음 사항들에 의해 세계유산의 보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어떻게 속성들이 OUV를 전달하는지 평가
- 체계적으로 속성들을 잠재적 변화의 영향에 관련지음
- 평가를 위한 기준치를 정립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확인
- 의사결정 과정의 논리 기록
- 영향 확인을 영향평가와 구분
- OUV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의사결정 안내

유산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데 사용된 이 방법론이 유연하며 기념물과 경관에서 고고학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매우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보전 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 자원 추출이나 관광)에 걸쳐 다양한 장소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적절하고 중요하다. 이 방법론으로 자연 및 문화 두 가지 장소의 유무형 속성들을 모두 다룰 수 있다.

HIA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의 몇 가지 간단한 단계와 질문들로 이루어진다.

- 유산의 어떤 속성들이 그것의 OUV를 전달하는가?
- 프로젝트/활동은 무엇인가?
- 프로젝트/활동에 관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 프로젝트/활동이 OUV를 전달하는 속성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그 영향들은 수용될 수 있는가?
- 더 나은 대안들이 있는가?
- 프로젝트/활동을 진행해야 하는가?
-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 감소, 상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HIA의 단계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총괄 절차가 있다.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적절한 전문가들의 참여는, 유산 영향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에 대한 반복적인 고려만큼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HIA를 완성하는 데 수행되어야 할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일련의 단계들이 있다.

1. 선별(Screening)
2. 과업범주(개요)
3. 기준치 평가

4. 제안된 활동과 대안들
5. 잠재적 영향 확인과 예측
6. 영향 평가
7. 완화와 개선
8. 보고
9. 보고서 검토
10. 의사 결정
11. 후속 조치

‘한국의 서원’의 속성들과 특별히 관련성을 갖는 것은 그것들의 ‘범위가 넓어진 주변 환경’이다. 등재된 세계유산 안에서 어떤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 잘 수용되며 공통적인 관행이 되었다. 비슷하게, 완충구역의 확인으로 인해, 당사국 규제 기관, 지방 정부와 개발 지지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완충구역 안에서의 활동들이 OIUV에 기여하는 속성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해가 덜 되고 있는 것은 더 넓은 주변 환경에서의 활동이 갖는 잠재적 영향인데, 비록 등재 유산과 완충구역 밖이라도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 환경, 산의 조망과 전망이 모두 학문적 추구하고 사색을 위한 개념적 환경의 부분을 이루는 ‘한국의 서원’과 특히 관련 있는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된 완충구역이 서원과 관련된 시각적 환경을 일반적으로 포함하지만, 영향평가 고려사항들이 더 넓은 시각적 환경을 포함하도록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의 서원’ 9개 구성요소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HIA 과정에 하나 추가된 요소는 참여 방법에 관한 지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서원’의 활용과 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기타 참여자들의 개입 수준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곧 마련될 총괄 관리 문서에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된 활동과 프로그램에 관해 정기적으로 간단하게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한국의 서원’을 활용하거나(물리적으로나 운영에 있어) 특히 그것과 가까운 사람들과 공적 모임이나 인터뷰 같은 기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몇몇 현지 사람들이 토론회나 포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원 유림들과 관리자들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만 협력을 위해 지방 정부를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할들에 대해 특정해서 기술하는 것의 이점은 개입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기대가 적절히 관리된다는 점이다.

방문객 관리

세계유산 등재로 직간접적으로 서원에서 발생할 방문의 장기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방문’이라는 용어는 학자, 또는 관광객은 물론 정신적 혹은 문화적 이유로 찾아오는 이들 등 모든 방문객들에 적용된다. 관광은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현재 상황의 주요한 이점은, 과다 방문이 개별 서원의 실제 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방문을 관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적지의 조용한 사색적인 성격과 유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장소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방문에 대한 수용력은 다른 형태의 세계유산들보다 소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방문의 선제적 관리는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방문 관리의 사례들이 많다. 그런 경우로 중국 서부에 위치한 ‘둔황 모가오굴(막고굴)’을 들 수 있다.

간수성 둔황 오아시스의 남동쪽, 다추안강 위 절벽에 조성된 모가오굴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고의 천혜 조건을 가졌으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불교 미술의 보고다. 그것은 서기 366년에 처음 건조되었으며 4세기에서 14세기까지 불교 미술의 위대한 성취를 보여준다. 현재 492개의 동굴이 보존되어 있으며, 약 45,000제곱미터의 벽화와 2,000점이 넘는 채색 조각을 소장하고 있다.²²⁾

여기서, 유적지 관리자들은 둔황학술원과 게티보전연구소²³⁾의 도움을 받아, 유적지 외부 방문자센터, 동굴 입장표 발행과 시간 관리, (특히 바쁜 날) 군중 통제, 그리고 공기 질, 습도, 지하수, 손상, 먼지 같은 유적지 상태의 근거 중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문을 관리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으로 얻은 정보는 시스템에 피드백 되며, 방문에 대해 어떤 동굴을 언제 개방해야 할지, 몇 명의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리 결정사항에 영향을 준다. 방문 패턴은 기록되는 환경 데이터에 대응해 날마다 바뀌며, 방문객 예상치은 취약한 동굴들과 그것들의 놀라운 불교 예술작품의 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설명하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리된다.

방문객 관리의 문제와 동선 패턴은 연속 세계유산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의 일부인 스톤헨지에서 성공적으로 다뤄졌다.

세계유산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은 훌륭한 선사시대 기념물의 복합체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하다. 스톤헨지는 세계에서 가장 건축적으로 세련된 선사 환상 거석이며, 에이브베리는 규모가 가장 크다. 서로 관련된 기념물, 관련 경관과 함께 그것들은 기원전 약 3700에서 1600년 경 사이 약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기념물을 세운 결과로,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의례와 매장 방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그것들은 우리 집단 유산의 독보적인 구현이다²⁴⁾.

스톤헨지에서 방문객 경험과 유적지의 특질은 세계유산의 내부이지만 주된 환상 거석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중요한 기념물들이 대부분 보이는 구역에서 벗어난 곳에 새로운 방문자센터를 건설하면서 대단히 향상되었다. 이로부터, 방문객이 매우 많은 구역을 방문하는 단체의 규모와 수를 규제하고 유적지의 주요 역사 지역보다 현대 건물 안에서 주요 정보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방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장을 초래하는 서원 방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유적지 외부’ 방문객 오리엔테이션과 관리가 적절할 것이다.

관광

세계유산 등재로 ‘한국의 서원’의 모든 서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서원에서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다. 비록 수적으로는 크게 다르겠지만, 세계유산 캄보디아의 ‘앙코르’에서 채택된 몇몇 접근 방법들에서 관련되는 아이디어와 기법을 얻을 수 있다. 앙코르는 연속 등재유산은 아니지만

‘한국의 서원’과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 앙코르는 매우 방문객이 많은 소수의 사원들을 포함해 여러 기념물과 유적지가 있는 대규모 문화적·정신적 경관이다. 그것은 또한 전통적인 문화 활동이 계속되지만 관광이 급속히 성장한 장소다.

캄보디아 앙코르

앙코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가운데 하나다. 삼림지대를 포함해 약 400km²에 걸친 앙코르 고고학 공원은 9세기에서 15세기 크메르제국의 다양한 수도들이 있었던 장대한 유적들을 포함한다. 그것들에는 앙코르와트의 유명한 사원과 앙코르톰에 위치한 무수한 조각으로 장식된 바이욘사원이 포함된다.²⁵⁾

국제적인 캄보디아 방문은 앙코르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다음 해인 1993년 약 118,000명에서 오늘날 5백 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방문객 수는 신성한 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생활방식이 관광객의 기대에 따라 바뀌므로 관광 개발은 환경적·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광 효과는 세계유산 앙코르 안에 거주하는 크메르인들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에 반드시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앙코르 관광 관리계획’은 여섯 가지 핵심 정책 계획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주요 문화 유적지에서 관광의 문제를 다룬다.

1. 각 방문객은 각기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다양한 기회들을 장려하고 홍보함으로써 긍정적인 방문객 경험을 제공한다.
2. 방문객 교육, 방문객 흐름 관리, 정보 전달의 개선을 통해 유적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3. 관광 경영자들에게 인센티브와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업계와 제휴한다.
4. 지역 공동체의 많은 참여,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과 많은 인정, 현지의 문화적 신념·활동·전통의 수용과 기념 등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혜택을 준다.
5. 캄보디아 정부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실제적 현실에 대응해 거버넌스를 향상시킨다.
6.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광계 관계자와 조직을 위한 협의적 실행과 기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를 개입시킨다.²⁶⁾

앙코르 일몰(Angkor Sunset)

‘앙코르 관광 관리계획’은 관광 경영자들과 방문객들로 하여금 기존 관광 목적지보다 대안들이 더 낫다고 인지해서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도록 장려한다. ‘최고 앙코르 일몰(Best Angkor Sunsets)²⁷⁾’ 프로그램은, 유용하고 고무적인 온라인 및 출판 정보를 전달하는 간단한 전략들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방문 패턴을 관리하고 혼잡을 줄이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다.

‘최고 앙코르 일몰’ 계획은 혼잡을 줄이고,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며, 안전을 높이고 방문 경험을 개선시킴으로써, 방문객 시장 세분화와 적절한 (그러나 서로 다른) 방문객 경험으로 세

분화된 대응 시장이 관광 산업과 소통을 통해 어떻게 (세계유산과 방문자들을 위해) 앙코르 일몰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일몰 감상은 앙코르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 방문객들은 프놈 바켕과 뿌레 텡 등 몇 안 되는 사원을 방문하는데, 그곳의 혼잡은 방문자 경험의 질을 낮추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유적지의 방문객들에게는 안전의 우려가 있는데, 일몰을 따라 기념물들을 내려갈 때 특히 그러하다.

‘최고 앙코르 일몰’ 프로젝트는 방문객 유형을 경험 유형에 대응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몰 선택을 확인하고 기록했으며 잠재적 경험을 분석했다. 그 의도는 관광객과 경영자들이 그들의 개별적 요구에 더 부합하는 대안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특정한 유적지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전체적인 방문객 경험을 개선하면서 유적지 영향을 줄여 준다.

결론

‘한국의 서원’ 연속 세계유산은 하나의 중앙정부(당사국)가 〈세계유산협약〉과 그 〈운영 지침〉에 따라 전체 유산의 관리, 보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므로 몇몇 다른 연속 세계유산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유권, 상이한 유적지 관리 방식,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유산의 구성요소들을 통합 관리하고 설명하는 데는 제안된 바와 같은 총괄 관리 문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리 효과성 평가, 유산영향평가, 방문과 관광 관리를 위한 확립된 기법들은 물론 다른 연속 세계유산의 경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한필원)

미주

- 1) <https://whc.unesco.org/en/list/1498/>
- 2) <https://whc.unesco.org/en/decisions/7381>
- 3) <https://whc.unesco.org/en/decisions/7381>
- 4)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5)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 6)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7)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8) <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en.pdf>
- 9) <https://whc.unesco.org/en/list/1498/documents/>
- 10) <https://whc.unesco.org/en/list/1495/>
- 11) https://www.bunka.go.jp/english/policy/cultural_properties/#:~:text=Under%20the%20Law%20for%20the,imposes%20restrictions%20on%20exports%20and
- 12) <https://whc.unesco.org/en/list/1495/>
- 13) <https://whc.unesco.org/en/list/1442/>
- 14) <http://www.environment.gov.au/heritage/places/world/convict-sites>
- 15) <https://whc.unesco.org/en/list/1306/>
- 16) <https://www.australianconvictsites.org.au/home>
- 17) <https://www.environment.gov.au/heritage/about/world-heritage>
- 18) <https://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cf4c8497-8e31-483f-b9c2-be626d5bc96d/files/aust-convict-sites-strategic-management-framework.pdf>
- 19) <https://whc.unesco.org/en/eoh/>
- 20) <https://www.iccom.org/section/world-heritage-leadership,https://www.iucn.org/theme/world-heritage/our-work/world-heritage-projects/world-heritage-leadership>
- 21) <https://whc.unesco.org/en/eia-hia>
- 22) <https://whc.unesco.org/en/list/440/>
- 23) https://www.getty.edu/conservation/our_projects/field_projects/mogao/presentation.html
- 24) <https://whc.unesco.org/en/list/373/>
- 25) <https://whc.unesco.org/en/list/668/>
- 26) <https://t7txp90beitcxr8s5rxpohy-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18/02/Angkor-Tourism-Management-Plan-compressed.pdf>
- 27) <https://t7txp90beitcxr8s5rxpohy-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18/02/Angkor-Sunset-Brochure-English.pdf>



Manag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International Seowon Forum
12 -13 Novemb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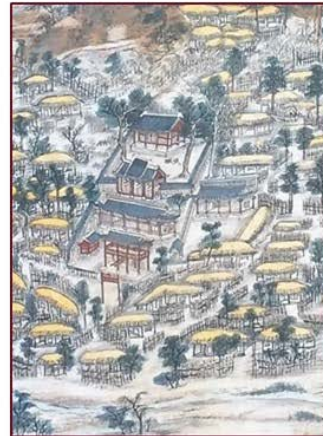
Prof Richard Mackay, AM

www.mackaystrategic.com.au



I acknowledge the Traditional Custodians of the lands on which we are meeting and pay respect to their Elders both past and present. I extend this respect to any Indigenous people and Traditional Custodians in attendance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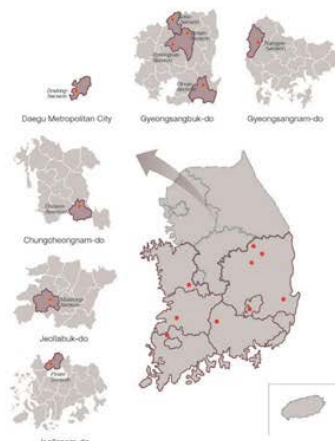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World Heritage List in 2019



 MACKAY
STRATEGIC

Images: ICOMOS Evaluation 2019; <https://whc.unesco.org/en/list/1498/documents/>, R Mackay/ICOMOS 2017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MACKAY
STRATEGIC

Images: ICOMOS Evaluation 2019; <https://whc.unesco.org/en/list/1498/documents/>, R Mackay/ICOMOS 2017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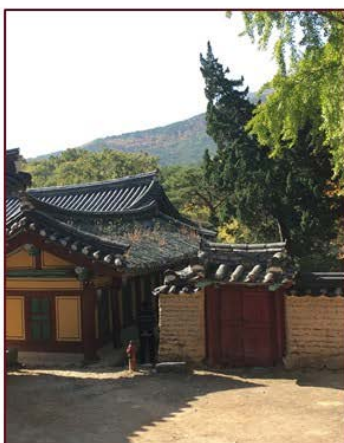


MACKAY
STRATEGIC

- *Original Nomination 2015*
- *Serial inscription of 9 groups of buildings*
- *Criteria refined – inscribed under criterion (iii)*
- *ICOMOS ‘upstream’ process & Advisory Mission 2016*
- *Boundary adjustments – criteria refined – comparative studies and management information*
- *New Nomination 2018*
- *ICOMOS Evaluation supported inscription*
- *World Heritage Committee inscribed property in 2019 and made recommendations*

Image: Dodong Seowon 2016

Seowon: World Heritage Committee Decision



MACKAY
STRATEGIC

- **Criterion (iii):**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 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
- **Protection and Management**
Each seowon has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which is equivalent to a management plan. In addition, there are a range of ke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nuals and guidelines . . .
-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1.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2.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Image: Oksan Seowon 2017

Outline of this address:



 MACKAY
STRATEGIC

- *State of Conservation processes*
- *Serial inscriptions*
-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 *Integrated presentation*
- *Evaluating management effectiveness*
- *Heritage impact assessment*
- *Visitation and carrying capacity*
- *Tourism management*

Image: Sosu Seowon 2016

State of Conservation processes



 MACKAY
STRATEGIC

- *Word Heritage Convention obligations – Articles 4 and 5*
- *Word Heritage Committee Decisions*
- *Periodic Reporting – Third Cycle for Asia Pacific*
- *Operational Guidelines: requirements to notify under paragraph 172*
- *State Party reports*
- *State of Conservation (SOC) reporting*
- *Reactive Monitoring Missions*
- *Benefit of ‘upstream’ process*

Image: WHC 41 COM – Kristal Buckley

Serial Inscriptions



 MACKAY
STRATEGIC

- *Article 1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defines cultural heritage – buildings, monuments, sites (including groups)*
- *The Operational Guidelines: Paragraph 19 enables inscription of serial properties*
-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Serial Nominations to the World Heritage List at: <http://whc.unesco.org/archive/serial-noms.htm>*
- *Serial properties:*
 - *same historico-cultural group; or*
 - *same type of property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geographical zone; or*
 - *the same geological, geomorphological formation, the same biogeographic province, or same ecosystem type*

Image: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Kyoto, Uji and Otsu Cities) - Kiyomizu-ji Temple

Hidden Christian Sites of the Nagasaki Region



 MACKAY
STRATEGIC

- *Serial inscription of 12 components 2018*
- *10 villages, Hara Castle remains & Oura Cathedral*
- *Two prefectures: Nagasaki & Kumamoto, plus municipalities & owners*
- *Na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 *World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Council and Academic Advisory Committee*

Images: Hidden Christian Sites of the Nagasaki Region - Kasuga Village, Hisaka Cemetery and Church

Silk Roads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Tianshan Corridor – cross jurisdictional



- Image: Silk Roads: Initial Section of the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Tian-shan Corridor
© Conservation Institution of Site of Suoyang City whc.unesco.org/en/documents/129559



Australian Convict Sites

Serial inscription – 11 components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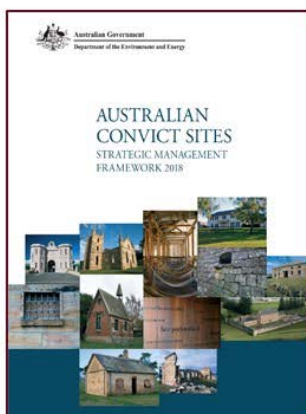
47

Australian Convict Sites National inscription – multiple jurisdictions



 MACKAY
STRATEGIC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Strategic Management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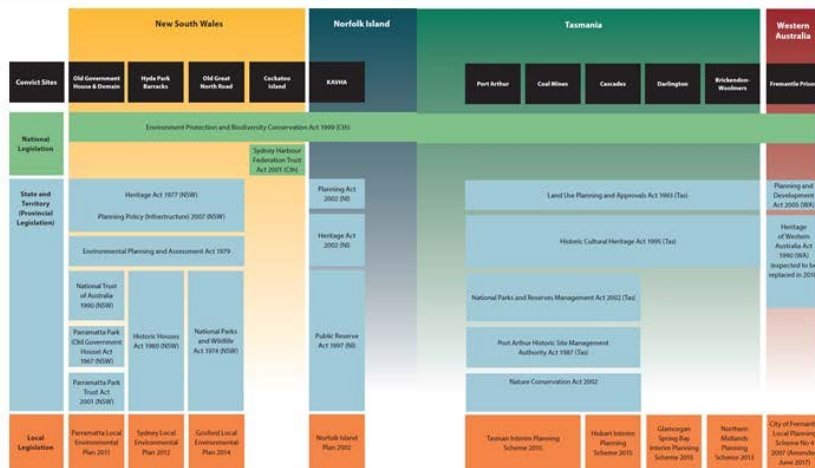


- *Serial inscription – national*
- *11 components*
- *3 States and 1 Territory*
- *One component owned by national government*
- *Separate legislation and management plans*
- *Cohesive and co-ordinated approach*
- *Steering Committee oversight*

 MACKAY
STRATEGIC

Source: <https://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cfac8497-8e31-483f-b0cc-be626d5bc96d/files/aust-convict-sites-strategic-management-framework.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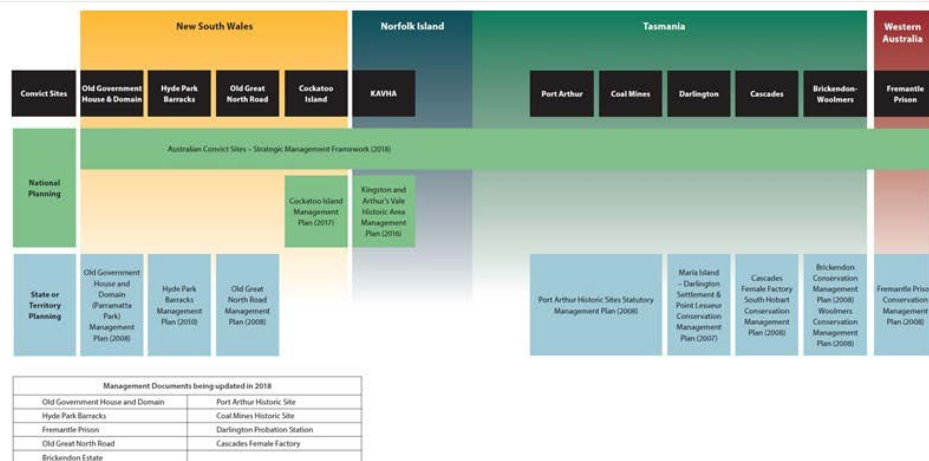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Legislative context:



MACKAY STRATEGIC

Source: <https://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cf4c8497-8e31-483f-b0c2-b626d5b06d/files/aust-convict-sites-strategic-management-framework.pdf>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system – individual site plans



MACKAY STRATEG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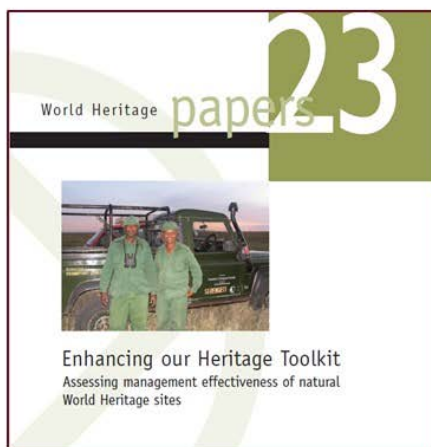
Source: <https://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cf4c8497-8e31-483f-b0c2-b626d5b06d/files/aust-convict-sites-strategic-management-framework.pdf>

Integrated Presentation: Consistent messages and format



 MACKAY
STRATEGIC

Management Effectiveness



 MACKAY
STRATEGIC

Enhancing Our Heritage

The IUCN framework known as the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provides the best-available and most relevant approach for evaluat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Not all of the tools and evaluation techniques need to be used.

The approach can be adapted to cultural properties.

Source: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https://whc.unesco.org/en/eoh/>

Enhancing Our Heritage: Tools

- | | | | |
|---------|---|----------|---|
| Tool 1: | Identifying Site Values and Management Objectives | Tool 7: | Assessment of Management Needs and Inputs |
| Tool 2: | Identifying Threats | Tool 8: | Assessment of Management Processes |
| Tool 3: |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s | Tool 9: | Assessment of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
| Tool 4: | Review of National Context | Tool 10: | Work/Site Output Indicators |
| Tool 5: | Assessment of Management Planning | Tool 11: | Assessing the Outcomes of Management |
| Tool 6: | Design Assessment | Tool 12: | Review of Management Effectiveness Assessment Results |



Source: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https://whc.unesco.org/en/eoh/>

Heritage Impact Assessment Guidance World Heritage Leadership Program



This presentation includes content provided by ICCROM, ICOMOS and IUCN colleagues through the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 Guidance project within the World Heritage Leadership Program.

How can Impact Assessment help to conserve World Heritage?



MACKAY
STRATEGIC

- *Assessing how attributes contribute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 *Relating attributes to impacts of potential changes*
- *Identifying documentation and sources required*
- *Documenting the logic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 *Separating impact identification from impact evaluation: what?—v—how serious?*
- *Guiding decisions which avoid or reduce adverse impact on OUV.*

Image: Museong Seowon 2016

Core logic for Impact Assessment:



MACKAY
STRATEGIC

- *What are the attributes of the WH property that contribute to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What is the proposal?*
- *How will the proposal affect the attributes that contribute to OUV:*
 - *positive impacts*
 - *negative impacts*
- *Are the impacts acceptable?*
- *Are there better alternatives?*
- *Should the project proceed?*
- *If the project does proceed what be done to avoid, reduce or compensate for the impacts?*

Image: Dosan Seowon 2016

Actions and Impacts: The inscribed property



World Heritage property



Graphics ©World Heritage Leadership

Actions and Impacts: Buffer zones



World Heritage property

WH buffer zone



Graphics ©World Heritage Leadership

Actions and Impacts: Wider setting



World Heritage property

WH buffer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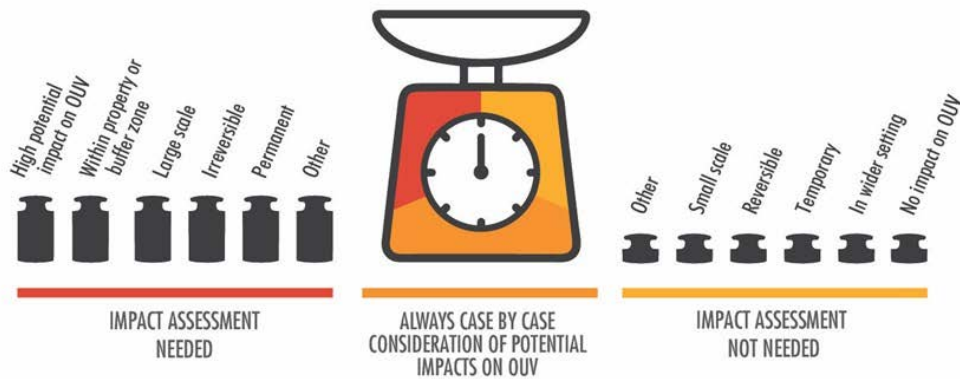
Area of influence / setting

Heritage Impact Assessment: Process and steps

Process of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s of a proposed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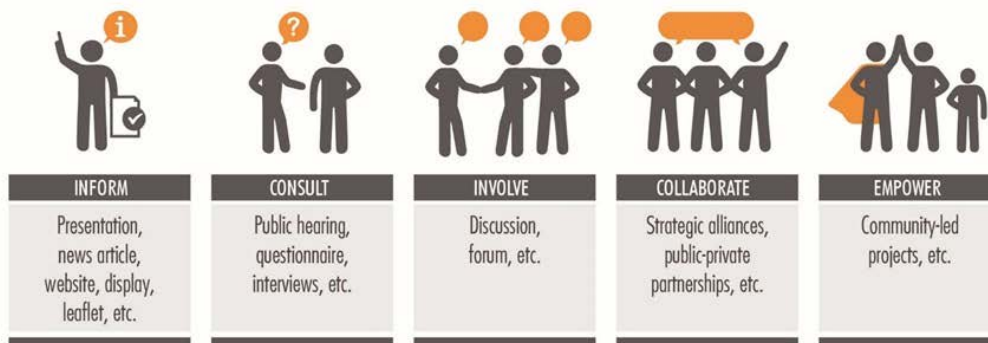


Screening: is HIA required? Consider property and project



Engagement Methods: Clarity in roles and responsibilities

ENGAGEMENT METHODS



Visitor management: Mogao



Photo: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https://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_resources/newsletters/31_1/enduring_collaborations.html



Carrying capacity is dynamic



Photo: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https://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_resources/newsletters/31_1/enduring_collaborations.html



Monitoring: adaptive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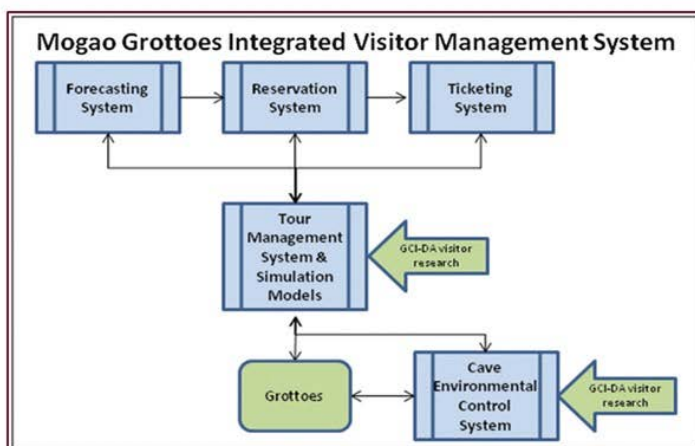
Photo: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MACKAY
STRATEGIC

The management of the grotto micro environment and visitation at Mogao is dynamic and responsive to changing conditions:

- Air quality—especially CO₂
- Humidity—relative to external conditions
- Groundwater flows
- Damage
- Dust and lint

Adaptive Management at Mogao



MACKAY
STRATEGIC

Photo: R. Mackay 2004. Chart: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https://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_resources/newsletters/31_1/enduring_collaborations.html



Stonehenge: mass visitation



 MACKAY
STRATEGIC

Photos: ICOMOS and R. Mackay, 2018

Stonehenge: using the landscape



 MACKAY
STRATEG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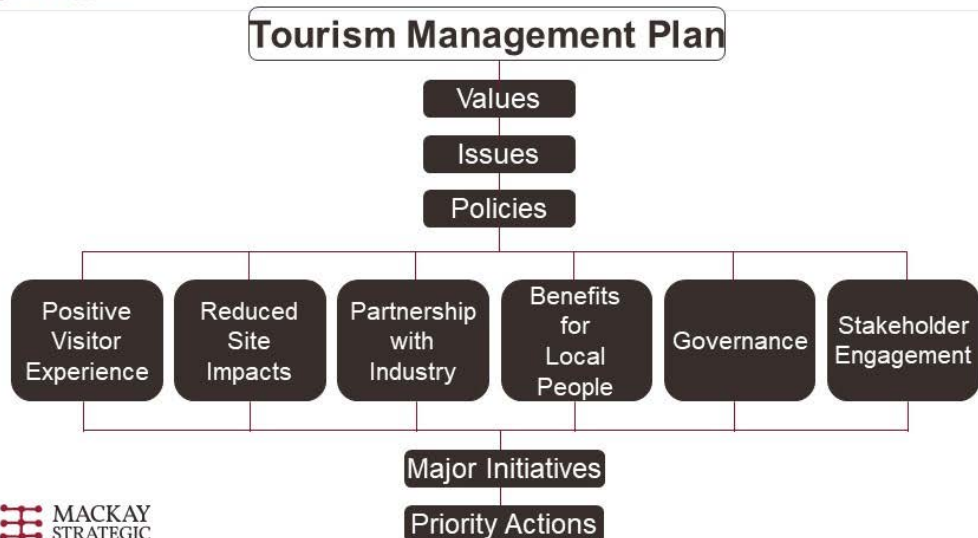
Photos: ICOMOS and R. Mackay, 2018

Angkor: managing the experience



Photos: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Angkor Tourism Management Plan



Positive visitor experiences



MACKAY
STRATEGIC

Angkor needs to offer a growing variety of different experiences and improved services:

- *diversified experiences*
- *market segments and 'targeted' experiences*
- *greater income yield*
- *better information*
- *monitoring visitor satisfaction*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Reduced site impacts



MACKAY
STRATEGIC

The cumulative effects of growing tourism must be managed by a combination of regulation and encouragement:

-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 *integrated temple management*
- *responsible tourism and better visitor behaviour*
- *management of visitor flows*
- *a common core briefing*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Industry partnership



 MACKAY
STRATEGIC

The tourism industry is a partner in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ngkor:

- *improved information flow and liaison*
- *clear rules and regulations*
- *improved industry standards*
- *greater collaboration and joint programs*
- *better facilities*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Benefits for local people



 MACKAY
STRATEGIC

Economic and other benefits must be shared with the communities who live in Angkor Park:

- *recognising the sacred, lived-in landscape*
- *connecting tourists with businesses*
- *ensuring community involvement*
- *facilitating cultural practices*
- *respect from visitors*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Governance



 MACKAY
STRATEGIC

The Tourism Management Plan can only succeed if there is a well-resourced government agency:

- *government commitment*
- *funding – both internal and external*
- *environmental management resources*
- *appropriate effective regulations*
- *capacity building & training*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Stakeholder engagement



 MACKAY
STRATEGIC

The Tourism Management Plan can only succeed if everyone involved is part of the process:

- *stakeholders – internal and external*
- *co-ordination of participation*
-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 *regular meetings and forums*
- *web site and E-news*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Angkor sunset: spreading the l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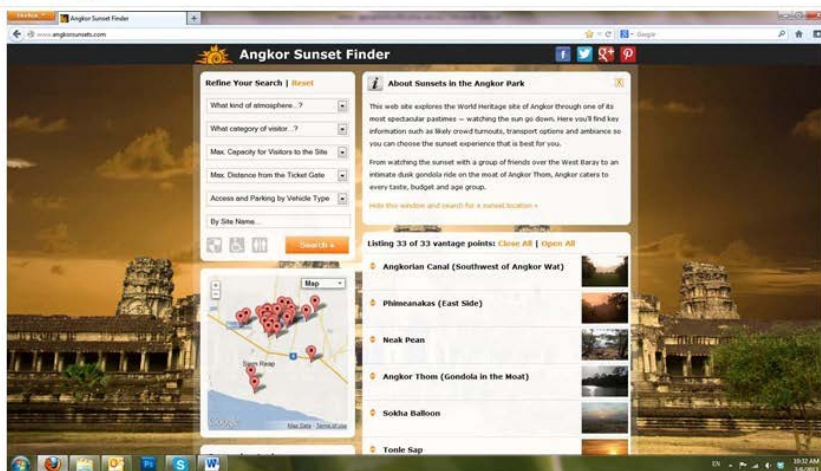
MACKAY
STRATEGIC

The Angkor sunset project has:

- *evaluated alternative sunset options*
 - *matched potential experiences with tourism market segments*
- to:*
- *diversify and spread the visitor load*
 - *reduce impact on individual sites*
 - *improve visitor experiences*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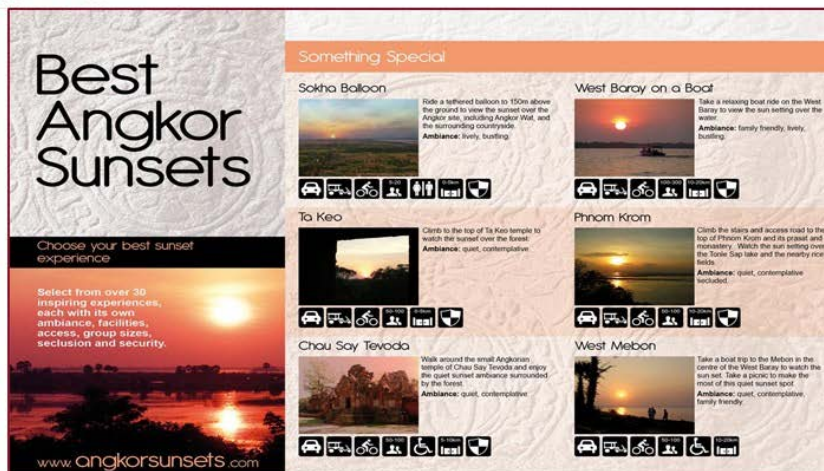
Angkor sunset: online database



MACKAY
STRATEGIC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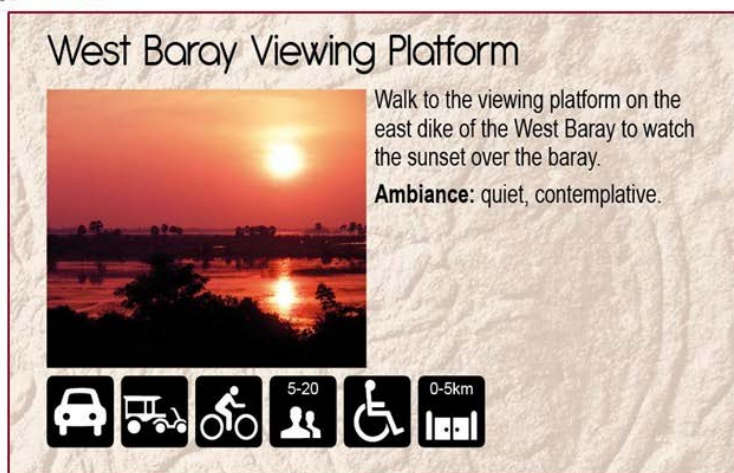
Angkor sunset: brochure



 MACKAY
STRATEGIC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Angkor sunset: visitor behaviour



 MACKAY
STRATEGIC

Photo: GML Heritage – 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 R. Mackay 2010-2014

Managing visitor behaviour

Namyge Seowon



Namyge Seowon was the first seowon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olely by the efforts of the sarim, and it established the architectural standards for the academies that followed.



 MACKAY
STRATEGIC

 MACKAY
STRATEGIC

Manag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International Seowon Forum
12 -13 November 2021

Prof Richard Mackay, AM

www.mackaystrategic.com.au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serial World Heritage, Seowon

연속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샤리프 샴스 이몬_ 방글라데시 이코모스 위원장

Sharif Shams Imon_ President, ICOMOS Bangladesh

ABSTRACT

While the term Integrated Management has been in use for several decades, no clear definition exists within a heritage management context. A review of early heritage management-related doctrines points towards integrating conservation concerns in development policies, plans, and processes. However, since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a gradual shift towards emphasising heritage as a driv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emerged. The new positioning of heritage within the overall development framework has taken heritage management beyond conserving heritage values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o play its new roles, heritage management needs to treat individual components of various development processes as interconnected systems and be an integral part of them. This paper discusses what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means and the primary considerations when develop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serial World Heritage site Seowon.

초록

통합 관리라는 용어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지만 유산관리의 맥락에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유산관리에 관련된 초기의 원칙들을 검토하면 개발의 정책·계획·과정에서 보전의 관심사들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21세기로 접어든 이래 유산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인으로 강조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개발의 틀 안에 유산을 새롭게 자리 매김함으로써 유산관리가 유산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유산관리가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발전 과정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을 서로 연결된 체계로 다루고 유산관리가 그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통합적인 유산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속유산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개발할 때의 주요한 고려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serial World Heritage, Seowon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The term integrated management, albeit carrying varying meanings in the heritage field,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45 years. Initially, the term *integrated conservation* was used. The meaning of this term was relatively narrow. The 1975 *European Charte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explained: “Integrated conservation is achieved by the application of sensitive restoration techniques and the correct choice of appropriate functions”. Concurrently, the ICOMOS’s *Declaration of Amsterdam* (1975) emphasise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the continuity of existing social and physical realities of the people in the integrated conservation process:

“In applying the principles of integrated conservation, [local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of the continuity of existing social and physical realities i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The future cannot and should not be built at the expense of the past.”

It also calls for integrating the con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bout a decade later, the *Washington Charter* (1987) took it further and asked for a policy integration: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other historic urban area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coherent policie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t every level.”

As the realisation that heritage conservation cannot succeed unless it is integrated into the overall development agenda started get more traction in heritage discourse, and the heritage conservation world started to embra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D) concept in the 1980s and 1990s, ICCROM launched its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Conservation (ITUC) programme in 1995¹). ITUC’s definition of Integrated Conservation made the first explicit reference to SD: Integrated conservation means integration of concern for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general planning and management of cities and regions. It seeks sustainable development by transforming cultural heritage into an asset tha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process’s cultural, social,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hysical dimensions.²) By taking conservation beyond the realm of cultural policies,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thus makes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However, this also means, safeguarding heritage today extends beyond conservation issues and must address various dimensions of SD.

1) Jokilehto, J. (1999). *Integrated Territorial and Urban Conservation, ITUC, Programme - Phase I (1994 - 1998): Summary Report*. Rome: ICCROM

2) Zancheti, S. (2003) quoting H. Stovel, ITUC lectures.

In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way cultural heritage values are perceived has also changed significantly. ICOMOS's *Xi'an Declaration* (2005) highlighted the contribution of settings towards heritage values. And *Quebec Declaration* (2008) connected tangible (sites, buildings, landscapes, routes, objects) with intangible elements (memories, narratives, written documents, festivals, commemorations, rituals, traditional knowledge, values, textures, colours, odours, etc.) to explain what contribute to making place and to giving it spirit. Both declarations clarify that not all significant attributes of cultural heritage sites may lie within their protected area boundaries. Maintaining the spirit of heritage places may require the support of and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with various bodies.

There are also changes in the approach to conservation - social elements are now equally weighed with architectural and historical elements. Qualities to be preserved (among other things) now include the various functions that a place has acquired over time. These new developments have broadened the conservation horizon and necessitated conservation in broader 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programmes. Integrated management solves this problem by mak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a par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Paris Declaration (2011) on heritage as a driver of development then highlighted another important aspect of heritage management: economics. It calls for placing heritage at the heart of overall development strategies "to ensure that the development of heritage rewards local communities in terms of employment, the flow of finance, and well-being" and establishing a fair distribution of "heritage tourism-related revenues, between the costs of conservation and of heritage management, local communities, and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ism companies." Linking heritage management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is further highlighted in *Florence Declaration* (2014) and UNESCO's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5). Moreover, in all of these,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s a critical prerequisite.

The above discussion reveals the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 Integration of heritage conservation in all development policies
- Heritage management integrates contribu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s one of its goals
- It increases the chance to achieve conservation goals in meaningful ways
- Conservation can contribute in significant and tangible ways to human development

How to Integrate?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integrated management is about integrating all aspects of an organisation's management into a single system,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1. Integrated Management is **an approach**: When an organisation recognises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all management aspects and bases management decisions on that.

2. Integrated Management is a process: When all aspects of an organisation's management activities are integrated into a single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a single vision.

3. Integrated Management is an outcome: When all aspects of an organisation's management continue to perform as a single system and deliver intended results.

When translated into management terms, the first dimension relates to an organisation's vision, mission, goals, and objectives; the second to management strategies, system, and processes; and the third to monitoring and evaluation.

To be effective, integrated management must include all three dimensions in a management plan and reflect them in the system that uses the plan.

Integrated management can be attained at three levels – policy level, planning level and project level. Integration is, however, also crucial across levels as the number of sectors involved at each level is, in many instances, more than one. At the policy level, integrated management can be achieved by incorporating conservation in development strategy and promoting conservation as a means to achieve economic and socio-cultural sustainability. Support from the government's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ry departments is vital for integration at this level. Sectors at this level include economic, socio-cultural, environmental, and different fields of knowledge (history, architecture, geography, archaeology, economics, sociology, and anthropology).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adequate development control mechanisms are important for effective integration at the planning level. Also important i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planning process to gain acceptance and support from the public. The spheres of planning include housing, education, culture, infrastructure, and tourism.

At the project level, identifying the supportive elements such as local culture, economic activities, environmental quality, physical setting, etc., and including them in the project, can help achieve integration. It is also important that appropriate planning and design measures are applied to ensure continuity of heritage elements. Again, stakeholders' participation at both the design and management stages is vital to ensure continuity.

The fragmenta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and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both vertically and horizontally could be a challenge for integrated management. At the site level, the inability to see the connections between various components of a site and its greater setting is a major cause of problems faced by heritage sites today. This inability often leads to fragmented and inappropriate actions by the sites' management. However, by developing a holistic view, site management can help achieve an integrated approach.

It is evident, none of these is possible without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all actors and stakeholders and, in many cases, without developing partnerships with others. By working with other partners and developing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a site manager can ensure one's action does not hurt others' interests and vice versa. In addition,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to heritage site management, it is important that the relevant information is collected, processed, managed, presented, and shared with all in an integrated manner.

By mak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 part of the overall development strategy, integrated conservation puts heritage in a position where it can establish its place among many other competing development interests. To ensure that heritage gets its rightful place, political support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is imperative. This can only be achieved if the general population is aware of the value of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as a link to the past and as a means of shaping the futur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has been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under Criterion (iii). The nine components of the serial World Heritage site are in six different provi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ment to justify meeting the criteria refers to the following attributes:

- Cultural tradition
-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 Function
- Planning
- Architecture

However, most of the attributes presented at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evaluation were related to architecture.

Whil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as satisfied with the property's current state of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its decision,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the following:

-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Current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urtee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ix provincial governments and eight municip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nine sites of Seowon." Given the multiplicity of actors and legal instruments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serial World Heritage property, it would be challenging for a "static" management document to guide management actions that would fulfil the management **vision** in a constantly changing world unless a strategic

management approach is adopted. Four factors – organisation, internal environment, external environment, and resources – are essential in strategic management. In it, a pathway to reaching the vision is formulated by identifying measurable objectiv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objectives by carrying out multiple analysis, such as, PEST (how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factors will affect the performance and activities of an organisation), SWOT, cost-benefit analysis, what-if analysis (comparing different scenarios), risk analysis.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will need to address the following management areas:

Tangible heritage and its settings

Protection

Conservation

Intangible heritage associated with the property

Continuity

Transmission

Nature elements of the property

Protection

Conservation

Dissemination of heritage knowledge

Presentation

Interpretation

Elements needed for Seowon's proper functioning

Facilities

Infrastructure

People who live in and around the property, users, other stakeholders

Quality of life

Well-being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Destination/ place branding

Marketing

Interpretation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Facilities

Services

Visitor management

To develop management actions that achieve common goals, all management areas listed above should be covered by a single vision. The vision must incorporate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management: protection of heritage values and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the former is relatively well-established at Seowon, the latter

would require establishing the parameters of a management vi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physical, human, technology, information, time,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rough broad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mmendations have given the State Party an opportunity to go beyond developing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and develop on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entire World Heritage property. Adoption of the meaning of integrated management would be a significant step forward towards that.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통합 관리란 무엇인가?

통합 관리라는 용어는, 유산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지만, 45년 이상 쓰이고 있다. 처음에는 통합 보전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 용어는 꽤 좁은 의미로 쓰였다. 〈1975 건축유산에 관한 유럽 헌장(The 1975 European Charte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합 보전은 세심한 복구 기술을 적용하고 적절한 기능을 올바르게 선택함으로써 성취된다.” 이와 함께, 이코모스의 〈암스텔담 선언(Declaration of Amsterdam, 1975)〉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합 보전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사람들의 사회적·물리적 현실의 연속성이 강조되었다.

“통합 보전의 원칙을 적용할 때 [지방정부는] 도시와 전원의 지역사회가 처한 기존 사회적·물리적 현실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는 과거를 희생하고 세워질 수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된다.”

그것에서는 또한 건축유산의 보전을 도시 및 지역 계획과 통합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10년쯤 뒤에 〈워싱턴 헌장(Washington Charter, 1987)〉에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정책의 통합을 모색했다.

“역사 시가지와 그 밖의 역사 도시지역의 보전은 모든 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도시·지역 계획을 위한 일관된 정책의 구성 요소이어야 한다.”

유산 보전이 전체적인 발전 의제에 통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유산 담론에서 점점 더 관심을 끌기 시작함에 따라 1980년대와 1990년에 유산 보전 분야는 지속가능한 발전(SD)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1995년 ICCROM은 통합 도시·지역 보전(ITUC) 프로그램을 열었다³⁾. 통합 보전에 대한 ITUC의 다음과 같은 정의는 SD에 대한 첫 명시적 언급이었다. “통합 보전은 도시와 지역의 기본 계획과 관리 안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문화유산을 발전과정의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환경적·물리적 차원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⁴⁾ 통합적 유산 관리는 보전을 문화 정책의 영역 너머로 확장시킴으로써 문화유산의 보호는 발전 과정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오늘날 유산의 보호가 보전 문제 너머로 확대되고 SD의 다양한 차원들을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문화유산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이코모스의 〈시안 선언(Xi'an Declaration, 2005)〉에서는 유산 가치에 대한 주변 환경의 기여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퀘벡 선언(Quebec Declaration, 2008)〉은 유형 요소(유적지, 건물, 경관, 경로, 대

3) Jokilehto, J. (1999). *Integrated Territorial and Urban Conservation, ITUC, Programme - Phase I (1994 - 1998): Summary Report*. Rome: ICCROM

4) Zancheti, S. (2003) quoting H. Stovel, ITUC lectures.

상물)를 무형 요소(기억, 서사, 문서, 축제, 기념행사, 의식, 전통 지식, 가치, 재질감, 색채, 냄새 등)와 연결해 무엇이 장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장소에 정신을 부여하는지 설명했다. 두 선언은 문화유산 유적지의 중요한 속성들이 모두 그것의 보호구역 경계 안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산 장소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는 다양한 집단의 지원과 협력,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전에 대한 접근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이제 사회적 요소들이 건축적·역사적 요소들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보존해야 할 특질에는 한 장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획득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된다. 이런 새로운 동향에 따라 보전의 지평이 확장되었으며 보전이 더 넓은 지역적·도시적 발전 프로그램 속에서 필요한 것이 되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일부로 보는 통합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산을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2011)〉에서는 경제라고 하는 유산관리의 다른 중요한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고용, 재정 흐름, 그리고 웰빙의 측면에서 유산 개발이 지역 공동체에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을 전체적인 발전 전략의 중심에 놓을 것, 그리고 “유산 관광 관련 수익을 보전과 유산 관리 비용,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국가·국제 관광회사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플로렌스 선언(Florence Declaration, 2014)〉과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과 세계유산협약 과정의 통합 정책(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5)에서 유산 관리를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더 강조되었다. 더욱이 이 모든 문서들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통합 유산관리의 네 가지 특징이 드러났다.

- 모든 발전 정책에 유산 보전을 통합함
- 유산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들 가운데 하나로 통합함
- 그것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전 목적을 성취할 기회를 증가시킴
- 보전은 중요하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어떻게 통합하는가?

관리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는 어떤 조직이 하는 관리의 모든 측면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1. 통합 관리는 접근방법이다. 조직이 모든 관리 측면들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2. 통합 관리는 과정이다. 하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에서 하는 관리 활동의 모든 측면들이 하나의 관리 체계에 통합되어 있을 경우.
3. 통합 관리는 성과다. 조직에서 하는 관리의 모든 측면들이 계속 하나의 체계로 수행되고 의도한 결과를 산출할 경우.

관리의 용어로 해석할 때, 첫 번째 차원은 한 조직의 비전, 임무, 목적과 목표에 관련된다. 두 번째는 관리 전략, 체계, 그리고 과정에 관련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련된다.

통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리계획에 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계획을 사용하는 체계에 그것들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 관리는 정책 수준, 계획 수준, 프로젝트 수준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각 수준에 포함된 부문의 수가 둘 이상이므로 통합은 수준들을 가로지른다. 정책 수준에서 보전을 발전 전략에 포함시키고 경제적·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보전을 증진함으로써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이 수준에서 필수적이다. 이 수준의 부문에는 경제,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다른 전문분야(역사, 건축, 지리, 고고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가 포함된다.

계획 수준에서는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 정부 부서와 적절한 개발 통제 메커니즘 사이의 조정이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이 계획 과정에 참여해 대중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계획의 영역에는 주거, 교육, 문화, 기반시설, 여행 등이 있다.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지역 문화, 경제 활동, 환경 특성, 물리적 환경 등 지지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프로젝트에 포함하면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산 요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과 설계를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와 관리의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협치 체계의 분열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책임 소재의 중복은 통합 관리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유적지 수준에서는 유적지와 넓은 주변 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사이의 연결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유적지가 직면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부족함으로 종종 유적지 관리가 분열된, 부적절한 활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총체적인 시각을 개발하면 유적지 관리를 통해 통합적 접근방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것도 모든 관계자와 이해당사자 의사소통과 조정이 없이는, 또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 동반자 관계를 개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여러 동반자들과 일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개발함으로써 유적지 관리자는 한 사람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해치지 않도록, 또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유적지 유산관리에 통합적 접근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통합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 설명,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보호를 전체적인 발전 전략의 일부로 만듦으로써 통합 보전은 유산이 다른 많은 발전의 경쟁적인 이해관계들 속에서 그것의 자리를 확보하도록 자리매김한다. 유산이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정치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일반 대중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의 가치를 과거에 대한 연결고리이자 미래를 형성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서원의 통합 관리

‘한국의 서원’은 등재기준(iii)을 충족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연속 세계유산 유적지의

9개 구성 요소는 대한민국의 6개 지방에 위치한다.

이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언급되었다.

- 문화 전통
- 교육적·사회적 활동, 많은 부분이 계속되고 있음
- 기능
- 계획
- 건축

그러나 세계유산 신청 평가에 제시된 대부분의 속성은 건축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현행 보호·보전·관리 상태에 만족하였지만, 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할 때 당사국에 다음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 서원들의 총괄 관리 문서 개발을 완성할 것.
-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통합 설명하는 방식을 좀더 개발할 것.

‘한국의 서원’의 9개 유적지에 대한 관할권에는 현재 문화재청의 주도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자치단체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다. 연속 세계유산의 관리에 개입하는 관련자들과 법적 도구가 다수임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관리 접근방법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계속 바뀌는 세상에서 관리 비전을 충족하는 관리 활동을 “정적인” 관리 문서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조직,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자원 등 네 요소는 전략적 관리에 필수적이다. 그것에서, PEST(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요소들이 조직의 수행과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SWOT, 비용편익분석, 가상(what-if)분석(여러 시나리오 비교), 위험도 분석 같은 여러 분석을 통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을 확인함으로써 비전에 도달하는 길이 열린다.

총괄하는 관리 문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유형 유산과 그 주변 환경

보호

보전

문화재와 연관된 무형 유산

연속성

전승

문화재의 자연 요소

보호

보전

유산 지식의 전파

설명

해석

‘한국의 서원’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시설

기반시설

문화재 내부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용자, 그 밖의 이해당사자

삶의 질

웰빙

경제 발전

관광

관광목적지/ 장소 브랜딩

마케팅

해석

기반시설

교통

시설

서비스

방문객 관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리 활동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에 나열한 모든 관리 영역을 하나의 비전으로 포괄해야 한다. 비전에는 유산 가치의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통합 관리의 기본 특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에서 유산 가치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잘 정립된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물리적·인간·기술·정보·시간·물질 자원에 대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관리 비전의 매개변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따라 당사국에 전체 세계유산 문화재를 위해 “총괄 관리 문서”를 개발하고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를 개발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통합 관리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번역: 한필원)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Dr Sharif Shams Imon

President | ICOMOS Bangladesh

Academic Coordinator

Cultural and Heritage Management Programme

Macao Institute for Tourism Studies

International Seowon Forum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fter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12-13 November 2021 | Hotel Inter-Burgo Daegu | Republic of Korea



CONTENTS

-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 How to integrate?
-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3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Early appearances of the term

"Integrated conservation is achieved by the application of sensitive restoration techniques and the correct choice of appropriate functions."

- European Charte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1975

"The con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should become an integral par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ead of being treated as a secondary consideration."

- The Declaration of Amsterdam, 1975

4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Broadening of the meaning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other historic urban area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coherent policie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t every level.”

- Washington Charter, 1987

5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From conserv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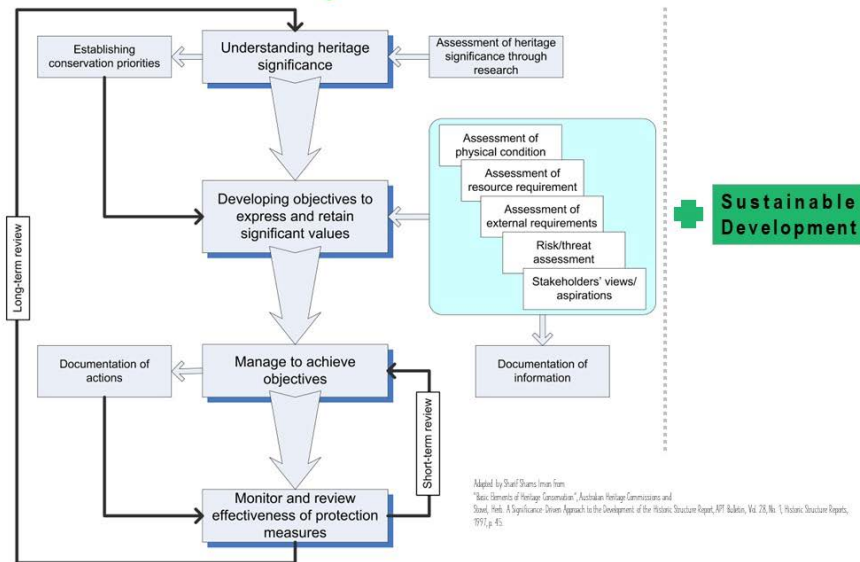
Integrated conservation means integration of concern for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general process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cities and regions.

It seeks sustainable development by transforming cultural heritage into an asset that contributes to the cultural, social,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hysical dimensions of the development process.

-Zancheti, S. quoting H. Stovel, ITUC lectures, 2003

6

Conservation Management Process



7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afeguarding a heritage site today extends beyond technical conservation issues. Heritage site managers must also address variou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as defin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Competence Framework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UNESCO, 2021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9

Interconnectedness

- Xi'an Declaration (2005)
 - › Develop planning tools and practices to **conserve and manage setting**
 - › Monitor and manage **change affecting settings**
- Quebec Declaration (2008)
 - › Spirit of place is made up of **tangible** (sites, buildings, landscapes, routes, objects) as well as **intangible** elements (memories, narratives, written documents, festivals, commemorations, rituals, traditional knowledge, values, textures, colors, odors, etc.), which a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making place and to giving it spirit.
 - › **[Local communities]** are also best equipped to safeguard [the spirit of place] and should be **intimately associated in all endeavors** to preserve and transmit the spirit of place.
- Paris Declaration (2011)
 - › Fair distribution of **heritage tourism-related revenues**, between the costs of conservation and of heritage management, local communities, and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ism companies.
- Florence Declaration (2014)
 - › Community-led strategies for cultural tourism
 - › Landscape approach
 - › Linking heritag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 UNESCO's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5)
 - › Based on Human Rights, Equality and Sustainability, through a long term perspective
 - ›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and climate change
 - ›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 › Respect and equality
 - ›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10

4 characteristics

- Integration of heritage conservation in all development policies
- Heritage management integrates contribu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its goal
- It increases the chance to achieve conservation goals in meaningful ways
- Conservation can contribute in significant and tangible ways to human development.

How to integrate?

11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3 dimensions of integrated management

Integrated Management is an approach

When an organisation recognises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all aspects of management and bases management decisions on that

Integrated Management is a process

When all aspects of an organisation's management are integrated into a single management system with the aim of achieving a single vision

Integrated Management is an outcome

When all aspects of an organisation's management continue to perform as a single system and deliver intended results

12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Management

*“Management means effective use and coordination of resources to achieve **pre-defined objectives**.”*

-Herb Stovel

- Management Plan is an important tool
It defines a management processes by which management objectives are achieved.
- Management resources
 - Physical capital
 - Human capital
 - Technology
 - Information
 - Time
 - Materials

13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Management plan

-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 The most common tool for such management is to prepare a management document that delineates the management objectives and the management process.
- Depending on the legal and management systems of a country, this document may have one of the following names:
 - Master Plan
 - Conservation Plan
 -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 Management Plan

14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15

Management system

- A management plan provides details of what are needed for good management of a site and how to implement various management measures.
-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ensures the management measures prescribed in the management plan are implemented.
-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will ensure that adequate human resources are employed and adequate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are allocated for the job.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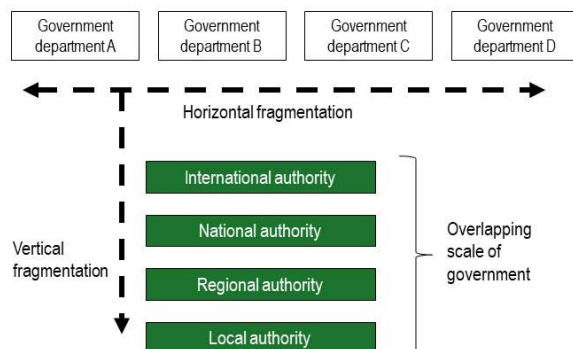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16

Fragmentation in governance system



Source: T. Potts, A.H. Hoel, Treatise on Estuarine and Coastal Science, 2011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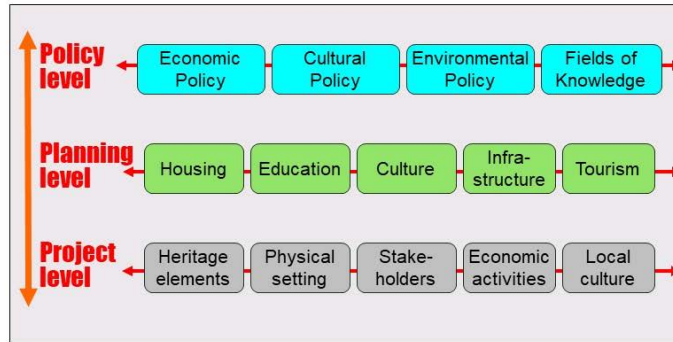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3 levels of integration

- Policy level
- Planning level
- Project level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Policy Level

Integrating the concept of conservation as a **basis** for all development strategy

Promoting conservation as **one of the mean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suring adequat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support

Planning Level

- Creating a strong **knowledge base**
- Ensuring **coordination**
- Developing adequate **development control** mechanisms
- Ensuring stakeholders' **participation**

Project Level

- Identifying **supportive elements** in heritage setting
- Analyzing the **relationships** of supportive elements
- Paying attention to existing **mutually supportive** elements
- Applying appropriate **planning and design measures** that ensure continuity
- Involving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process
- Promoting **coordinated** management structure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21

Holistic view

- The inability to see the **connections between various components of a site and its greater setting** is a major cause of problems faced by heritage sites today.
- This inability often leads to **fragmented and inappropriate actions** by the sites' management.
- By developing **a holistic view**, a site manager can help achieve an integrated approach.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22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 Interacting and **communicating** with other actors.
 - By working with other partners and developing various channels of communication, a site manager can ensure one's action does not hurt **others' interests** and vice versa.
- Coordinating **decisions and actions** with others.
 - As the centre of **interests of all actors**, a heritage site is a shared but most important resource for all.
 - As the manager of this important resource, a site manager should **take a lead role** in the coordination of her/his actions with those of others.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23

- Using tools that facilitate integration.
 -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to heritage site management, it is important that the relevant **information** is collected, processed, managed and presented in an integrated manner.
 -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by other actors is also a key factor to achieve this.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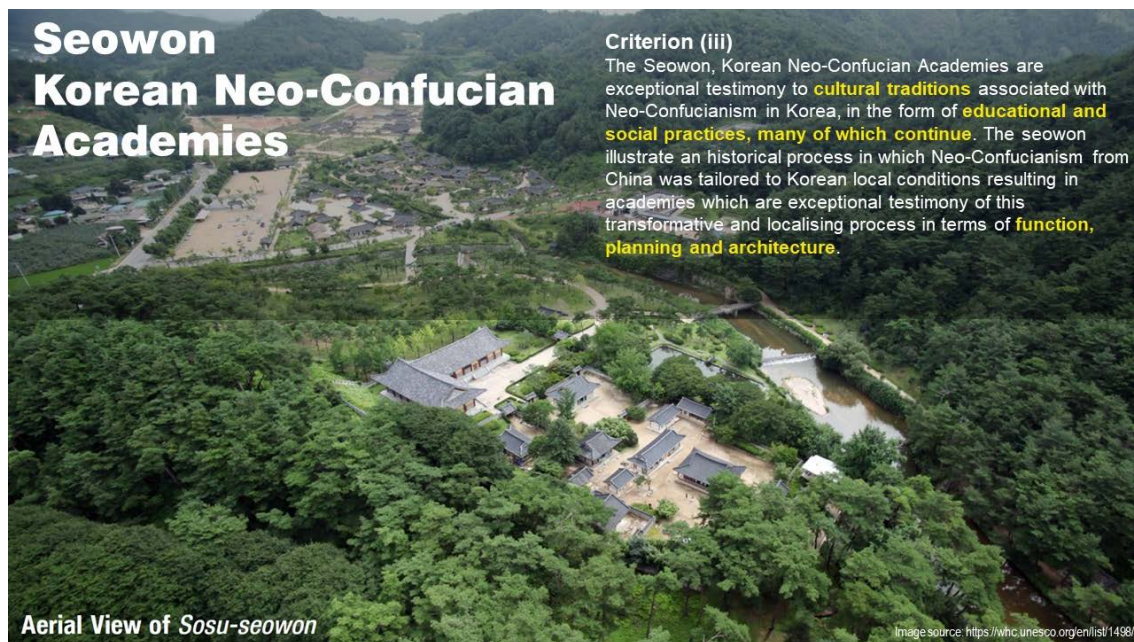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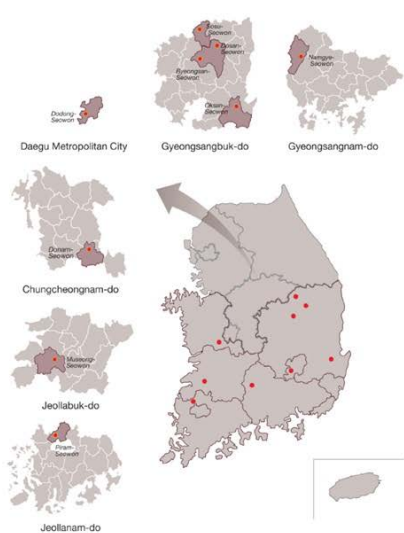
Challenges

-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art of **overall development strategy**
- There are many other **competing development interests**
- The management **vision** may not be shared by all stakeholders
- There must be **political support** in the government and among the public
- There must be **public awareness**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25





Seowon Bound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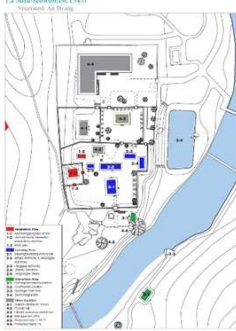
Source: <https://whc.unesco.org/en/list/1498/>

27



SOSU-SEOWON

ATTRIBUTES LI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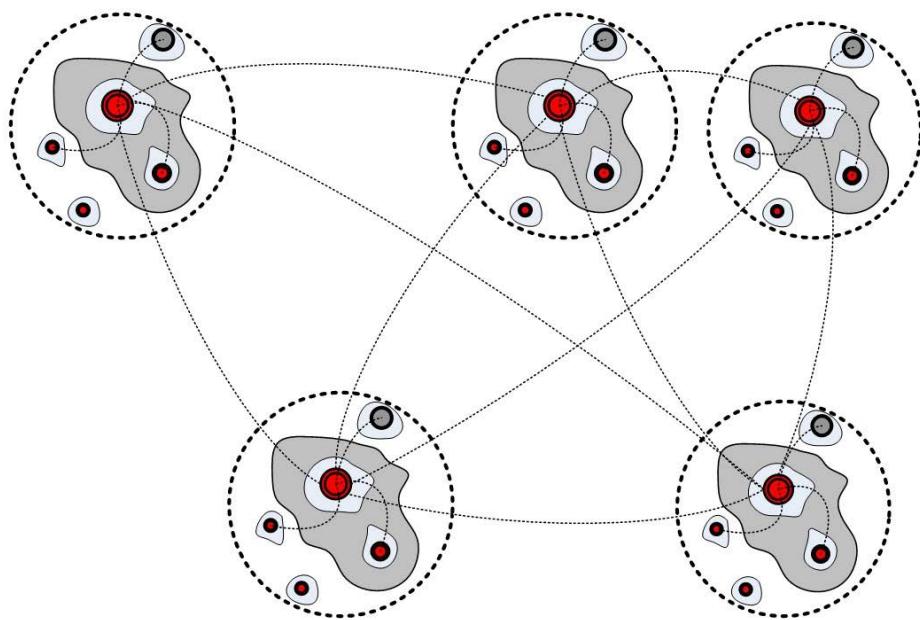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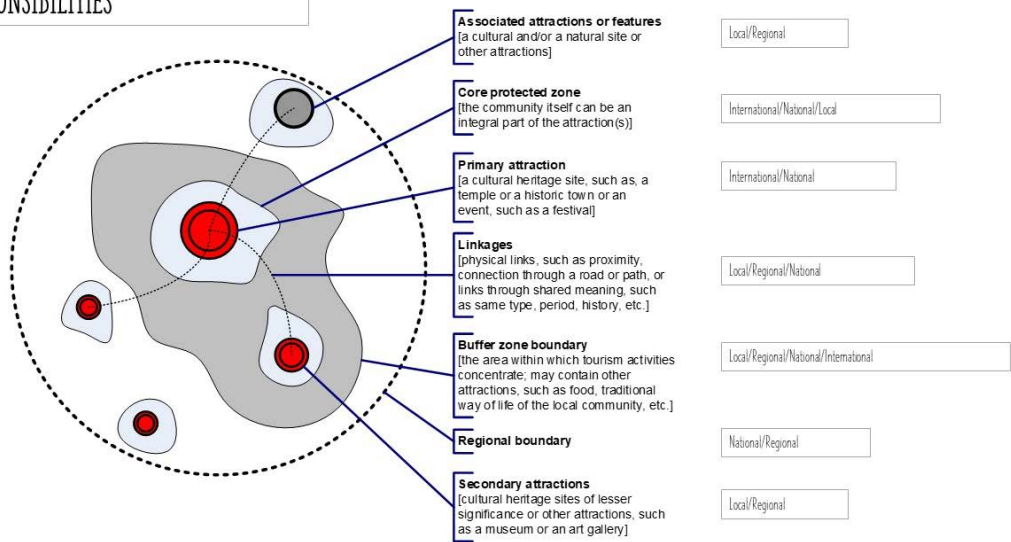
BOUNDARIES WORLD HERITAGE VS STATE PROTECTION VS SPIRITUAL

Attributes not li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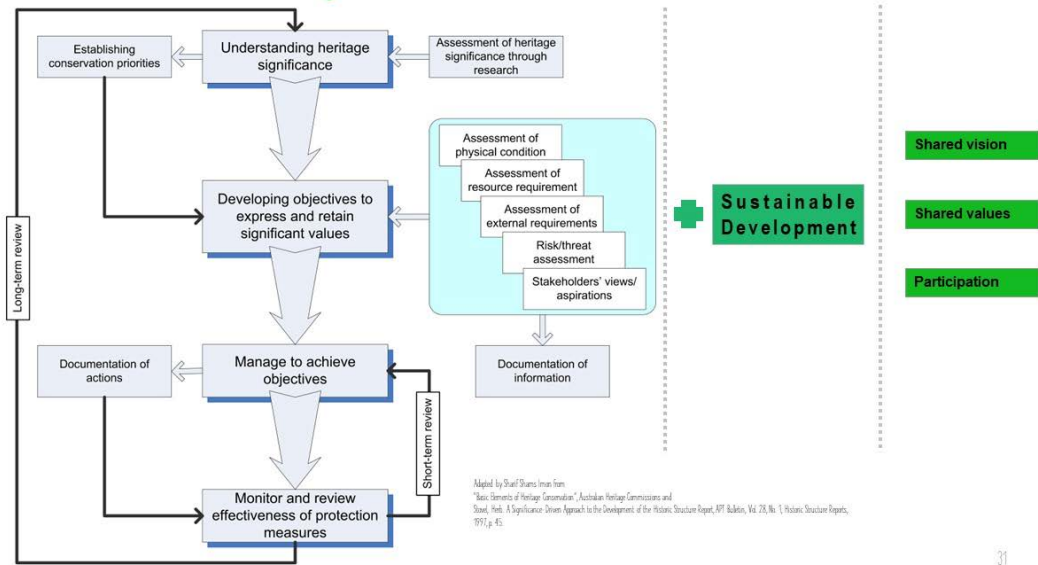
SPIRIT OF PLACE PEOPLE RIVER HILLS BACKDROPS GREENERY COLOURS SOUND SMELL

Image source: <https://whc.unesco.org/en/list/1498/>

DEFINING BOUNDARIES AND RESPONSIBILITIES



Conservation Management Process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Strategic Management



Shared vision

Shared values

Participation

Tangible
Protection
Conservation

Intangible
Continuity
Transmission

Nature
Protection
Conservation

Dissemination
Presentation
Interpretation

Function
Facilities
Infrastructure

People
Quality of life
Well-being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Visa policy
Destination/ place branding
Marketing
Interpretation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Facilities
Services
Visitor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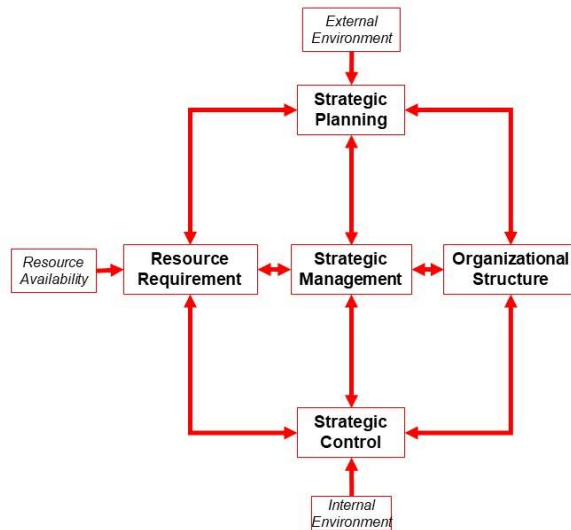
Contents

What is Integrated Management?

How to integrate?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Strategic Management: Four-Factor Model



What's nex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 ›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Integrated presentation >>> **Integrated presentation + interpretation**

3 prerequisite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at protects heritage values and contributes to other SDGs

Integrated presentation + interpretation based on WH values but also embracing the plurality of value perceptions

Shared vision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Shared value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An inclusive and equitable **participatory process** respecting human rights principles

토론 Discussion

조재모_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Cho Jaemo_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먼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과 관련된 의미 있는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유산의 등재까지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등재 이후에는 그 힘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겠습니다만, 한국의 서원은 등재 이후에도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알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에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유산분야의 권위자이신 이문 박사께서는 우리 한국의 서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 박사님의 발표는 통합관리의 개념과 전략, 실천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서원의 통합관리 전략 구체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도 유산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세계유산의 등재는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애정과 역량,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서원이라는 훌륭한 유산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에 의해 등재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문 박사님의 발표에서도 거론되는 이해당사자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상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유의미한 전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통합관리는 발전의제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1) 여러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전략

연속유산에 있어서 통합관리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서원의 등재과정에서도 통합관리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질의응답과 약속이 수반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지역에 널리 분산되어 있는 이 연속유산의 성격 상 통합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존재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통합관리단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 조직은 연속유산의 통합관리에 가장 중요한 기반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유산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시행 초기라 좀 더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한국의 유산관리체계는 다분히 국가주도적이며,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청의 역할이 큼니다. 정부의 입장은 모든 유산에 대해 균등한 관리체계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각 유산마다 상황과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세계유산특별법, 통합관리단, 그리고 각각의 서원 및 지역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은 통합관리의 여러 층위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어떤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유산가치의 지속가능성

비록 애초에 신청서에 기술되었던 등재기준(iv)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디만, 한국 역사에서 서원은 가장 강력한 형식규범이 존재하고 있는 건축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당과 내삼문, 강당과 동서재, 누마루와 외삼문 등 각각의 영역을 배치하는 방식, 영역을 구성하는 건축규범이 명확합니다. 이는 비단 등재된 9개의 서원만이 아니라 모든 서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때로는 이러한 강력한 규범이 지나치게 작용하여 개별 서원의 특수정보다 통일적 규범이 우선하려는 대중의 인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는 편의나 관광개발을 위한 변형을 저지하고 있는 심리적 규율입니다.

한편으로 서원은 조선시대만큼 사회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육의 기능은 근대기를 거치면서 소위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그 역할을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도시와는 지리적 거리가 있는 서원의 입지 특성 등으로 인해 서원의 교육기능은 항속적인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이벤트적인 활용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중의 후손에게 관리, 운영의 역할이 놓이면서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없지 않습니다. 보다 널리 서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노력도 있습니다.

즉, 과거에 기반한 강력한 형식규범에서 요구하는 물리적 구성과 현재의 실질적인 운영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유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원의 유산가치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게 할당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더 많은 질문은 다음의 기회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韩国书院整体性阐释展示与推广

‘한국의 서원’의 통합적인 설명 · 해석 · 홍보



옌 하이밍_ 중국 이코모스 사무국장

Yan Haiming_ Director of Secretariat, ICOMOS China

提要

韩国书院的整体性阐释，应遵循《ICOMOS文化遗產地阐释与展示宪章》的原则，尤其是关于注重背景环境和文脉的原则，针对书院的最具特色且可操作的方面进行凝练并加以总体展示。

具体而言，整体性阐释体系的建议包括两个方面，一是针对价值特征的建议，二是针对具体方法的建议。在价值特征方面，建议从整体层面突出：1) 其思想-社会维度所映射的学术团体参与政治的价值导向，突出将学术教育与乡土朝鲜社会现实和政治参与相结合的特征；2) 其时间维度表现出的书院体系的发展脉络，通过构建一个具有清晰时间序列的叙事体系，全面表现书院体系丰富的历史发展过程；3) 其空间维度所体现的选址和建筑格局的标准化特点，突出研修空间、祭祀空间和交流空间的格局和书院功能的密切结合特征。

在技术手段上，建议从1) 展示馆、2) 媒体平台、3) 解说词三个方面进行提升，构建能够总体描述九处书院价值的展示场馆；在恢复网站服务的同时，与现有社交和旅游平台相结合；开展针对特定群体的解说。

中国大运河的整体性阐释展示策略，包括标准化的标识体系、博物馆和国家遗产线路体系、以及国家层面的定期活动，可以为韩国书院提供参考。

초록

‘한국의 서원’의 통합적인 설명·해석은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히 주변 환경과 맥락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서원의 가장 특색 있고 활용(적용) 가능한 측면에 대해 집약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인 설명·해석 체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치의 특징에 대한 제안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이다. 가치의 특징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층위를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1) 사상·사회 차원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사림)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학술교육과 조선 향토사회의 현실과 정치 참여를 결합한 특징을 강조한다. 2) 시간 차원은 서원 체계의 발전 맥락을 표현한다. 명확한 시계열적 서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서원 체계의 풍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전면적으로 표현한다. 3) 공간 차원은 입지 선정과 건물배치의 표준화 특징을 구현하고,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교류공간의 배치와 서원의 기능을 긴밀하게 결합한 특징을 강조한다.

기술적인 수단에 관해서는 ① 전시관, ② 미디어 플랫폼, ③ 안내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킨다. 9곳의 서원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전시관을 만들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복구하며, 사교와 관광 플랫폼과 결합한다. 그리고 특정 단체에 대해 해설을 진행한다.

중국 대운하의 통합적인 설명·해석·홍보 전략은 표준화된 표지 체계(signage system), 박물관과 국가유산 경로 체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서원’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韩国书院整体性阐释展示与推广

一、整体性阐释的原则

世界文化遗产的阐释，是《世界遗产公约》中要求的，旨在传播一项世界遗产突出普遍价值的重要手段，也是提高公众欣赏、理解文化遗产地的一种方式。要实现有效的展示和阐释，也要遵循一定的原则。《ICOMOS文化遗产地阐释与展示宪章》指出，阐释是“指为了提高公众文化遗产地意识和增强文化遗产地理解的所有可能的活动。可包括印刷品和电子出版物、公众讲座、现场装置和直接相关的非现场装置、教育项目、社区活动，以及对于阐释过程本身的持续性研究、培训和评估。”该宪章同时列出了文化遗产阐释的七大原则：

原则1：可达性和理解（Access and Understanding）

原则2：信息源（Information Sources）

原则3：注重背景环境和文脉（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原则4：保存真实性（Preservation of Authenticity）

原则5：为可持续性进行规划（Planning for Sustainability）

原则6：关注包容性（Concern for Inclusiveness）

原则7：研究、培训和评估的重要性（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对于一项有多个遗产构成组成的系列遗产而言，其整体性阐释同样需要遵循上述七大原则。由于遗产区分布在不同地点，所涉及的具体历史情境各有不同，因此尤其应该关注这些原则中的第3、6和7。

原则3要求，文化遗产地的阐释与展示应与更广泛的社会、文化、历史和自然背景与背景环境相关。具体而言，阐释应探究遗产地在历史、政治、精神和艺术背景中的多重意义，还应考虑遗产地的文化、社会和环境各方面的意义和价值；周边景观、自然环境和地理背景环境是遗产地历史意义、文化意义不可分割的部分，同样应被阐释所考虑；阐释应考虑遗产地的非物质要素，如文化与精神传统、故事、音乐、舞蹈、戏剧、文学作品、视觉艺术、当地习俗和饮食遗产。

原则6要求，文化遗产地阐释与展示必须是遗产专业人士、所在社区和相关社区与其他利

益相关者之间有意义地进行协作的结果。具体而言，应将多学科的专业知识整合到阐释与展示项目的制定中，如学者、社区成员、保护专家、政府当局、遗产地管理者和阐释员、旅游策划者和其他专业人士；进行遗产地阐释与展示项目的规划时，应强调并尊重遗产所有者、所在社区及相关社区的传统权利、责任和利益。

原则7要求，持续的研究、培训和评估是文化遗产地阐释必不可少的组成部分。具体而言，应按照促进阐释内容持续修订和/或扩充的方式设计并构建阐释项目和阐释设施；应不间断地监测和评估阐释与展示项目及其对遗产地的实际影响，内容的定期更换应以学术分析和公众反馈为基础。评估过程应包括游客、相关社区的成员以及遗产专业人士。原则7还建议，鼓励举办国际会议、研讨班，进行专业人员交换，也鼓励举办国家和地区会议，它们将为不同地区、不同文化中多样化阐释方法和经验信息的定期共享提供机会。

作为系列遗产的韩国书院，应在遵循七大原则的前提下，着重关注上述三条原则。比如，应建立起整合的关于书院诞生的历史和自然地理背景的叙述；应构建具有包容性的阐释体系，吸纳所有利益相关者参与价值的阐释与传播；应加强9处遗产构成的共同研讨，形成统一整合的学术共同体。

二、中国大运河的整体性阐释

在具体阐述韩国书院整合阐释体系之前，有必要介绍一项中国大型系列遗产的阐释体系——大运河。

大运河是纵贯中国东北和中东部平原的巨型内陆水道系统，流经中国8个省、直辖市。北起首都北京，经过天津、河北、山东、河南、安徽、江苏，至浙江省。大运河自公元前5世纪以来持续建造，到公元7世纪（隋朝）首次成为帝国统一的水路交通系统。这之后一系列巨大的工程，创造了工业革命之前世界上规模最大、范围最广的土木工程项目。大运河历经多个朝代修建和维护，到13世纪（元朝）大运河发展达到顶峰，形成了包含2000多公里人工河道的统一内陆航运网络，将黄河、长江等中国境内五大最重要的江河流域连接了起来。大运河直到今天仍是重要的内陆交通运输方式，自古至今在保障中国经济繁荣和社会稳定方面发挥了重要作用。大运河在2014年列入《世界遗产名录》。

2020年，中国出台了《大运河文化遗产保护传承规划》，从保护、管理、阐释等多个角度建立了大运河遗产价值传承的总体蓝图。其中有两章专门涉及大运河遗产的展示阐释和价值传播。在阐释手段上，要求：制定大运河文物和非物质文化遗产标识展示体系建

设规范。大运河文化遗产标识展示系统应充分考虑保护管理需求和观众参观特点，做到形制统一、规范，选址得当，规模适中，功能合理，有助于提升观众参观游览体验，确保与文化遗产及周边景观风貌相协调。展示内容应围绕大运河文化遗产价值，做到科学、准确、深入，兼顾知识性与趣味性。鼓励借助现代技术手段，提高现场展示阐释水平。

除此之外，还提出了建设考古遗址公园、构建专题博物馆体系、建设国家遗产线路的思路。博物馆体系中，包括了江苏扬州中国大运河博物馆、河南洛阳隋唐大运河博物馆、山东济宁河道总督府遗址博物馆；以及江苏淮安大运河水工科技馆、浙江宁波河海博物馆、绍兴浙东运河博物馆、河南开封汴河博物馆。大运河国家遗产线路，则考虑到具体点段所依托的不同类型的环境，根据大运河历史城市、现代城市、乡村田园、自然风景等不同区段环境风貌特征，构建文化价值展示阐释、生态环境保护体验、景观风貌参观游览相结合、非物质文化遗产与旅游融合发展的公共文化服务空间。

在宣传活动方面，和大运河有关的各种论坛包括扬州世界运河城市论坛、杭州大运河国际论坛等；节日包括中国的文化和自然遗产日、国际古迹遗址日、国际博物馆日、世界水日、中国水周和重要传统节日；国家层面推出了《忙忙碌碌的大运河》绘本，《大运河画传》，有条件的地方编写适合大中小学生特点、具有地方特色的读本读物；包括《大运河的故事》，还分为小学版和初中版。

需要强调的是，大运河的阐释系统并非完全一样，而是根据不同流域背景各有侧重，大运河沿线经过的京津、燕赵、齐鲁、中原、淮扬、吴越文化片区，所体现的大运河价值各有不同，表现的方式也有所差异。

三、韩国书院的价值特征

（一）价值特征

韩国书院是一处包含朝鲜王朝时代(公元15－19世纪)的九处书院的系列遗产。遗产独特见证了在中国新儒家思想传入朝鲜王朝后，本土化过程中产生的书院文化传统。遗产构成包括位于韩国中部及南部地区的绍修书院(Sosu)、蓝溪(Namgye)书院、玉山书院(Oksan)、陶山书院(Dosan)、笔岩书院(Piram)、道东书院(Dodong)、屏山书院(Byeongsan)、武城书院(Museong)、遁岩书院(Donam)九处书院。这些书院推动了来自中国的新儒家思想学说在韩国的发展，对韩国的各方面起到了重要作用。

标准 (iii)：韩国书院的教育实践和社会活动独特见证了韩国新儒家思想的文化传统，其中很多教育实践和社会活动还在继续开展。这些书院反映了来自中国的新儒家思想与韩国当地实际相适应和契合的历史过程，最终形成的书院从功能、规划和建筑等各方面杰出见证了这一变革性和本地化的过程。

（二）与中国的交流特征

韩国书院是古代亚洲文明交流互鉴的产物，是源自中国的儒家文化在亚洲文化圈内传播发展并与当地文化交融的体现。正如ICOMOS的评估结论所说，韩国书院“反映了来自中国的新儒家思想与韩国当地实际相适应和契合的历史过程，最终形成的书院从功能、规划和建筑等各方面杰出见证了这一变革性和本地化的过程”。这也正说明了韩国新儒家书院曾受到中国书院的启发和影响，见证书院文化在东亚地区的广泛传播与交流。

庐山国家公园于1996年以价值标准 (ii) (iii) (iv) 和 (vi) 被列入《世界遗产名录》。世界遗产委员会这样评价：江西庐山是中华文明的发祥地之一。这里的佛教和道教庙观，以及儒学的里程碑建筑（最杰出的大师曾在此授课），完全融汇在美不胜收的自然景观之中，赋予无数艺术家以灵感，而这些艺术家开创了中国文化中对于自然的审美方式。

白鹿洞书院作为中国四大书院之首，被称为“海内第一书院”，坐落在江西省九江市庐山五老峰南麓，是世界遗产庐山国家公园的重要组成要素。白鹿洞书院始建于南唐升元年间（公元940年），是中国首间完备的书院；其办学的模式为后世效仿，传至海外的日本、韩国及东南亚一带。韩国儒家书院中年代最久的荣州绍修书院，由大儒李滉（1501—1570）于1543年创设，初名“白云洞书院”，在名称上与白鹿洞书院有很多模仿相似之处。2010年，白鹿洞书院与韩国绍修书院缔结为友好书院。韩国绍修书院到访白鹿洞书院时，开展了祭拜孔子、朱子等活动。

四、书院阐释与展示现状分析

由于不能去现场进行调研，因此对于书院展示阐释现状的分析主要根据申遗文本中的内容。在文本中，若干次提及书院基金会（Seowon Foundation）针对9处遗产地正在进行整合阐释的工作。比如，基金会创立了英文的宣传册，以将9处遗产地作为一项系列遗产整合介绍；同时，帮助部分遗产地创立自己的网站，并为游客提供一份整合的公共交通、住宿和旅游景点的介绍手册。同时，基金会也在创立一个APP，提供该系列遗产的整合信息，游客可以通过导览和多种语言的解说，了解遗产地的信息。不过，上述信息是

否已经实现，还有待检验。遗憾的是，旨在统合9处遗产地信息的综合网站<http://en.seowonheritage.org/>，当前显示已经过期了，需要尽快恢复。

在实地开展的活动上，申遗文本描述，书院致力于延续研修、祭祀、交流的传统价值，除了定期举办礼仪活动之外，还通过更为现代式的培训班、研讨会、参观活动等激发人们参与的兴趣。尤其是争取20-30岁年龄段的青年人参与，共同研讨诸如环保、政治、教育等社会问题。这类研讨活动在保持本地特色的基础上，也在努力构建整合的体系，以凸显书院作为一项系列遗产的整合特性。

在ICOMOS给出的评估意见中，对于9处遗产地的整体阐释展示也提供了建议：当前的游客管理和阐释系统是满足需要的，但应进一步构建一套整合的符合系列遗产需求的展示体系。

五、对书院整体阐释策略的建议

下面，本文将具体提出韩国书院整体阐释的策略。下文将分为两个部分，第一是提炼出韩国书院价值要素中适合进行整体阐释的方面，并进行解读；第二是在具体的阐释展示方法上提出建议。

（一）价值要素特征的整体阐释建议

首先需要说明的是，一个整体性的阐释系统，并不意味着每个遗产地牺牲掉自己的个体特征。在历史过程中，9个书院形成了属于自身的特色，这些特色是独一无二的，并通过现有的阐释体系进行着价值传播，是需要保留的。

在此基础之上，作为世界遗产，书院要形成一套共有的阐释方式，应针对所有书院共有的特质进行强调。这些特质包含如下关键词：价值观、历史序列序列、景观格局，这三个关键词分别涉及世界遗产价值特征的三个维度：思想-社会维度，时间维度，空间维度。所有书院在这三个维度方面具有很高的共性。

1、价值观

这一过程中的关键群体是士林（sarim）。士林派是朝鲜王朝一个重要政治派别，是与勋旧派对立的政治势力。作为一个政治派别，士林派的学术主张是追求理想政治的性理，恢复儒教政治，来自于乡野的这一群体非常看重礼，并依托通过在乡村社会中建设书

院，培养自己的势力，进而影响了后续的朝鲜政治。因此，从这个角度而言，韩国书院是一种基于朝鲜王朝政治背景的，结合儒家思想而产生的具有政治诉求和社会组织意涵的遗产。阐释书院的价值，也需要将其放置在这样一个历史背景下去理解。

书院是在特定的时间范畴中，一群有着对国家和社会责任心的民间学者所创造的传播知识、传承重要的传统价值的场所。受中国新儒家思想的影响，并经过本土化的过程，书院构成了一个包括研修、祭祀和交流三大主题的公共空间。这些学者来自乡土，聚集在一起，坚守自身的道德诉求和政治理念，影响了朝鲜王朝历史的进程。这可以说是朝鲜半岛上比较典型的早期“公共空间”，体现出知识分子进行思考和互动，并创造公共意见，影响公共舆论的努力。

因此，整体性的对书院进行阐释，不仅是阐释书院在历史上所传播的知识和理念的内容，更应该突出这种将学术教育与乡土朝鲜社会现实和政治参与相结合的努力，这是具有鲜明时代特征和朝鲜文化特质的行动。学术理念影响政治进程，放置在今日也是政治参与的一个显著体现。这其中所蕴含的价值观是宝贵的。

2、历史演进

在公众的认知框架中，时间线索是一个最容易理解，最容易引领其进入到遗产叙事体系中的维度。韩国书院所包括的9处遗产地，虽然建造时间有先后，但可以视作是同一时间序列中不同节点的产物。这些书院中最早建立的绍修书院（1542），承自中国的白鹿洞书院，此后依次为蓝溪书院（1561）、陶山书院（1570）、玉山书院（1572）、笔岩书院（1590）、道东书院（1605）、屏山书院（1613）、武城书院（1630）、遁岩书院（1632）。

这些书院在时间序列之中，也各自扮演着书院体系发展的重要事件的节点角色。绍修书院是所有书院的肇始；蓝溪书院是第一座完全由士林群体支持建立的书院；玉山书院是士林书院学术体系建立的标志；陶山书院是士林学术传承的见证。上述书院时代较早，更倾向于表现士林群体对书院建设的影响力。

此后从1590年的笔岩书院开始，便与书院所具有的社会意义密切相关，笔岩书院是书院管理和财政运行机制的代表；道东书院是研修规范的见证；屏山书院是士林公共思想在社会层面渗透开始的标志；武城书院是书院对当地社会教化的代表；遁岩书院是礼学成就的象征。

这些书院所处于的不同年份，以及九所书院共同构建的一套见证书院系统不断发展的时间脉络，也能够通过书院的格局和建筑模式愈发标准化的特点来体现。总之，通过构建一个具有清晰时间序列的叙事体系，既能够清楚表达出每一所书院在整体阐释体系中的独特性，也能够全面表现书院体系丰富的历史发展过程。

3、规划与建筑格局

除了个别书院（最早的绍修书院）外，所有书院都具有相对标准化的布局，以分置研修空间、祭祀空间和交流空间。这种空间格局和书院功能的密切结合，也是韩国书院有别于中国、日本以及其他东亚地区寺院的特征之一。在整体性的阐释体系中，应着重介绍规划与建筑格局上的特色。

比如，在选址上，韩国书院一般选择远离大城市的山野地区，在山水之间参悟研习性理。这些书院坐落在山、河、溪、田之间，并与周边环境相得益彰。士林群体认为这种山野环境有助于心灵的升华。

而亭子则是士林群体认为能够有助于身心修习的空间，既能够观赏景致，也能够静心思考。亭子一般设置在书院入口处，帮助士人将风尘喧嚣隔离在研修场所之外。这种建筑格局，可以通过一些具体的展示手段加以阐述，能够非常直观帮助参观者理解书院的空间布局的智慧。

同时，在“历史演进”一节中也刚刚提到，书院的建筑格局是不断标准化的过程：祭祀、研修和交流都有各自的空间，沿中轴线纵向分布，从头至尾依次是祭祀、研修和交流空间，非常具有规则性。这种建筑选址和布局特点，在所有的书院中（除了绍修书院）都有共性，且可以通过可视化的手段加以表现。

上述三个价值特征的总结，是根据申遗文本中对于遗产价值的表述所进行的。应当说，书院世界文化遗产还包括很多丰富的价值特征。但是，作为一项整体性的阐释，必然要选取最具特色且可操作的方面进行凝练并加以总体展示，其思想-社会维度所映射的学术团体参与政治的价值导向，其时间维度表现出的书院体系的发展脉络，以及空间维度所体现的选址和建筑格局的标准化特点，是三个足以凸显书院突出普遍价值特色的角度。同时，对这三个维度的强调，也呼应了《ICOMOS文化遗产地阐释与展示宪章》中的第三条原则：文化遗产地的阐释与展示应与更广泛的社会、文化、历史和自然背景与背景环境相关。相信通过对这三个维度的整体性论述，参观者能够非常清晰把握书院宏大且有深度的历史内涵，也对九处遗产地的共性和个性有更为客观的理解。

（二）阐释和展示技术手段的建议

最后，让我们简单分析一下实现整体性阐释所需要的具体方法。我们从1) 展示馆、2) 媒体平台、3) 解说词三个方面进行阐述。

1、展示馆

目前，九处遗产地中有一部分拥有自己的专题展示馆，介绍各自的历史。建议选取其中一处遗产地（绍修书院或其他），建立（或在已有展示馆基础上改造）一个能够总体介绍韩国书院的场馆，总体阐释书院的价值。

建议在韩国首尔的国立博物馆中设立长期或临时的关于书院的主题展览，让更多游客能在最容易抵达的场所了解到书院的世界文化遗产价值。

除此之外，建议对现有的展示馆展陈介绍进行微调，专门布置介绍书院的整体性阐释板块，可为若干展板，也可设置专门的展厅。如此，可以让参观者无论进入九处书院中的任意一处，都能够总体了解到其他书院的情况。

另外，应完善标准化的遗产地标识系统，在视觉上做到一致。每一处展示馆都可以设置“护照打卡”（passport checkpoint），设计专门针对九处遗产地的护照本，一方面吸引参观者有兴趣游览更多书院，另一方面即使其不便参观，也能够获得更全面的信息。

2、媒体平台

首先，必须重新恢复<http://en.seowonheritage.org/> 网站，并推动其英语、中文、日语等其他语言的展示。

另外，建议在开发手机APP的同时，注意与现有社交平台相结合，注重与facebook、twitter、instagram、tripadvisor、triposo等已有社交/旅游新媒体平台设置专题板块，并以大量精美的图片提升其吸引力。

如有经费，可以九家书院进行三位数字化扫描和展示，尤其是其山水格局、院落布局、建筑结构等方面，并与中国日本等地书院进行比较，在媒体上刊载，增强读者对其空间特征的认识。

3、解说

在解说词上，建议增加关于书院作为世界文化遗产的整体性描述。同时应有差异化的设置，即针对不同类型的参观者设计不同的解说词，比如针对成年人和未成年人，针对普通游客和进行深入研修的参与者……等等。

再比如针对中国的游客，可以在描述书院山水格局的时候引用一些中国古诗词，加深游客的印象。如：达城郡的道东书院则面朝洛东江，门前有参天银杏，入口处的楼阁取名水月楼，一到夜间即有杜甫的“星垂平野阔，月涌大江流”的风景；屏山书院的环境格外疏朗开阔，在日暮时分，登上晚对楼，放眼望去，江水微漾泛起金波，对岸崖壁光影流离，也可以让人联想到杜甫诗“翠屏宜晚对，白谷会深游”的意境。

另外需要注意的是，屏山书院和玉山书院已经作为遗产构成，在2010年以“韩国历史村落：河回村和良洞村”名义列入《世界遗产名录》。因此，作为历史村落，和作为书院遗产，这两项世界遗产的价值阐述方向是有所区别的。应在整体性介绍书院时对此加以注意。

在导游或解说员的训练上，建议可以定期举行书院解说员的总体培训、比赛、研讨等活动，定期汇总游客反馈信息和研究能力提升计划。另外，也建议可以指定书院展示阐释的专门导则（guidelines），以引导解说词更突出书院的整体性。

六、小结

韩国书院的整体性阐释，应遵循《ICOMOS文化遗产地阐释与展示宪章》的原则，尤其是关于注重背景环境和文脉的原则，针对书院的最具特色且可操作的方面进行凝练并加以总体展示。

具体而言，整体性阐释体系的建议包括两个方面，一是针对价值特征的建议，二是针对具体方法的建议。在价值特征方面，建议从整体层面突出：1) 其思想-社会维度所映射的学术团体参与政治的价值导向，突出将学术教育与乡土朝鲜社会现实和政治参与相结合的特征；2) 其时间维度表现出的书院体系的发展脉络，通过构建一个具有清晰时间序列的叙事体系，全面表现书院体系丰富的历史发展过程；3) 其空间维度所体现的选址和建筑格局的标准化特点，突出研修空间、祭祀空间和交流空间的格局和书院功能的密切结合特征。

在技术手段上，建议从1) 展示馆、2) 媒体平台、3) 解说词三个方面进行提升，构建能够总体描述九处书院价值的展示场馆；在恢复网站服务的同时，与现有社交和旅游平台相结合；开展针对特定群体的解说。

中国大运河的整体性阐释展示策略，包括标准化的标识体系、博物馆和国家遗产线路体系、以及国家层面的定期活动，可以为韩国书院提供参考。

‘한국의 서원’의 통합적인 설명·해석·홍보

1. 통합적인 설명·해석의 원칙

세계 문화유산의 설명·해석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요구하는, 세계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문화유산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설명·해석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에 설명·해석은 “대중의 문화유산지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문화유산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쇄물과 전자출판물, 대중강좌, 현장 장치, 그리고 직접 관련된 현장 외부 장치,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설명·해석 과정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훈련·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었다. 또한 이 헌장은 문화유산 설명·해석의 7대 원칙을 열거하고 있다.

원칙1 : 접근성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원칙2 : 정보원(Information Sources)

원칙3 : 주변 환경과 맥락 중시(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원칙4 : 진정성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원칙5 :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Planning for Sustainability)

원칙6 : 포용성 중시(Concern for Inclusiveness)

원칙7 : 연구, 훈련 및 평가의 중요성(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의 통합적인 설명·해석은 이와 같은 7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유산구역이 서로 다른 지점에 분포하기 때문에 각각에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특히 이들 원칙 중 원칙3, 6, 7에 주목해야 한다.

원칙3의 요건: 문화유산지의 설명·해석은 광범위한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 배경,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명·해석은 유산지의 역사, 정치, 정신과 예술적 배경이 갖는 다층의 의미를 탐구해야 하며, 유산지의 문화·사회와 환경 등 각 방면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주변 경관, 자연 환경, 지리적 배경 환경은 유산지의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불가분의 부분이므로 마찬가지로 설명·해석에 고려해야 한다. 설명·해석은 유산지의 문화, 정신 전통, 이야기,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작품, 시각예술, 현지 풍습과 음식 유산 등 무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원칙6의 요건: 문화유산지의 설명·해석은 반드시 유산 전문가, 해당 지역사회 및 관련 공동체, 그밖에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학제적인 전문지식을 통합해 설명·해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자, 지역사회 구성원, 보호 전문가, 정부 당국, 유산지 관리자와 해설사, 관광 기획자, 그리고 기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유산지의 설명·해석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유산소유자, 지역사회 및 관련 공동체의 전통적인 권리와 책임, 이익을 강조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7의 요건: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는 문화유산지에 대한 설명·해석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구성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명·해석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또는 확충하는 방식에 따라 설명·해석 프로그램과 장비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설명·해석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이 유산지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부단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하며, 학술적 분석과 대중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관광객과 관련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유산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원칙7은 국제회의와 세미나 개최, 전문가의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역별 회의의 개최도 장려한다. 이는 다른 지역, 다른 문화의 다양한 설명·해석 방법과 경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7대 원칙을 따르는 전제 하에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원 탄생의 역사와 자연 지리적 배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가치의 설명·해석과 전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성을 갖춘 설명·해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9곳의 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토론을 강화해서 통합된 학술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2. 중국 대운하의 통합적인 설명·해석

‘한국의 서원’에 적합한 설명·해석 체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중국의 대형 연속유산인 대운하의 설명·해석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운하는 중국 동북부와 중동부 평원을 관통하는 거대한 내륙 수로 체계로, 중국의 8개 성·직할시를 관통해 흐른다. 북쪽에서 수도 베이징을 거쳐 텐진, 허베이, 산둥, 허난, 안후이, 장수를 거쳐 저장성에 이른다. 대운하는 기원전 5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건설돼 7세기(수나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국 통일의 수로교통 체계가 되었다. 그 뒤 일련의 거대한 공사로 산업혁명 이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은 토목공사가 되었다. 대운하는 여러 왕조를 걸쳐 건설, 유지되었고 13세기 (원나라)에 대운하는 발전의 최고봉에 달했다. 인공수로 2,000여 km를 포함한 통일 내륙 항로망이 형성돼 황하·장강 등 중국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강 유역을 연결했다. 대운하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내륙 교통수송 방식이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번영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운하는 2014년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중국은 2020년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전승 계획〉을 수립했고 보호, 관리, 설명·해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운하의 유산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그 중 두 장(章)은 대운하 유산의 설명·해석과 가치 전파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설명·해석의 수단에서는 대운하 문물과 무형문화유산의 표지·설명 체계의 구축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운하 문화유산의 표지·설명 체계는 보호관리의 요건과 관람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형식을 통일하고, 규범을 제정하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고, 적절한 규모를 정하고, 합리적 기능으로 관람객의 관람체험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문화유산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 설명 내용은 대운하 문화유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깊이가 있고 지식과 흥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현대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해서 현장 설명·해석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밖에 고고유적 공원 조성, 전문 박물관 체계의 구축, 국가유산 경로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박물관 체계에는 장수양저우(江苏省扬州市) 중국대운하박물관, 허난뤄양(河南省洛阳市)수당(隋唐) 대운하박물관, 산둥지닝(山东济宁)하도총독부(河道總督府) 유적박물관, 그리고 장수화이안(江苏淮安) 대운하 수공과기관(水工科技館), 저장닝보(浙江宁波)하해(河海) 박물관, 샤오싱저둥(绍兴浙東) 운하박물관, 허난 카이펑비엔허(河南开封汴河) 박물관이 포함됐다. 대운하 국가유산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고 대운하 역사도시, 현대도시, 향촌전원, 자연경관 등 구간별로 다른 환경 특성에 따라 문화가치의 설명·해석, 생태환경 보호체험, 경관관람을 결합했으며,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이 융합, 발전된 공공문화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홍보 활동 방안을 보면, 대운하에 관련된 포럼으로 양저우 세계운하도시포럼, 항저우 대운하국제포럼 등이 있다. 축제에는 중국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국제 기념물 유적의 날, 국제 박물관의 날, 세계 물의 날, 중국 물 주간과 중요 전통명절이 포함된다. 국가 차원에서 《분주한 대운하》그림책, 《대운하화전(大運河畫傳)》을 출간했다. 여력이 있는 지방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지역 특색이 있는 도서를 편찬한다. 《대운하의 이야기》 등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판을 나누어 출간했다.

대운하의 설명·해석 체계가 모두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며 대운하의 서로 다른 유역별 배경에 따라 중시한 것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운하의 노선은 베이징과 톈진(京津), 고대 연나라·조나라(燕赵), 고대 제나라·노나라(齐鲁), 황하 중하류(中原), 회허·양자강(淮扬), 고대 오나라·월나라(吴越) 문화구역을 통과하며, 이에 따라 구현된 대운하의 가치가 서로 다르므로 표현 방식에도 차이점이 있다.

3. ‘한국의 서원’의 가치 특징

1) 가치 특징

‘한국의 서원’은 조선왕조 시대(15~19세기)의 9곳 서원을 포함하는 하나의 연속유산이다. 유산은 중국의 신유가사상이 조선왕조에 전래된 이후 현지화 과정에서 생겨난 서원 문화 전통을 독특하게 증명한다. 유산 구성은 한국 중부 및 남부지역에 위치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곳의 서원을 포함한다. 이들 서원은 중국에서 온 신유가사상 학설을 한국에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등재기준(iii): ‘한국의 서원’의 교육실천과 사회활동은 한국 신유가사상의 문화적 전통을 독특하게 증거한다. 그 중 많은 교육 실천과 사회활동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다. 이들 서원은 중국에서 온 신유가사상과 한국 현지의 실체가 서로 적응하고 융합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서원은 기능과 계획, 건축 등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변형성과 현지화의 과정을 탁월하게 증거한다.

2) 중국과의 교류 특징

‘한국의 서원’은 고대 아시아 문명이 교류하고 상호 참조한 산물이며, 중국에서 기원한 유가문화가 아시아 문화권에 전파되어 발전하고 현지 문화와 융합하여 구현된 것이다. 이코모스 평가의 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중국에서 온 신유가사상이 한국 현지의 실체와 적응하고 융합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서원은 기능과 계획, 건축 등 여러 면에서 이러한 변형성과 현지화의 과정을 탁월하게 증거한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신유가 서원이 중국 서원의 계발과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며, 서원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전파되고 교류한 것을 증거한다.

루산(廬山)국립공원은 1996년에 등재기준 (ii), (iii), (iv)과 (vi)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장시성(江西省) 루산은 중화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다. 이곳의 불교와 도교 사원 그리고 유학의 기념비적 건축(가장 뛰어난 대사가 이곳에서 강론함)이 대단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완전히 융합되어 무수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들 예술가는 중국 문화에서 자연에 대한 심미적 방법을 개척했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은 중국 4대 서원 가운데 으뜸이며, “중국내(海內) 제일서원”이라고 불린다. 장시성 지우장시(九江市) 루산 우라오봉(五老峰)의 남쪽에 있다. 세계유산 루산국립공원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백록동서원은 남당(南唐)의 승원(昇元)연간(940년)에 건립된, 중국 최초의 완전한 서원이다. 그것의 운영 방식은 후대에 본보기가 됐다.

해외의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대에 전해졌다. 한국 유가서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영주 소수서원은 대 유학자인 이황(1501~1570)이 1543년에 창건했다. 처음 이름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었는데, 명칭이 백록동서원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2010년, 백록동서원과 한국 소수서원은 우호관계를 맺었다. 한국 소수서원에서 백록동서원을 방문할 때 공자와 주자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4. 서원 설명·해석의 현황 분석

현장에서 조사 연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원 설명·해석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내용에 근거했다. 신청서에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9곳 유산지에 대해 통합 설명·해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 번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통합보존관리단은 영문 홍보책자를 만들어 9곳 유산지를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통합 소개했다. 동시에, 일부 유산지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도왔으며, 관광객들을 위해서 통합적인 공공교통, 숙박, 관광지안내 책자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통합보존관리단은 앱을 만들어 해당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은 관람 안내와 여러 언어 해설을 통해 유산지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정보가 이미 실현됐는지 여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9곳 유산지 정보를 통합한 홈페이지 <http://en.seowonheritage.org/>은 현재 기한이 만료되었다고 나와 있어 속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전개한 활동들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기술되었는데, 서원은 계속 강학, 제향, 교류의 전통적 가치를 이어가는 데 진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예절행사를 열뿐 아니라 좀더 현대적인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관람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참여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20~30대 연령층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환경보호, 정치, 교육 등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 활동은 현지의 특색 유지를 바탕으로 하나의 연속유산으로서 서원의 통합적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코모스의 평가의견서에 9곳 유산지의 통합적인 설명·해석에 대한 권고가 제시되었다. 현재의 관광객 관리와 설명·해석 체계는 수요를 만족시킨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연속 유산에 부합하는 일련의 통합적인 설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해석 전략 제안

다음으로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해석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한국의 서원’의 가치요소 중 통합 설명·해석에 적합한 측면을 추출하고 설명한다. 둘째는 구체적인 설명·해석의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1) 가치요소 특징의 통합 설명·해석 제안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하나의 통합적 설명·해석 체계가 각 유산지의 개별적인 특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역사과정에서 9곳 서원은 각자의 특색을 형성했다. 이러한 특색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기존의 설명·해석 체계를 통해 가치가 전파되고 있는데, 그러한 특색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은 일련의 공유하는 설명·해석 방식을 만들고 모든 서원의 공통적인 특질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특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어가 포함된다. 가치관, 역사 서열, 경관 배치. 이 세 개의 핵심어는 각각 사상·사회 차원, 시간 차원, 공간 차원 등 세계유산 가치의 세 개 차원에 관련된다. 모든 서원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공통성이 매우 크다.

① 가치관

여기서 핵심 집단은 사림이다. 사림파는 조선왕조의 중요한 정치 파벌로, 훈구파와 대립한 정치세력이다. 정치 파벌로서 사림파의 학술적 주장은 이상정치의 성리(性理)를 추구하고 유교정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재야 출신인 이들 집단은 예의를 매우 중시했으며, 향촌사회에 서원을 건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고 그 뒤의 조선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서원’은 조선왕조의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가사상을 결합해 형성된, 정치적 요구와 사회조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유산이다. 서원의 가치에 대한 설명·해석을 위해서는 그것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원은 특정한 시기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간학자들이 창조한, 지식을 전파하고 중요한 전통 가치를 전승하는 장소이다. 중국 신유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현지화 과정을 거쳐 서원은 강학·제향·교류 등 3대 주제의 공공(公共)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향토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도덕적 요구와 정치 이념을 지키면서 조선왕조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원은 한반도에서 상당히 전형적인 초기의 ‘공공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식인의 사고와 상호교류, 공론 형성,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원에 대한 통합적 설명·해석은 서원이 역사적으로 전파한 지식과 이념의 내용을 설명·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술교육과 향토 조선사회의 현실, 정치참여를 결합하려 한 노력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은 선명한 시대 특징과 조선 문화 특질을 갖춘 활동이다. 학술 이념은 정치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참여의 뚜렷한 구현이다. 이것에 내포된 가치관은 귀중한 것이다.

② 역사적 발전과정

대중의 인지 틀을 생각할 때, 시간적 단서는 가장 쉽게 이해되며 그것으로 대중을 유산의 서사체계 차원으로 가장 쉽게 이끌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9곳 유산지를 포함하는데, 건립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 시계열을 이루는 서로 다른 시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서원 중에서 가장 일찍 건립된 소수서원(1542)은 중국의 백록동서원을 이어받았다. 다음으로 남계서원(1561), 도산서원(1570), 옥산서원(1572), 필암서원(1590), 도동서원(1605), 병산서원(1613), 무성서원(1630), 돈암서원(1632)의 순이다.

이들 서원은 시간 서열에서 각기 서원 체계 발전의 중요한 사건들의 결절점을 이룬다. 소수서원은 모든 서원의 시작이다. 남계서원은 전적으로 사림집단이 건립을 지지한 최초의 서원이다. 옥산서원은 사림서원 학술체계가 이루어진 표지이다. 도산서원은 사림 학술을 전승한 증거이다. 위에서 기술한 서원은 시대가 이르며, 이들 서원에서 사림 집단이 서원 건설에 영향력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뒤 1590년의 필암서원부터 서원은 사회적 의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필암서원은 서원 관리와 재정 운영 체제를 대표한다. 도동서원은 강학 규범을 증거한다. 병산서원은 사림의 공공사상이 사회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표지이다. 무성서원은 서원의 현지 사회에 대한 교화를 대표한다. 돈암서원은 예학의 성취를 상징한다.

이들 서원이 놓인 서로 다른 시기, 9곳 서원이 함께 서원체계의 부단한 발전을 증거하는 시간적 맥락은 서원의 배치와 건축유형이 점차 표준화되는 특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요컨대 명확한 시간 서열을 갖춘 서사 체계의 구축에 통해 각각의 서원이 갖는 독특성을 통합 설명·해석 체계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서원 체계의 풍부한 역사적 발전과정도 전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계획과 건축배치

일부 서원(최초의 소수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은 강학공간, 제향공간, 교류공간을 나누어 배치하는, 비교적 표준화된 배치를 갖추고 있다. 이런 공간 배치와 서원 기능의 밀접한 결합은 ‘한국의 서원’이 중국, 일본, 그리고 기타 동아시아 지역의 서원과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이다. 통합적인 설명·해석 체계에서는 계획과 건축 배치의 특색을 중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지 선정에서 ‘한국의 서원’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 지역을 선택하며, 자연 속에서 성리를 사색하고 연구한다. 이들 서원은 산·하천·계곡·밭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사림 집단은 이런 자연환경이 마음의 승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사림 집단은 정자(누)가 심신수련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풍치를 관상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자는 보통 서원의 입구 쪽에 설치되어 선비들이 속세의 소란함을 수행장소의 밖에 격리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

한 건축배치를 일련의 구체적인 설명 수단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참관자들이 서원 공간 배치의 지혜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한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서원의 건축배치는 끊임없이 표준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제향과 강학, 교류는 모두 각각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 중축선을 따라 제향, 강학, 교류공간의 순서로 배치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축 입지와 배치의 특징은 (소수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의 공통점이다. 이는 가시화 수단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세 가지 가치의 특징에 대한 총괄은 등재신청서의 유산 가치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진행한 것이다. 서원 세계 문화유산은 매우 풍부한 가치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적인 설명·해석에 맞게 가장 특색 있고 활용성(적용성) 있는 측면을 선택해 전체적인 설명을 간결하게 진행해야 한다. 학술단체가 정치에 참여한 가치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사회 차원, 서원 체계의 발전 맥락을 표출한 시간 차원, 그리고 입지 선정과 건축배치의 표준화된 특성을 구현한 공간차원, 이 세 가지는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갖는 특색의 관점을 충분히 부각시킨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원칙³, 곧 문화유산지의 설명·해석은 좀더 넓은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 배경과 주변 환경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된다. 이 세 가지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를 통해 참관자들이 서원의 웅대하고 깊이 있는 역사적 함의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9곳 유산지의 공통성과 개별성을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설명·해석과 전시 기술 방법의 건의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설명·해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분석한다. ① 전시관, ② 미디어 플랫폼, ③ 안내문 등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① 전시관

현재 9곳 유산지 중에 일부는 전문 전시관이 있어서 각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한 유산지(소수서원 혹은 다른 곳)를 선택해서 ‘한국의 서원’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서원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설명·해석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기존 전시관을 개조)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장기적 또는 한시적으로 서원 주제에 관해 전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서 서원의 세계 문화유산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기존 전시관의 전시 안내를 다소 조정하고, 서원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석한 전

시판을 설치하거나 전문 전시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참관자들이 9곳 서원 중 어디에 가든지 다른 서원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준화된 유산지 표지 체계(signage system)를 완비해서 시각적인 안내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9곳 서원의 전시관마다 관람권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관람권 체크포인트(passport checkpoint)’를 설치하고 9곳 유산지에 대한 전용 관람권을 설계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한편으로 참관자가 더 많은 서원을 흥미롭게 관람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관자들이 모든 서원을 참관하지 못하더라도 관람권에 다른 서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좀더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 미디어 플랫폼

우선 <http://en.seowonheritage.org/> 사이트를 다시 복구해야 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른 언어의 설명을 추진해야 한다.

그밖에 핸드폰 앱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재의 SNS와 결합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며, facebook, twitter, instagram, tripadvisor, triposo 등 기존 사교/여행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문적인 섹션을 설치하고 많은 아름다운 이미지로 흡인력을 높인다.

예산이 있으면 9곳 서원이 3D 디지털 스캐닝과 전시를 진행하고, 특히 자연환경, 건축 배치, 건축구조 등을 중국, 일본 등지의 서원과 비교하며, 매체에 간행물을 게재해서 독자들이 그 공간 특징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한다.

③ 해설

안내문에 대해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서원에 대한 통합적 기술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차별화된 안내문 설치가 필요하다. 곧, 서로 다른 유형의 참관자, 예를 들어 성인과 미성년자, 일반 관광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참여자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안내문을 설계해야 한다.

다시 예를 들어 중국의 관광객에 대해서 서원의 자연환경을 기술할 때 중국의 옛 시를 인용하면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예로, 달성군의 도동서원은 낙동강을 면하고 있는데, 문 앞에는 하늘 높이 솟은 은행나무가 있고, 입구 누각은 수월루라고 부른다. 밤에는 두보(杜甫)의 “星垂平野闊, 月涌大江流(별은 드넓은 들판에 드리워 있고, 달이 솟아오른 큰 강물이 흐른다.)”와 같은 풍경을 바로 볼 수 있다. 병산서원의 환경은 유난히 탁 트여 있어 해질 때 만대루에 올라 바라보면 강물이 출렁여 금빛 물결이 인다. 맞은편 절벽이 빛나고 있으니 두보의 시 “翠屏宜晚对, 白谷会深游(푸른 절벽은 늦을 녀에 마주 대할 만하고, 흰 바위 골짜기는 여럿이 모여 그윽이 즐기기에 좋구나.)”의 경지를 연상시킨다.

그밖에 주의할 것은,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은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는 점이다. 역사마을의 한 요소로서

그리고 서원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서술하는 방향은 다소 다를 것이다. 서원을 통합적으로 소개할 때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안내자나 해설사의 훈련에 대해서는, 서원 해설사의 종합적인 훈련, 경연대회, 세미나 등의 활동, 정기적인 관광객의 피드백 정보 수집, 연구 능력 향상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밖에 서원의 설명·해석 전문 지침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좀더 서원의 통합성을 부각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6. 결론

‘한국의 서원’의 통합적인 설명·해석은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히 주변 환경과 맥락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서원의 가장 특색 있고 활용(적용) 가능한 측면에 대해 집약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인 설명·해석 체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치의 특징에 대한 제안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이다. 가치의 특징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층위를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1) 사상·사회 차원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사림)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학술교육과 조선 향토사회의 현실과 정치 참여를 결합한 특징을 강조한다. 2) 시간 차원에서는 서원 체계의 발전 맥락을 표현한다. 명확한 시계열적 서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서원 체계의 풍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전면적으로 표현한다. 3) 공간 차원에서는 입지 선정과 건물배치의 표준화 특징을 구현하고,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교류공간의 배치와 서원의 기능을 긴밀하게 결합한 특징을 강조한다.

기술적인 수단에 관해서는 ① 전시관, ② 미디어 플랫폼, ③ 안내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킨다. 9곳의 서원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전시관을 만들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복구하며, 사회적 교류와 관광 플랫폼과 결합한다. 그리고 특정 단체에 대해 해설을 진행한다.

중국 대운하의 통합적인 설명·해석·홍보 전략은 표준화된 사인 체계, 박물관과 국가유산 경로 체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서원’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한필원)



Integrated Presentation, Interpretation and Promotion of Seowon

Haiming Yan

Contents

- 1, ICOMOS Charter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2, Analysis of Seowon's current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3, Suggestions on Seowon's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for contents
 - for methods
- 4, Introduction of the promotion strategy of China's Grand Canal

1, ICOMOS Charter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6 principles
 - Access and Understanding
 - Information Sources
 - 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 Preservation of Authenticity
 - Planning for Sustainability
 - Concern for Inclusiveness
 - 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elaboration of principle 3

-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should relate to their **wider social, cultural, historical, and natural contexts and settings**
- Interpretation should explore the significance of a site in its multi-faceted historical, political, spiritual, and artistic contexts. It should consider all aspects of the site's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significance and values.
- The public interpretation of a cultural heritage site should **clearly distinguish and date the successive phases and influences in its evolution**. The contributions of all periods to the significance of a site should be respected.
- The **surrounding landscape, natural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setting** are integral parts of a site's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nd, as such, should be considered in its interpre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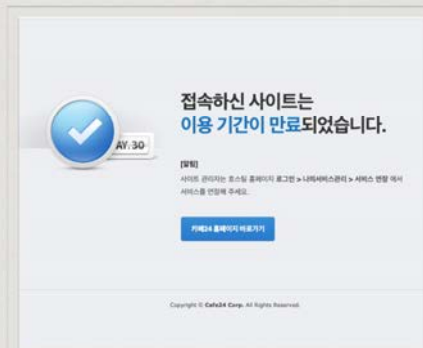
2, Seowon's current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ICOMOS evaluation:
 - Visitor facilities at Seowon generally include an information centre and car parking, and in some cases an exhibition centre. Most seowon have their own trained guides and interpretive materials are available. Improvements to visitor interpretation are planned, including a better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nominated property.
 - Current visitor management arrangements are satisfactory although a better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is needed.

- addressed by nomination dossier
 - Seowon Foundation will make efforts to build close relations between its current integrated webpage and dedicated pages for each academy. Comprehensive brochure will be prepared for providing inform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lodging facilities, and tourist attractions nearby areas.
 - The CHA has recently developed an online interpretation platform offering free and immediate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nominated property. By downloading an application to a smart phone or other mobile device, visitors can enjoy a guided tour using navigation technology and voice interpretation in foreign languages, as well as information, photographs, and video footage on the nominated property.

some concerns of current interpretation

- integrated webpage expired:
<http://en.seowonheritage.org/>
- effects of current brochure need to be evaluated
- impacts of COVID on tourism need to be monitored



3, suggestions for Seowon

- contents
- methods



for contents

- basic principle:
 - integrated interpretation does not mean being identical
 - principle 3 of ICOMOS Charter: **contexts and settings**

- three aspects
 - utmost value system: Sarim, place and scholarship for politics
 - temporality: chronology and role of each component
 - space: planning, architecture and public space

aspect 1: value system

- Seowon is a heritage representing a linkage between Confucian scholarship and political pursuit, with special institutional arrangement. It is the holistic context that should be underscored in integrated interpretation.



- Seowon is a kind of place for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particular values, carried out by civic schola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nation and the society.
- An example of early “public sphere,” reflecting critical thinking and interaction between intellectuals, generating public opinion and influences.

- integrated interpretation shall not only present the knowledge and contents promoted by the Seowon, but more importantly **the efforts in synchronizing academic thoughts, social realit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 This is largely a character of Korean culture, different from other counterparts in East Asian history.

aspect 2: temporality

- in public recognitive framework, timeline is an easy reference to grasp the heritage meanings
- the 9 seowons, though built in different years, could be seen as **entangled nodes in a coherent time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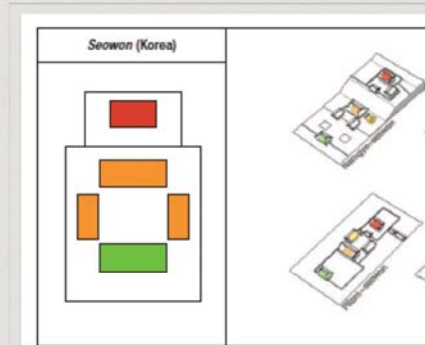


- Sosu-seowon (1542), protocol, the first example in Korea;
- Namgye-seowon (1561), establishment, the first to be established purely through the support of sarim;
- Oksan-seowon (1570), publication, a demonstration of seowon curricula and housing literary works and document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seowon institutions;
- Dosan-seowon (1572), academic lineage, developed as the center of a scholastic genealogy;
- Piram-seowon (1590), management, providing reference to financial aspect of seowon;
- Dodong-seowon (1605), education method, a demonstration of the systemization of education through its detailed regulations;
- Byeongsan-seowon (1613), social activities, the birthplace of sarim's public opinion outreach;
- Museong-seowon (1630), edification, a center for the edification of the local community;
- Donam-seowon (1632), yehak (礼学) , an illustration of how seowon expanded from political and social arenas into a major research center for Neo-Confucianism by dedicated to yehak, or the study of propriety.

- the evolution of Seowon in a clearly represented chronology
- standardization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 a clear narrative for each seowon and for the integrity of the property

aspect 3: space

- standardized layout of learning, veneration, interaction
- the Korean creation of Confucian tradition in knowledge transmission institutes
- different from China and Japan



- plann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nominated property is evident in **division into veneration, learning and interaction areas along a central axis**. Except for Sosu-seowon, the first to be built, most seowon were designed along a central axis with vertically arranged areas of veneration, learning, interaction from top to bottom.
- site selection: most components of the nominated property were built amid scenery that offers views of mountains, rivers, creeks, or fields harmonized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is because the venerated scholars generally opted for **a naturally inspiring place for studying and the cultivation of mind and body**.
- pavilion: a place for meditation and view seeing



- rich features of Seowon, but need to select **the most representative** and workable ones to develop the integrated interpretation
- **academic-social dimension**: value transmission of scholarship
- **temporal dimension**: evolution of Seowon as particular type of Confucian institute
- **spatial dimension**: site selection, architectural and planning layout features
- comply with ICOMOS Charter's principle 3: setting and context
- help the public better understand both comm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methods

- exhibition center
- media platform
- interpretation narratives



exhibition center

- a general **exhibition center** (in one Seowon)
- a **permanent exhibition** of Seowon in a national museum in Seoul
- a slight modification of current exhibition, to add **one particular and integrated section of Seowon**
- standardized **visual marks, passport checkpoints, etc.**



media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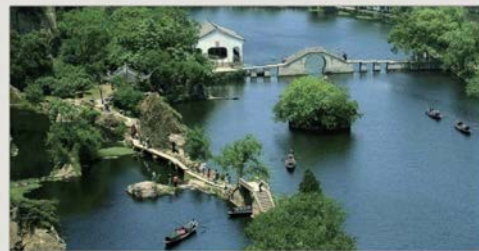
- restart <http://en.seowonheritage.org/>
- incorporation with current social platforms: facebook, twitter, instagram, tripadvisor, tripso
- 3D scanning and digitization and presentation, especially the mountain-river layout, architectural and floor planning

interpretation narratives

- introduction with holistic description of Seowon as World Heritage
- **differentiation** for different groups of visitors
- be aware of the World Heritage status of Piram and Oksan seowons as part of another inscription. the interpretation approaches should have different focus
- periodic training, contest, seminar for tour guides

4, introduction of China's Grand Canal

- 2014: World Heritage inscription
- 2020: **General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Inheritance of the Grand Canal Heritage**: two chapters focus on interpretation and transimition of values
- standardization of logo and markers, increase accecibility and quality of visit , harmonization with surrounding settings
- presentation should focus on the OUV: accuracy, in-depth, combination between knowledge and entertaining, with modern techniques



archaeological
heritage park



museum series



national heritage pathways



- forums
- textbooks
- publications



《大运河的故事》小学版



《大运河的故事》中学版



conclusions

- comply with ICOMOS Charter
- integrated interpretation
 - academic-social dimension: value transmission of scholarship
 - temporal dimension: evolution of Seowon as particular type of Confucian institute
 - spatial dimension: site selection, architectural and planning layout features

THANKS!

토론 Discussion

배지연_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무관

Bae Jeeyeon_ Seoul Metropolitan City



안 하이밍 박사님의 “한국의 서원”의 통합적인 설명·해석·홍보’에 대한 발표는 지난 2019년 한국의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유산의 온라인 매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석·설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한국의 서원’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에서 열거한 7대 원칙 중 원칙3(주변 환경과 맥락 중시), 원칙6(포용성 중시) 및 원칙7(연구, 훈련 및 평가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해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개의 원칙은 9개 서원이 지닌 탁월한 자연 친화적 경관과 서원의 기능(제향, 강학, 사회교육)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연속유산인 대운하 문화유산의 통합적인 표지·설명 체계와 다양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연속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속유산 속 각각의 개별 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유지하되 9개 서원의 공통적인 특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발표자께서는 9개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대중에게 전달할 때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요소(가치관, 역사적 발전과정, 계획과 건축 배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가치 요소를 기술적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발표내용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은 설립 당시(1543년)의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의 주도하에 지역 사림과 함께 창건하였습니다. 그 후로 7년 뒤인 1548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2년 뒤인 1550년(명종 5년)에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어필 현판과 서적을 하사받고 서원 운영에 필요한 노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퇴계 이황의 요청에 따라 백운동서원이 최초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액서원이 되었기 때문에 발표자께서 발표문에 소수서원을 퇴계 이황이 창건한 것으로 오기하신 듯 합니

다. 두 번째, 발표자께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는 기한이 만료되어 복구가 속히 필요하다고 하셨으나,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의 서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http://en.k-seowon.or.kr/?act=mai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들은 9개 서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방문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훌륭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발표자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가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대중에게 정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발표자께서도 추후에 해당 홈페이지를 반드시 방문해 보시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회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적인 설명·해석을 실현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의 국립박물관에 장기적 또는 한시적으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전시를 기획, 그리고 서원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한 전시관을 건립하거나 기존 전시관을 개조하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제안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소수서원에는 지난 2004년 영주시에서 16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소수박물관이 있어,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소수박물관은 5개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전시실은 소수박물관의 소재지인 영주시의 역사, 유교와 관련된 유물 및 유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소개, 소수서원이 사액서원이 되는 과정, 공립교육 기관인 향교와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의 차이, 소수서원에서 보관하던 각종 유물 등에 대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 전시실에는 9개의 서원에 대한 위치와 각각의 서원이 주향하고 있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왜 한국의 수많은 서원 중에서 9개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 공통으로 지닌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할 수 있다면 관람객들의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전시실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9개의 서원을 한곳씩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한다면, 관람객들에게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8개 서원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설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관람객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의 다른 문화권에서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안내할 경우, 해설자는 해당 관람객들의 문화권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대상에 맞는 안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해설자와 관람객, 그리고 유적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안 하오밍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유적지 현장에서의 해설사의 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해설사 주도의 안내는 관람객이 유산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산의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안내 표지판으로 충분하며,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람객 스스로 유산에 대한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박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박사님께서도 해설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일부 문화유적지에서 도입한 인공지능형(AI) 로봇 해설사가 인간 해설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있어, 문화유적지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의 참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원칙6과 원칙7에 따르면, 유산 전문가, 지역공동체의 참여 등 주민과 이해당사자, 관람객 및 그 외 유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연속유산인 대운하의 경우, 관람객을 대운하의 통합적인 설명과 해석을 구축하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향후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 통합적인 설명·해석·홍보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3 Presentation 3

「書院」のよりよい保存と活用のために
‘한국의 서원’의 좀 더 나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가리야 유가_ 일본 이코모스 부위원장
Kariya Yuga_ Vice President, ICOMOS Japan

要旨

2018年に模擬現地調査として世界文化遺産登録候補「韓国の書院」の9つの書院すべてを視察する機会を得た。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申請書類及び視察中の質疑応答、報告会での討論等を通じて、私は登録候補資産の価値はもとより、その保護措置や皆さんの保存活動等を知ることができた。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その折りの情報を中心に、書院のよりよい保存と活用のありかたについてまとめた。

まず、韓国の文化財保護制度、とりわけ文化遺産保護法に国指定文化財の周囲にバッファゾーンを越える広域の歴史文化環境保存地域の指定や、世界遺産の保護についての優れた規定があることに注目した。

次に書院群について、歴史的建造物の修理・復元のあり方、また構成資産の内外及びバッファゾーン内における博物館・展示施設、研修教育施設等の大型の既存の施設、近年の整備について触れた。歴史的建造物については、修理の手法や既存部材の扱い方等について言及した。また大型施設については、書院の現代的活用や文化遺産としての価値の理解の増進に必要なものであろうが、その位置・規模・形態等は、構成資産の価値になんらかの影響を与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を示した。

なお、世界文化遺産「韓国の書院」の構成資産である屏山書院と玉山書院が同じく世界文化遺産の「韓国の歴史村：河回と良洞」の構成資産ともなっている。この2つの世界文化遺産のより総合的・有機的な保護が期待される。

In 2018,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all nine components of the "Korean Seowon", nominated property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as a Preparatory On-site mission. Through the application document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the question-and-answer session, and the discussion during the mission with you, I was able to learn not only about the value of the nominated properties, but also about their protection measures and your conservation activities. In this symposium, I would like to summarize how the Seowon can be better preserved and utilized, focusing on the information I learned.

First, I focused on Korea's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Korea has excellent provisions on the designation of wide-area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beyond Buffer Zone around State-designated Heritage, and on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Next, regarding the Seowon, I touched on the state of repair and restoration of historical buildings, as well as large existing facilities such as museums, exhibition facilities, training, and education facilities inside and outside the Nominated properties

and within the Buffer Zone, and their recent development. For historical buildings, I mentioned repair methods and how to handle existing old materials. As for the large facilities, they may be necessary for the modern use of the Seowon and to promote understanding of its value as a cultural heritage, but I have concern that their location, scale, form, etc. may have some impact on the value of the Nominated properties.

In addition, the Byeongsan-seowon and Oksan-seowon, which are components of the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Seowon of Korea," are also components of the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It is hoped that these two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will be more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protected.

초록

2018년 모의 현지조사로 세계유산 등재 후보 ‘한국의 서원’의 9곳 서원을 모두 시찰할 기회를 얻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류와 시찰 중 질의응답, 보고회의 토론 등을 통해 필자는 등재후보 자산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보호조치와 여러 분의 보존활동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 때의 정보를 중심으로 서원의 좀더 좋은 보존과 활용의 방식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선 한국의 문화재 보호제도,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버퍼존을 넘는 광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과 세계유산 보호에 대한 뛰어난 규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서원군에 대해서 역사적 건조물의 수리·복원(復元) 방식, 또한 구성자산의 안팎과 버퍼존 안의 박물관·전시시설, 연수교육시설 등 기존의 대형 시설, 최근의 정비에 대해 다루었다. 역사적 건조물에 대해서는 수리의 수법과 기존 부재의 취급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이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위치, 규모, 형태 등은 구성자산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구성자산인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이 마찬가지로 세계유산인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구성자산이기도 하다. 이 두 세계유산의 좀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보호가 기대된다.

「書院」のよりよい保存と活用のために

(1) 日本ICOMOSの荻谷勇雅（かりやゆうが）と申します。本日は「書院」のよりよい保存と活用のためにと題して発表します。

左下の写真は2018年5月28日の屏山書院の現地調査時の記念写真です。右図は文化財保護の各境界線と景観要素、遺産保護の法的システムの関係図です。

・ My name is Yuga Kariya from ICOMOS Japan. Today, I will give a presentation titled " For Better Preservation and Integrated Use of Seowon "

・ The photo on the lower left is a commemorative photo taken during the field survey of the Byeongsan-seowon on May 28, 2018. The diagram on the right shows the Relationship among Boundaries, Landscape Elements, Legal Protection of the Property in Korea. I will show you this diagram, again.

(2) はじめに

私は2018年5月に模擬現地調査として韓国の世界遺産候補の9つの書院を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折りに多くの方々にたいへんにお世話にな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調査時の現地での質疑、最終の総括討論などにおいて、細かいところまでやや厳しく問題点を指摘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これは決して皆さんの保存への努力を批判的にとらえたのではなく、書院群の文化遺産のよりよき保存をめざす、一専門家として、またICOMOSの仲間として申し上げたものです。

その後、書院群は2019年に正式に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残念ながら私はその後書院群を再訪する機会はなく、今回の私の発表はほとんど、2018年時点の見聞を基にしたものです。そのため、すでに時点修正を行う必要が多々あると思いますが、討論の参考を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なお、今年の2月20日に日本と韓国ICOMOSの両国内委員会が共催で韓日文化遺産防災シンポジウムをオンラインで開催し、韓国イコモスの皆さんのいろいろ御協力をいただき、たいへ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特に書院保存管理財団の朴珍載氏には、書院群の風水害の現状と対策を発表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3) Introduction

・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nin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s the preparatory mission in May 2018.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ny people who took care of me during that time. I remember that in the summary discussion of the survey and the subsequent report, I was quite strict in pointing out problems in detail. The report was not intended to criticize your great efforts of preservation, but rather as the report from one expert and fellow of ICOMOS member aiming for the better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 ・ The nine Seowon were then officially registered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in 2019. Congratulations to all!

- ・ Unfortunately, I have not had a chance to visit the Seowon again, and most of this presentation is based on my observations as of 2018. I hope you will find this report helpful in your discussions, although I am sure there are many revisions that need to be made.

- ・ In addition, the Korea-Japan Symposium on Cultural Heritage Disaster Mitigation was held online on February 20 of this year, co-hosted by the Japanese and Korean ICOMOS National Committees,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ICOMOS members.

- ・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Mr. Park In Jae from the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for his present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wind and flood damage to Seowon complexes and countermeasures.

(4) 韓国における文化財保護の各境界線と景観要素、遺産保護の法的システムの関係図

- ・ この図は、ICOMOS からの要請に応じて韓国が2019年2月に提出した報告書から引用したものです。

- ・ この図の赤線で囲われた部分は国指定史跡であり、構成資産である領域を示し、その周りの緑線はバッファゾーンを示す。その外側を囲む形で、国指定史跡から最大500mの範囲で歴史文化環境保存地域を設定している。この歴史文化環境保存地域はバッファゾーンを包含し、かつ構成資産からの可視範囲を十分越えている。

- ・ このような、国指定文化財の周囲に歴史文化環境保存地域を指定し、しかもバッファゾーンより広範囲に指定するという韓国の文化財保護制度は非常に優れている。

- ・ また、韓国の文化遺産保護法に世界遺産の登録とその保護が規定されていることにも注目したい。

- ・ 日本の文化財保護法には、残念ながら世界遺産保護についても、バッファゾーンについての規定もない。

- ・ そのため日本の世界遺産の周辺の保護は、国の法律ではなく、自治体の条例による景観施策、環境施策によって対応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バッファゾーンの保護には十分な効果が無く、京都など各地で保護と開発をめぐり、様々な軋轢が生じている。

- ・ This is the Diagram of the relationship among boundaries of cultural property, landscape elements, and the legal system for heritage protection in Korea.
- ・ This diagram is quoted from a report submitted by South Korea in February 2019 in response to a request from ICOMOS.
- ・ In this diagram, the area surrounded by red lines is the Historic Site, the State-designated Property, and nominated property. The green line around the red line indicates the buffer zone. Surrounding the outside of the buffer zon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has been established within a maximum distance of 500m from the State-designated Historic Site. This area encompasses the buffer zone and is well beyond the visible range from the Nominated Property.
- ・ In this way, Korea'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which designates area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round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also designates a wider area than the buffer zone, is very good.
- ・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tipulates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and their protection.
- ・ Unfortunately, Japan's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has no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or buffer zones.
- ・ Therefore, the protection of areas around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in Japan is not governed by national laws, but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s on landscape and environmental policies. So, the protection of buffer zones is not sufficiently effective, and various conflicts have arisen in Kyoto and other places over protection and development.

(5) 韓国の文化遺産保護法における法的保護システムについて

韓国の文化遺産保護法における法的保護システムの中で、文化遺産関連の指定について確認しましょう。この表は、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申請書から引用したものです。

第23条から第26条では国指定について規定しています。文化財庁による重要建造物、史跡、美術品、無形文化財などの国指定です。

第70条から74条は地方自治体による文化遺産材料の登録、文化遺産の地方審議会の設置、費用負担、報告に関する規定などです。

第27条及び法施行令第13条～第15条は、国指定文化財の保存において特に必要な場合の保存施設や保存地区の指定を規定しています。

第13条は地方自治体の条例により国指定文化財の周辺に歴史文化環境保存地区の指定を義務づけるものです。

第19条は、世界遺産等やその歴史的文化的環境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のある行為を行うものに対して、その保護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命ずることができるとの規定で

す。

なお、率直に言わせてもらおうと、私は国指定史跡と第27条の保護地区の違いが実はわかっていません。

The Legal Protection System in Korea'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t's check the cultural heritage-related designations system in Korea'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is table is taken from the application material o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Articles 23 to 26 provide for state designation. These are the provisions of state designation of important buildings, historical sites and monuments, artifact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etc. by the Cultural Property Agency.

Articles 70 to 74 include provisions on the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materials by local governments,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s for cultural heritage, the bearing of expenses, and reporting.

Article 27 and Articles 13 to 15 of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Law provide for the designation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protection zone when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rticle 13 obliges local governments to designate area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the vicinity of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through local ordinances.

Article 19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 may order any person who engages in activities that may affect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or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ir protection.

Frankly speaking, I actually do not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e-designated historic site, and the protection zone under Article 27.

(6) **構成資産**とバッファゾーンなど、遺産指定の重複関係の図示を試みてみました。必ずしも自信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赤丸は世界遺産の構成資産で、この中に国指定の史跡や有形文化財が含まれます。濃い青色ゾーンで示される国史跡は時に構成資産の外側に広がっていることもあるようです。

その外側に濃い青色の太い枠線で囲われた保護地区が必要に応じて設定されます。

これらの周りにバッファゾーンが設定されています。ドシエではバッファゾーンの境界は構成資産の周りの山や川、平地、集落や農地、その他の保護地区を含んで設定されているとしています。

そして、さらにその措置に歴史文化環境保存地区が設定されています。国指定文化財か

ら最大500mの広域に及ぶ保存地区は、バッファゾーンを包含する形になっています。

I have tried to draw the overlapping relationships among the nominated property, the buffer zones, and other heritage designation areas. I am not necessarily confident about this drawing.

Red circle shows nominated property of World Heritage, which includes State-designated historic sites an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State-designated Historic Site, indicated by the dark blue zone, sometimes seems to extend outside the nominated property.

The Protection Zone, surrounded by a thick dark blue border, are established outside of these zones as needed.

The Buffer zone is established around these. According to the Dossier, the boundaries of the buffer zone are defined to include mountains, rivers, plains, settlements, farmlands, and other protected areas around the nominated property.

In additi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 is established in the measure. The conservation area, which covers a wide area of up to 500 meters from the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encompasses a buffer zone.

(7) 各書院の個別課題について検討してみました。最初に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2018年の現地調査の時に気づいたことを中心に書いています。決して批判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また日本ではうまく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全くなく、同様の共通の課題があると思います。また、すでに解決して課題も多いと思います。

《1》 Sosu-seowon 紹修書院

・中央より左は修理の際の古材の扱いです。左上のDormitoryでは脇に古材が露出展示されていますが、腐朽が進むおそれがあり、屋内の適切な場所に格納し、展示した方がよいとおもいます。左下のPavilionは修理によって垂木がほとんど取り替えられている。古材をある程度再用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右は、構成資産に隣接するソンビチョンです。この施設は書院に隣接し、緩衝地帯にあります。大規模な教育と体験の場所として造られていますが、その建物復元の厳密性に違和感があります。

(8) 《2》 Namgye-seowon 濫溪書院の1

この建物の修理は、柱の脚部の取り替え等の修理がなされたが、ほぞ穴などその他の部分で一部に不完全な部分があります。

Repairs to this building have been made,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the column legs, but there are some imperfections in other parts such as mortise holes.

(9) 《2》 Namgye-seowon 濫溪書院の2

左は新しい建物で、もともとは教育・研修施設として建設されたと聞きました。構成資産内にあり、現在は店舗付き住宅として使用されています。

右は大規模な駐車場で、構成資産内にあります。大型の観光案内所や管理センターがある。これらの建物は、歴史的、自然的景観の中で、より控えめな規模と外観を持つべきと思います。

Left: These buildings were newly built as an educational facility in the Nominated property. These are now used as a dwelling house with store.

Right: There are large Tourist Information Center and Managing Center with a large parking lot within the Nominated property. Those buildings should have more modest scale and style in the historical and natural landscape.

(10) 《3》 Oksan-seowon 玉山書院

左：洪水の後、2016年に行われた修理工事では、木版の保管庫の木部材や屋根瓦のほとんどが交換されている。

右：玉山書院遺物館（2010竣工）には、貴重な書籍のコレクションが収納展示されている。しかし、この大きな博物館は構成資産に隣接しており、この場所は国指定遺産地域に含まれている。

Left: After the flood, most of the wooden components and roof tiles of the woodblock vaults were replaced during the repair work done in 2016

Right: The Oksan-seowon Museum -The great collections of books are well maintained at the Oksan-seowon Museum (est. 2010). But this large museum is situated so close to the Nominated property, and the site is included in the State-designated Heritage area.

(11) 《4》 Dosan-seowon 陶山書院

書院の建物に隣接し、構成資産内にある展示博物館の外観デザインは、周囲の環境との調和が十分にとれているとは言えない。

The exterior design of the exhibition hall, which is located next to the seowon historical buildings and within the Nominated property, is not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12) 《5》 Piram-seowon 筆巖書院の1

鳥瞰図にあるように、書院に近い南側の敷地を再開発し、大規模な公園、教育センター、展示ホール、駐車場を建設している。以前の周辺の風景や歴史的風致は大きく変わったのではないか。

As shown by the bird's eye view drawing, the southern site close to the Nominated property was redeveloped to build the large park, the education center, the exhibition hall and car parking. The previous landscape and historical circumstance may have extremely changed.

(13) 《5》 Piram-seowon 筆巖書院の2

講堂、祠堂、版木庫の建物は、修理によっての古い瓦はほとんど新しいものに取り替えられているが、古い瓦はできるだけ多く再利用されるべきだった。

The buildings of the Lecture Hall, Shrine and Repository for Printing Woodblocks have been repaired and most of the old tiles have been replaced with new ones, but as many of the old tiles as possible should have been reused.

(14) 《6》 Dodong-seowon 道東書院

左：多くの調査報告書、修理工事報告書等が作成されている。

右：案内板はもう少し小さい方がよい。

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文化財庁から示されたプロトタイプデザインであるが、もう少し洗練されたデザインであるとよい。

Left: Many investigation reports, repair work reports, etc. are prepared.

Right: The Interpretation panel should be a little smaller.

Information center- Though this design is a prototype shown from CHA, it would be nice if the design was a little more sophisticated.

(15) 《7》 Byeongsan-seowon 屏山書院

上：新駐車場から書院への道沿いの景観は近い将来に改善されることが望ましい。

下：この新しいビジターセンターの高さと形は、自然の風景の中では自己主張しすぎるかもしれない。

Above: The landscape along the road from the new parking lot to the Seowon should be improved in the near future.

Bottom: The height and shape of this new visitor center may be too assertive in the natural landscape.

(16) 《8》 Museong-seowon 武城書院

左上：土塀の向こうにあざやかな色の2階建て民家

右上：周辺はやや乱雑な景観。民家の上にソーラーパネル。

右下：まわりの陸屋根農家の屋上に勾配屋根の穀物乾燥場。

Upper left: A brightly colored private house over the earthen wall

Upper right: The surrounding area is a little messy. Solar panel on top of a private house

Lower right: Gradient roof grain drying facility on the roof of a flat roof farmhouse around.

(17) 《9》 Donam-seowon 遯巖書院の1

左上：建物配置の変遷

左下：2006年に新築されたSanangnu pavilionはこの書院の現代の活動のために必要であろうが、その位置、規模、形態等について厳密な歴史的考察がなされたのであろうか。

右上：遯巖書院は1634年に完成したが、洪水により1881年に現在地に4つの建物が移設された。さらに1971年までにEungdodang lecture hall など3つの建物が移築されてきた。その後、さらに1999、2000、2006年に建物が建設された。このため、敷地計画や建物配置の歴史性がややわかりにくい。

右下：Hongalsmun red-spiked gate & Hamabi dismounting stele の移設

ICOMOSから当初場所からの違いを指摘されて、2018年に移設したもの。左は私が現場調査したときの写真、右はSupplementary Information に掲載された移設後の写真。

Upper left: Changes in site Plan

Lower left: Sanangnu pavilion, which was newly built in 2006, may be necessary for the modern activities of the Seowon, but was its location, scale, and form enough considered historically?

Upper right: Donam-seowon was completed in 1634, but due to flooding, four buildings were relocated to the present site in 1881. And by 1971, three more buildings were moved, including the Eungdodang lecture hall. Further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 1999, 2000, and 2006. This makes it somewha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istoricity of the site plan and building layout.

Lower right: Relocation of Hongalsmun red-spiked gate & Hamabi dismounting stele.

This gate was relocated in 2018 after ICOMOS pointed out the differences from the original location. On the left is a photo of the previous position as I surveyed it in May 2018, and on the right is a photo of the relocated position as published in Supplemental Information.

(18) 《9》 Donam-seowon 遯巖書院の2

Yehakgwan Hall and the hanok village は教育施設及び体験宿泊施設整備として、

2014年から開発されたという。構成資産に隣接し、国指定保護区域内での大規模開発である。

This large-scale project to develop an educational facility and experience-based accommodation facility has begun from 2014. The development is within a State-designated Heritage adjacent to the nominated property.

(19) 結論

1. 文化遺産保護法で定められた歴史的文化環境保全地域（HCEPA）の制度は、指定物件の周辺地域を保全するための非常に有効、かつ先進的な制度である。

2. 各バッファゾーンが HCEPA の境界内に含まれ、バッファゾーンとしての効果を發揮している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る。場合によっては、バッファゾーンの領域が HCEPA の領域と同じでも良いかも知れない。

3. 国が指定した遺産は、重要な建築物、記念碑、遺跡、工芸品、無形遺産要素、民俗資料などで構成されており、必要に応じて、これらの国が指定した遺産の周囲に保護地区を設定している。一般的には、国が指定した遺産を含む保護地区の全体に個別の国指定遺産と同様の重要な文化的価値があると推定されている。

4. 保護地区内での訪問者用施設や教育施設の新規建設プロジェクトが文化財庁によって許可された場合、それらのプロジェクトは中央政府から開発のための補助金を期待できる。そのため、地方政府は保護地区内でそれらのプロジェクトを計画しがちである。このような新しいプロジェクトは、構成資産内では許可されるべきではない。

5. ビジター施設や教育施設は、書院の統合的利用を促進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しかし、その場合は、構成資産からできるだけ離れた場所に建設し、デザイン、色、高さは周辺環境や景観を損なわないようにできるだけ控えめにすべきである。それらのプロジェクトは、HIAの手続きによって、計画する前に厳しく詳細に検討されるべきである。

6. いくつかの書院では、敷地内に個別に指定された歴史的建造物がない、あるいは希少である。政府は、綿密な調査の後、個々の歴史的建造物を国の文化財として指定し、より効果的な保護を推進すべきである。

7. いくつかの保存事業では、多くの当初材が取り替えのために失われている。いくつかの歴史的建造物は、修復作業の後、新しいもののように見えることがある。そのため、真正性を保つための保存作業にさらに注意を払うべきである。

(20) Conclusion

1. The legal system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HCEPA), which is provided by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very effective and advanced system for preservation of surrounding area of the designated property.

2. It is very important that each buffer zone is contained within the boundaries of HCEPA and is effective as a buffer zone. In some cases, the area of the buffer zone may be the same as the area of HCEPA.
3. The State-designated heritage is composed of important buildings, monuments, sites, artifacts,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nd folk materials, and Protection Zone, if necessary, is set around those state-designated heritage area. Generally speaking, it is presumed that there is the same important cultural value in whole area occupying Protection Zone where includes State-designated heritage.
4. If new construction projects of visitors' facilities or educational facilities inside the Protection Zone are allowed by CHA, those projects can expect subsidies for developme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local governments are apt to plan those projects inside the Protection Zone. Those new projects should not be permitted inside the Nominated Property.
5. Visitors' facilities or educa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use of Seowon. But, if so, they should be built as far as possible from the Nominated property, and the design, color and height are as modest as possible not to har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landscape of the property. Those projects should have severely examined in detail before planning, through 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procedure.
6. Some seowon do not have any individual designated historic buildings, or rare. After the intimate survey,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o select individual historic buildings as the State-designated heritage to protect them more effectively.
7. In some preservation projects, many original materials have been lost because of replacement. So, some historic buildings look like new ones after repair works. So,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eservation works for keeping authenticity

(21) 付：書院と伝統集落保存の有機的結合

Appendix: Organic Combination of Seowon and Traditional Village Conservation

左：河回村のドシエから引用した地図。

右：世界文化遺産「韓国の歴史的集落群：河回と良洞」に、今回の9の書院のうちの屏山書院と玉山書院が含まれている。2つの世界文化遺産の保護にあたり、より総合的な保護の方針が期待される。

Left: Map taken from the Dossier of Hahoe Village

Right: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which has been registered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includes Byeongsan Soewon and Oksan Soewon, among the nine Seowon Academies that have been registered as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this time. A more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two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is expected.

*번호는 PPT의 슬라이드 번호임.

1. 일본 이코모스의 가리야 유가라고 합니다. 오늘 ‘서원의 좀더 좋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의 사진은 2018년 5월 28일 병산서원의 현지조사 시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문화재보호의 각 경계선과 경관요소, 유산보호의 법적 시스템의 관계도입니다.

2~3. 머리말

저는 2018년 5월에 모의 현지조사로 한국의 세계유산 후보인 9개 서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많은 분들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조사 시 현지에서의 질의, 최종 총괄 토론 등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엄격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원군(書院群) 문화유산의 좀더 나은 보존을 위해 한 전문가로서 또 ICOMOS의 동료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후 서원군은 2019년에 정식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 뒤 서원군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없었고, 이번 저의 발표는 대부분 2018년 시점의 견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토론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 2월 20일에 일본과 한국 이코모스의 두 국내위원회가 공동 개최로 한일 문화유산 방재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한국 이코모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받아 매우 감사했습니다. 특히 서원보존관리단의 박진재 씨는 서원군의 풍수해 현황과 대책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 한국에서 문화재 보호의 각 경계선과 경관요소, 유산 보호 법적 시스템의 관계도

· 이 그림은 이코모스의 요청에 대해 한국이 2019년 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이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국가지정 사적으로 구성자산인 영역을 표시하며, 그 주위의 녹색 선은 버퍼존을 나타냅니다. 그 바깥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국가지정 사적에서 최대 500m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버퍼존을 포함하며, 또한 구성자산으로부터의 가시범위를 충분히 넘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게다가 버퍼존보다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 또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

할 만 합니다.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유감스럽게도 세계유산 보호에 대해서도, 버퍼존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세계유산 주변 보호는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경관 시책, 환경 시책에 의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퍼존 보호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으며 교토 등 각지에서 보호와 개발을 둘러싸고 다양한 알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적 보호 시스템에 관해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적 보호 시스템 중 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정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23조에서 26조는 국가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의한 중요건조물, 사적, 미술품, 무형문화재 등의 국가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70조에서 7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자료의 등록, 문화유산의 지방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비용부담, 보고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제27조와 법시행령 제13조 ~ 15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보존시설이나 보존구역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제19조는 세계유산 또는 그것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저는 국가지정 사적과 제27조의 보호구역의 차이를 실은 알지 못합니다.

6. 구성자산과 버퍼존 등 유산 지정의 중복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세계유산의 구성자산으로, 이 안에 국가지정 사적과 유형 문화재가 포함됩니다. 짙은 파란색 영역에서 나타나는 국가 사적은 때로 구성자산의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깥쪽에 짙은 파란색 굵은 테두리 선으로 둘러싸인 보호구역이 필요에 따라서 설정됩니다.

이것들 주위에 버퍼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재신청서에는 버퍼존의 경계는 구성자산 주위의 산이나 강, 평지, 마을과 농지, 그밖에 보호구역을 포함해 설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더해 그 조치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최대 500m에 이르는 보존지역은 버퍼존을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 각 서원의 개별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 현지 조사 때 깨달은 것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결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일본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같은 공통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해결된 과제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1》 소수서원

· 중앙에서 왼쪽은 수리 시 고재(古材)를 취급합니다. 왼쪽 위 기숙사에는 옆에 고재가 노출 전시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실내의 적절한 장소에 넣어두고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아래의 정자는 수리를 통해 서까래가 거의 교체되었습니다. 고재를 어느 정도 재사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 오른쪽은 구성자산에 인접한 선비촌입니다. 이 시설은 서원과 인접한 완충지역에 있습니다. 대규모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만들어졌는데, 그 건물 복원(復元)의 엄밀성에 위화감이 있습니다.

8. 《2》 남계서원-1

이 건물은 기둥의 하부를 교체하는 등 수리가 이루어졌지만 장부구멍 등의 부분에서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9. 《2》 남계서원-2

왼쪽은 새 건물로, 원래는 교육·연수시설로 건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성자산 안에 있으며, 현재는 점포가 딸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대규모 주차장으로, 구성자산 안에 있습니다. 대형 관광안내소와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역사적, 자연적 경관 속에서 좀더 절제된 규모와 외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3》 옥산서원

왼쪽: 홍수 이후, 2016년에 진행된 수리공사에서 목판 보관고의 목부재와 지붕기와가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오른쪽: 옥산서원유물관(2010 준공)에는 귀중한 서적 수집품들이 수납·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박물관은 구성자산에 인접해 있고, 그 장소는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4》 도산서원

서원 건물에 인접해 구성자산 안에 있는 전시박물관의 외관 디자인은 주위 환경과 잘 조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12. 《5》 필암서원-1

조감도에 나타나듯이 서원과 가까운 남쪽의 부지를 재개발해 대규모 공원, 교육센터, 전시홀,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주변 풍경과 역사적 풍치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지요?

13. 《5》 필암서원-2

강당, 사당, 판묵고 건물은 수리를 통해 옛 기와가 대부분 새 것으로 교체되었는데, 옛 기와는 되도록 많이 재사용했어야 했습니다.

14. 《6》 도동서원

왼쪽: 많은 조사보고서, 수리공사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안내판은 좀더 작은 것이 좋습니다.

안내소 - 문화재청에서 나온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인데,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5. 《7》 병산서원

위: 새 주차장에서 서원으로 가는 길가의 경관은 가까운 장래에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이 새로운 방문자센터의 높이와 형태는 자연의 풍경 속에서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16. 《8》 무성서원

왼쪽 위: 토담 너머 선명한 색의 2층 민가 건물.

오른쪽 위: 주변이 다소 난잡한 경관. 민가 위에 태양광 패널.

오른쪽 아래: 주변에 있는 평지붕 농가의 옥상에 경사지붕을 인 곡물 건조장.

17. 《9》 돈암서원-1

왼쪽 위: 건물 배치의 변천.

왼쪽 아래: 2006년에 신축된 산양루는 이 서원의 현대적 활동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위치, 규모, 형태 등에 대해 엄밀한 역사적 고찰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른쪽 위: 돈암서원은 1634년에 완성되었으나 홍수로 인해 1881년에 현재 위치에

4개의 건물이 이전되었다. 이어서 1971년까지 응도당 등 3개의 건물이 이축되었다. 그 뒤 1999, 2000, 2006년에 건물을 지어졌다. 이 때문에 부지 계획이나 건물 배치의 역사성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아래: 홍살문과 하마비의 이설

이코모스로부터 당초 장소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 2018년에 이설한 것. 왼쪽은 내가 현장조사 했을 때의 사진, 오른쪽은 추가정보(Supplementary Information)에 게재된 이설 후의 사진.

18. 《9》 돈암서원-2

예학관과 한옥마을은 교육시설과 체험숙박시설 정비로서 2014년부터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구성자산에 인접해 있으며 국가지정 보호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개발입니다.

19~20. 결론

1.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HCEPA) 제도는 지정 물건의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이다.
2. 각 버퍼존이 HCEPA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버퍼존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퍼존 영역이 HCEPA 영역과 같아도 좋을지 모른다.
3. 국가가 지정한 유산은 중요한 건축물, 기념비, 유적, 공예품, 무형유산 요소, 민속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들 국가가 지정한 유산의 주위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유산을 포함한 보호구역 전체에 개별적인 국가지정 유산과 동일한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4. 보호구역 안에서 방문자용 시설이나 교육시설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문화재청에 의해 허가되었을 경우, 그런 프로젝트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보호구역 안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구성자산 안에서는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5. 방문자 시설과 교육시설은 서원의 통합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 구성자산에서 가능한 한 떨어진 장소에 건설하고 디자인, 색상, 높이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되도록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 프로젝트는 HIA의 절차에 의해 계획하기 전에 엄격하고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6. 몇몇 서원에는 부지 안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역사적 건조물이 없거나 드물다. 정부는 면밀한 조사를 한 뒤 개별적인 역사적 건조물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7. 몇몇 보존사업에서는 당초의 부재가 많이 교체되어 사라지고 있다. 몇몇 역사적 건조물은 수복 작업 후 새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작

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 부록: 서원과 전통마을 보존의 유기적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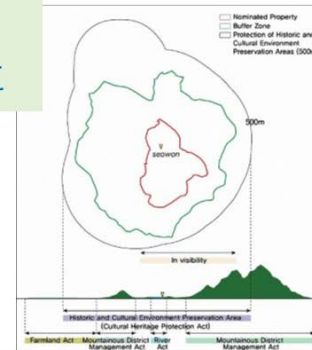
왼쪽: 하회마을의 등재신청서에서 인용한 지도.

오른쪽: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 이번 9개 서원 가운데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이 포함되었다. 두 개의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좀 더 종합적인 보호의 방침이 기대된다.

(번역: 한필원)

For Better Preservation and Integrated Use of Seowon

「書院」のよりよい保存と活用のために



Dr. KARIYA Yuga 刈谷勇雅
ICOMOS Japan

1

はじめに

私は2018年5月に模擬現地調査として韓国の世界遺産候補の9つの書院を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折りに多くの方々にたいへんにお世話にな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調査時の現地での質疑、最終の総括討論などにおいて、細かいところまでやや厳しく問題点を指摘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これは決して皆さんの保存への努力を批判的にとらえたのではなく、書院群の文化遺産のよりよい保存をめざす、一専門家として、またICOMOSの仲間として申し上げたものです。

その後、書院群は2019年に正式に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残念ながら私はその後書院群を再訪する機会はなく、今回の私の発表はほとんど、2018年時点の見聞を基にしたものです。そのため、すでに時点修正を行う必要が多々あると思いますが、討論の参考を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なお、今年の2月20日に日本と韓国ICOMOSの両国内委員会が共催で韓日文化遺産防災シンポジウムをオンラインで開催し、韓国イコモスの皆さんのいろいろ御協力をいただき、たいへ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特に書院保存管理財団の朴珍載氏には、書院群の風水害の現状と対策を発表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

Introduction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nine Seowon in Korea as the preparatory mission in May 2018.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ny people who took care of me during that time. I remember that in the summary discussion of the survey and the subsequent report, I was quite strict in pointing out problems in detail. The report was not intended to criticize your great efforts of preservation, but rather as the report from one expert and fellow of ICOMOS member aiming for the better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nine Seowon were then officially registered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in 2019. Congratulations to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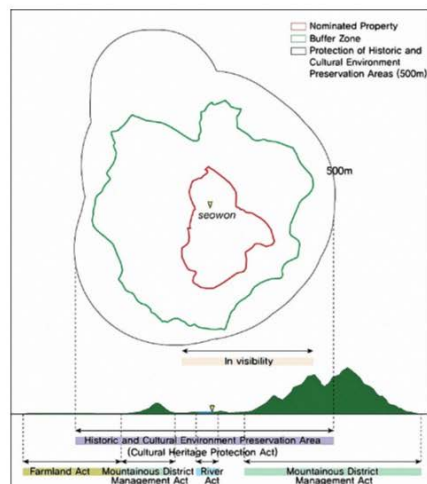
Unfortunately, I have not had a chance to visit the Seowon again, and most of this presentation is based on my observations as of 2018. I hope you will find this report helpful in your discussions, although I am sure there are many revisions that need to be made.

In addition, the Korea-Japan Symposium on Cultural Heritage Disaster Mitigation was held online on February 20 of this year, co-hosted by the Japanese and Korean ICOMOS National Committees,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ICOMOS member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Mr. Park In Jae from the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for his present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wind and flood damage to Seowon complexes and countermeasures.

3

韓国における文化財保護の各境界線と景観要素、遺産保護の法的システムの関係図

Diagram of Relationship among Boundaries, Landscape Elements, Legal Protection of the Property in Korea
Quoted from the Response to Interim Report and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 February 2019, p.25



- ・国指定文化財の周囲に歴史文化環境保存地域を指定する、しかもバッファゾーンより広範囲に指定するという韓国の文化財保護制度は非常に優れている。
- ・また、文化遺産保護法に世界遺産の登録とその保護が規定されていることにも注目したい。
- ・日本の文化財保護法には、世界遺産保護についても、バッファゾーンについての規定もない。
- ・日本の世界遺産の周辺では、自治体の条例による景観施策、環境施策によって対応しているのが現状で、バッファゾーンの保護には限界がある。京都など各地で様々な軋轢が生じている。

- ・ The Korea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s splendid that it designates areas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around State-designated properties, and that it designates a wider area than the Buffer Zone.
- ・ In additi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tipulates World Heritage inscrip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 ・ The Japanese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has no provisions on World Heritage protection or buffer zones.
- ・ In the vicinity of World Heritage sites in Japan, landscap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are taken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there are limits to the protection of buffer zones. So, various conflicts have arisen in Kyoto and other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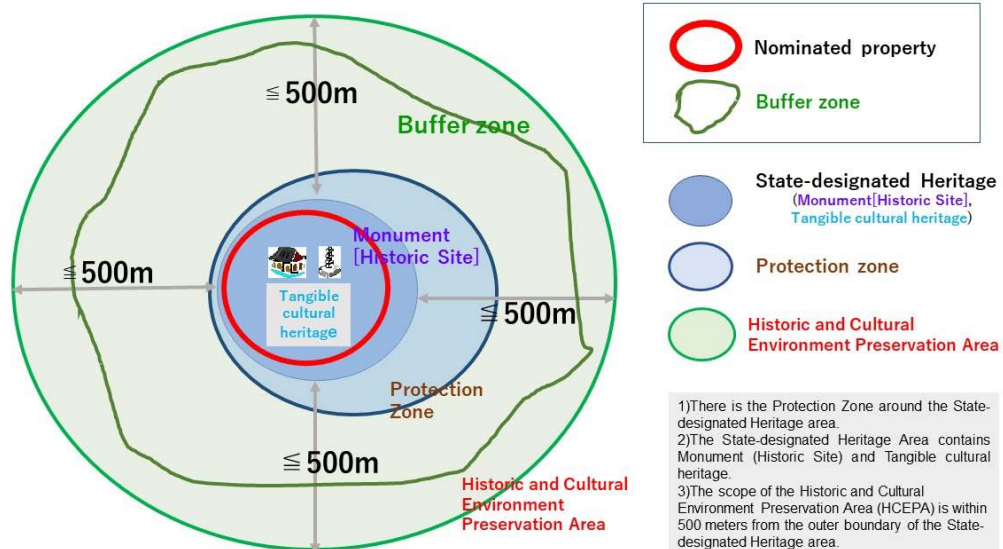
4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Korea

Quoted from the Dossier

Designation	Articles 23–26	State designation	Designation of important buildings, monuments, sites, artifacts,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nd folk materials on the national heritage list by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rticles 70–74	City/provincial designation	Provisions on the designation of heritage on city/provincial heritage lists, the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Material, the establishment of city/provincial cultural heritage committees, the bearing of expenses, and reporting, and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 27(Articles 13–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Designation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protection zone	Designation of protective facilities or protection zones by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en specially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state-designated heritage
	Article 13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Mandatory designation of Heritage Preservation Areas around a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provincial/municipal ordinances
	Article 19	World Heritage inscrip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y order any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that could affect a World Heritage site, etc. or its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 World Heritage Site, etc. and its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5



Nominated Property/Buffer Zone, Overlapped Heritage designation in Korea Drawing by KA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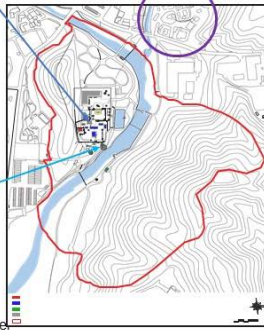
各書院の個別課題について Individual Issues for Each Seowon

《1》Sosu-seowon 紹修書院



Gyeongnyeonjeong pavilion
修理によって垂木がほとんど取り替えられている。
Most of rafters of this building have been replaced after the repair work.

Dormitory
古材が露出展示は腐朽が進むおそれがあり、
屋内の適切な場所に格納し、展示した方がよい。
The replaced members of wood are desirable
to be displayed inside a proper building to
prevent weathering.



Seonbicheon

この施設は書院に隣接し、緩衝地帯にある教育と体験の場所であるが、その建物復元の厳密性に違和感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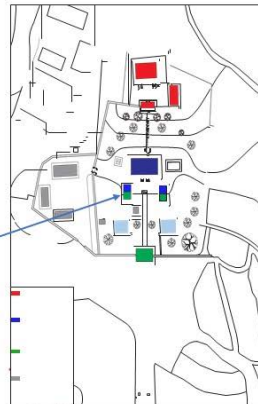
This facility is close to the Sosu-seowon and located in the buffer zone, and is a place for education and experience, but the strictness of the restoration of the buildings is questionable.



《2》Namgye-seowon 濫溪書院 1



Yeongmaecheon balcony



この建物の修理は、柱の脚部の取り替え等の修理がなされたが、ほぞ穴などその他の部分で一部に不完全な部分がある。

As to the repair work of this building, some incomplete portions are observed.

《2》Namgye-seowon 濫溪書院 2



構成資産内に教育施設として新築されたが、現在は個人の店舗付き住宅として使用。

These buildings were newly built as an educational facility in the Nominated property. These are now used as a dwelling house with store.

構成資産内に大規模な駐車場を備えた大型の観光案内所や管理センターがある。これらの建物は、歴史的、自然的景観の中で、より控えめな規模と外観を持つべきではないか。

There are large Tourist Information Center and Managing Center with a large parking lot within the Nominated property. Those buildings should have more modest scale and style in the historical and natural landscape.

9

《3》Oksan-seowon 玉山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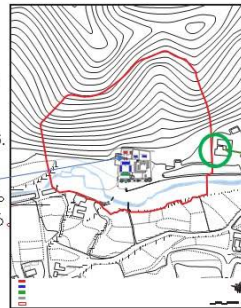
After the flood, most of the wooden components and roof tiles of the woodblock vaults were replaced during the repair work done in 2016.

洪水の後、2016年に行われた修理工事では、木版の保管庫の木部材や屋根瓦のほとんどが交換されている。

Munjibpangak(文集板閣)

Heavy rain damage(2016.09.02~03.)

→Repair or Reconstruction ?



Before damage



After damage

The Oksan-seowon Museum

The great collections of books are well maintained at the Oksan-seowon Museum (est. 2010). But this large museum is situated so close to the Nominated property, and the site is included in the State-designated Heritage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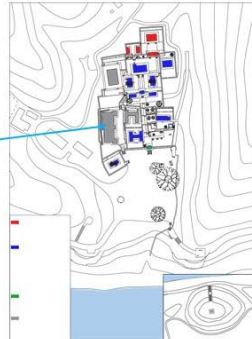
玉山書院遺物館(2010竣工)には、貴重な書籍のコレクションが収納展示されている。しかし、この大きな博物館は構成資産に隣接しており、この場所は国指定遺産地域に含まれている。

10

《4》 Dosan-seowon 陶山書院



Okjingak exhibition hall



The exterior design of the exhibition hall, which is located next to the seowon historical buildings and within the Nominated property, is not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書院の建物に隣接し、構成資産内にある展示博物館の外観デザインは、周囲の環境との調和が十分にとれているとは言えない。

11 4-5-2

《5》 Piram-seowon 筆巖書院 1



As shown by the bird's eye view drawing, the southern site close to the Nominated property was redeveloped to build the large park, the education center, the exhibition hall and car parking. The previous landscape and historical circumstance may have extremely changed.

鳥瞰図にあるように、書院に近い南側の敷地を再開発し、大規模な公園、教育センター、展示ホール、駐車場を建設している。以前の周辺の風景や歴史的風致は大きく変わったのではない。

12

《5》Piram-seowon 筆巖書院 2



講堂 Lecture Hall

講堂、祠堂、版木庫の建物は、修理によつての古い瓦はほとんど新しいものに取り替えられているが、古い瓦はできるだけ多く再利用されるべきだった。

The buildings of the Lecture Hall, Shrine and Repository for Printing Woodblocks have been repaired and most of the old tiles have been replaced with new ones, but as many of the old tiles as possible should have been reused.



祠堂 Shrine



版木庫 Repository for Printing Woodbl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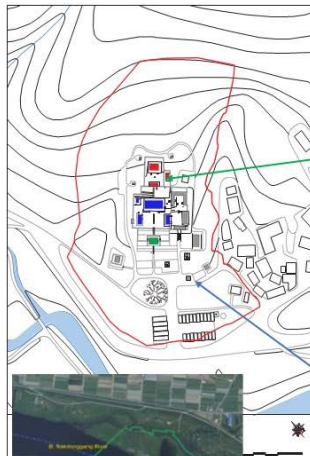


13

《6》Dodong-seowon 道東書院



多くの調査報告書、修理工事報告書等が作成されている。
Many investigation reports, repair work reports, etc. are prepared.



案内板はもう少し小さい方がよい。
The Interpretation panel should be a little sma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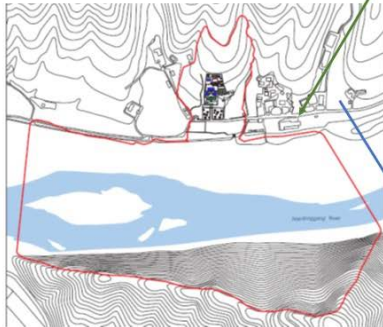


Information center

文化財庁から示されたプロトタイプデザインであるが、もう少し洗練されたデザインであるとよい。
Though this design is a prototype shown from CHA, it would be nice if the design was a little more sophisticated.

14

《7》 Byeongsan-seowon 屏山書院



The landscape along the path from the new parking lot to the seowon is desirable to be improved in near future.
新駐車場から書院への道沿いの景観は近い将来に改善されることが望ましい。



The height and form of this new visitor center may be too self-assertive in the natural scenery.
この新しいビジターセンターの高さと形は、自然の風景の中では自己主張すぎるかもしれな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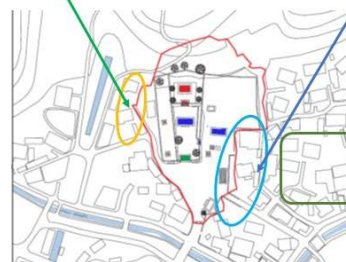
《8》 Museong-seowon 武城書院



土塀の向こうにあざやかな色の2階建て民家
A brightly colored private house over the earthen wall



周辺はやや乱雑な景観。民家の上にソーラーパネル。
The surrounding area is a little messy. Solar panel on top of a privat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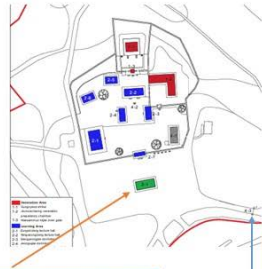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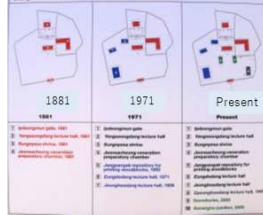


まわりの陸屋根農家の屋上に勾配屋根の穀物乾燥場。
Gradient roof grain drying facility on the roof of a flat roof farmhouse around.

16

《9》Donam-seowon 遯巖書院

建物配置の変遷 Change in Site Plan



新築のパビリオン Sanangnu pavilion built in 2006

・遯巖書院は1634年に完成したが、洪水により1881年に現在地に4つの建物が移設された。さらに1971年までに Eungdodang lecture hall など3つの建物が移築されてきた。その後、さらに1999、2000、2006年に建物が建設された。このため、敷地計画や建物配置の歴史性がややわかりにくい。

・2006年に新築された Sanangnu pavilionはこの書院の現代の活動のために必要であろうが、その位置、規模、形態等について厳密な歴史的考察がなされたのであろうか。

・Donam-seowon was completed in 1634, but due to flooding, four buildings were relocated to the present site in 1881. And by 1971, three more buildings were moved, including the Eungdodang lecture hall. Further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 1999, 2000, and 2006. This makes it somewha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istoricity of the site plan and building layout.

・Sanangnu pavilion, which was newly built in 2006, may be necessary for the modern activities of the Seowon, but was its location, scale, and form enough considered historically?

Hongsalmun red-spiked gate & Hamabi dismounting stele



Before relocation 移設前
May 2018 by KA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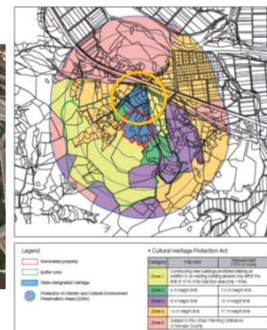


After relocation 移設後
November 2018

Quoted from "Supplementary Information" 17

《9》Donam-seowon 遯巖書院

Yehakgwan Hall and the hanok village 韓屋村：体験/教育型宿泊施設。2014～



教育施設及び体験宿泊施設整備として、2014年から開発。構成資産に隣接し、国指定保護区域内での大規模開発。

This large-scale project to develop an educational facility and experience-based accommodation facility has begun from 2014. The development is within a State-designated Heritage adjacent to the nominated property.

18

結論

1. 文化遺産保護法で定められた歴史的文化環境保全地域（HCEPA）の制度は、指定物件の周辺地域を保全するための非常に有効、かつ先進的な制度である。
2. 各バッファゾーンが HCEPA の境界内に含まれ、バッファゾーンとしての効果を発揮している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る。場合によっては、バッファゾーンの領域が HCEPA の領域と同じでも良いかも知れない。
3. 国が指定した遺産は、重要な建築物、記念碑、遺跡、工芸品、無形遺産要素、民俗資料などで構成されており、必要に応じて、これらの国が指定した遺産の周囲に保護地区を設定している。一般的には、国が指定した遺産を含む保護地区の全体に個別の国指定遺産と同様の重要な文化的価値があると推定されている。
4. 保護地区内での訪問者用施設や教育施設の新規建設プロジェクトが文化財庁によって許可された場合、それらのプロジェクトは中央政府から開発のための補助金を期待できる。そのため、地方政府は保護地区内でそれらのプロジェクトを計画しがちである。このような新しいプロジェクトは、構成資産内では許可されるべきではない。
5. ビジター施設や教育施設は、書院の統合的利用を促進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しかし、その場合は、構成資産からできるだけ離れた場所に建設し、デザイン、色、高さは周辺環境や景観を損なわないようにできるだけ控えめにすべきである。それらのプロジェクトは、HIAの手続きによって、計画する前に厳しく詳細に検討されるべきである。
6. いくつかの書院では、敷地内に個別に指定された歴史的建造物がない、あるいは希少である。政府は、綿密な調査の後、個々の歴史的建造物を国の文化財として指定し、より効果的な保護を推進すべきである。
7. いくつかの保存事業では、多くの当初材が取り替えのために失われている。いくつかの歴史的建造物は、修復作業の後、新しいもののように見えることがある。そのため、真正性を保つための保存作業にさらに注意を払うべきである。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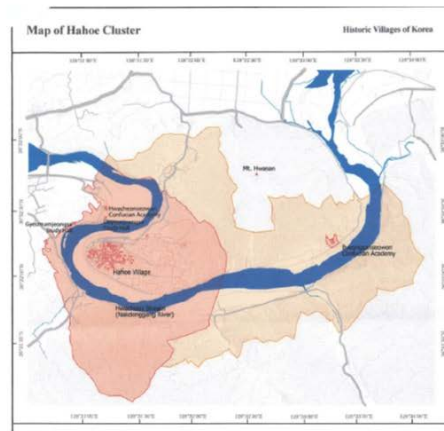
Conclusion

1. The legal system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HCEPA), which is provided by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very effective and advanced system for preservation of surrounding area of the designated property.
2. It is very important that each buffer zone is contained within the boundaries of HCEPA and is effective as a buffer zone. In some cases, the area of the buffer zone may be the same as the area of HCEPA.
3. The State-designated heritage is composed of important buildings, monuments, sites, artifacts,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nd folk materials, and Protection Zone, if necessary, is set around those state-designated heritage area. Generally speaking, it is presumed that there is the same important cultural value in whole area occupying Protection Zone where includes State-designated heritage.
4. If new construction projects of visitors' facilities or educational facilities inside the Protection Zone are allowed by CHA, those projects can expect subsidies for developme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local governments are apt to plan those projects inside the Protection Zone. Those new projects should not be permitted inside the Nominated Property.
5. Visitors' facilities or educa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use of Seowon. But, if so, they should be built as far as possible from the Nominated property, and the design, color and height are as modest as possible not to har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landscape of the property. Those projects should have severely examined in detail before planning, through 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procedure.
6. Some seowon do not have any individual designated historic buildings, or rare. After the intimate survey,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o select individual historic buildings as the State-designated heritage to protect them more effectively.
7. In some preservation projects, many original materials have been lost because of replacement. So, some historic buildings look like new ones after repair works. So,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eservation works for keeping authenticity

20

付：書院と伝統集落の保存の有機的結合

Hahoe Village and Byeongsan Soewon 河回村と屏山書院



世界文化遺産「韓国の歴史的集落群：河回と良洞」に、今回の9の書院のうちの屏山書院と玉山書院が含まれている。2つの世界文化遺産の保護にあたり、より総合的な保護の方針が期待される。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which has been registered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includes Byeongsan Soewon and Oksan Soewon, among the nine Seowon Academies that have been registered as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this time. A more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two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is expected.



河回村遠望。180528
View of Hahoe Village

21

토론 Discussion

심승구_ 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Shim Seungkoo_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신 가리야 유가(荻谷 勇雅) 선생님은 이코모스일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18년 한국의 서원 예비실사 때 참여하여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세계유산 보전관리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 같은 인연을 계기로 이번 2021년도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의미있는 발표와 함께 고견을 들려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발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의 더 나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서원의 등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실제로 9개 서원에 대한 개별 과제는 향후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는 물론 활용을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안들이다. 토론자는 선생님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발표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발표문에 제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시스템

한국의 문화재 보호에 골격은 ‘문화재보호법’이며 문화재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지정, 구역의 설정, 현상변경,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계획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계획들보다 문화재의 보호가 우선시된다. 또한 재난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내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소방법’ 상 특별관리대상으로 보호받는다.

서원의 경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보호된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구역 바깥 500m 이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고,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세분화된 현상변경 허용지침을 마련하여 주변 개발행위나 용도, 건물의 층수 등을 규제한다. 이에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경우 유산구역은 문화재구역과 현상변경 허용지침 1구역에 포함되어 온전히 보호받는다.

문화재구역은 지정된 문화재와 그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안내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5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에 대한 우려는 없다. 서원의 경우 완충구역 밖 주변 경관은 문화재보호법 이외에도 ‘산지관리법’과 ‘하천법’, ‘농지법’ 이외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 수리는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을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의 서원은 문화재 수리를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변경 행위, 보존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권고안을 내면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둘째, 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작동방식

일본의 경우 세계유산 주변 보호는 국가의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의한 경관 시책, 환경 시책에 의해 조치되고 있으며, 이는 완충구역 보호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어 유산과 주변 구역 보호와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알력들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반면 한국의 서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세계유산특별법’이 시행되어 세계유산 구역(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대한 보호에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서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세계유산 주변에서 세계유산 구역(완충구역) 내 활용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 구역 내에 있기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발표자께서 지적하였듯 허가 이후에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활용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며 후속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 세계유산과 그 주변 보호의 실제 작동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적 조치 이후 실제 현장에서 세계유산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듣고 싶다.

셋째, 목조건축물의 보전 관리

목조 건축물의 특성상 기존 자재가 부식, 파손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교체하되,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한 기존 부재 재사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기보다 새로운 부재로 교체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기존 부재는 문화재청 산하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이관하여 보존되고 조사 연구로 이어진다. 서원에서 기존 부재를 새로 교체한 것은 비교적 최근 수리한 대상이라 역사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존처리 후 재사용하지 않고 새 부재로 교체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수리 중 발생하는 해체 부재의 분류 기준,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목조건축 보전 관리에서 기존 자재의 보존 활용 방식은 어떠한지 궁금하며, 한국의 목조건축물 보전 관리와 비교하여 제안해 주실 점이 있는 지 궁금하다.

넷째, 세계유산 ‘서원과 역사마을’ 보존의 유기적 관계

‘한국의 서원(병산서원과 옥산서원)’과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의 종합적인 보호 방침과 보호구역의 불일치를 질의하였다. 우선, 한국의 관점에서는 두 연속유산 모두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조치는 동일한 상황이다. 다만, OUV와 OUV에 기여하는 속성(Attribute)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에서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한국의 역사마을’이 등재될 때 마을에 속한 두 서원은 유산의 구성요소로 작은 보호구역을 가졌으나, ‘한국의 서원’으로 다시 등재할 때 두 서원의 보호구역은 역사마을 때 지정했던 것 구역보다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이와 관련한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혹은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보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다섯째,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

최근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등재가 연속유산으로 진행되면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 114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도 2월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통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들도 마련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관련 유산군(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unakata Region, 2017년 등재), 나가사키 교회군(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2018년 등재), 모즈-후루이치 고분군(Mozu-Furuichi Kofun Group: Mounded Tombs of Ancient Japan, 2019년 등재) 등이 있으며 각 유산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이 등재신청서 및 부록자료 등에 서술되어 있다.

한국의 서원의 경우, 별도 기구인 통합보존관리단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각 지방자치단체, 각 서원 유림들이 협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 활용, 모니터링의 측면에서 유산의 통합 관리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본의 통합관리 경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듣고 싶다.

여섯째,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적 활용방안

토론자는 현재 서원의 보존·관리 위주의 시설활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서원의 정신문화와 가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현대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원의 경우 9개 연속유산으로서 OUV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이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 평

소에 생각하신 의견이나 참고가 될 만한 유산의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다.

이번 학술대회가 모쪼록 중세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사상 내지 지성계를 이끌던 서원의 가치가 현대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발표를 해 주신 가리야 유가(荻谷勇雅)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 정책

Polic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이해준_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Lee Haejun_ Professor Emeritus, Kongju National University

초록

2019년 7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어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한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속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이 지닌 통합적 성격이 전승되기 위하여는 9개 서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그 방향의 설정이 기대된다. 통합 관리의 범위, 방향 등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통합관리 조직도 만들어져 9개 연속유산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서원운영자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는 미흡하지만, 이에 더하여 큰 틀에서 향후 이들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과 방향을 4가지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통합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으로 9개 서원의 보존현황을 통합 모니터링, 보존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 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관리단에서는 이를 운영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 보고 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9개 서원의 개별 관리와 함께, 이를 통하여 통합보존 관리계획(보존, 정비, 활용)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통합 계승 활용에 대한 적극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9개 서원의 통합, 연계 가치를 최대한 알리고 홍보하며 계승, 활용하는 노력과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승·활용·교육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통합 정보서비스와 해설·홍보자료 간행이다.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특성과 가치를 정리해 알리는 종합 해설, 안내서와 함께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과 서원 홍보·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유산 소개,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는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다. 서원의 문화유산 자료들은 다양하고 특징적인 고문서 자료들과 제향인물 관련 문집과 목판 등의 자료들, 기문 현판 등 금석문 자료 등 독특한 자료들, 그리고 서원과 제향인물 관련 역사적 사건과 관련 유적, 일화, 전설 등이 전해진다. 이들을 모으고 아카이브화 하여 공개하고 자료전시관을 건립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 정책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 연속유산 9개 서원의 통합 성격
3. 통합관리 정책 방향
4. 통합관리 정책 과제와 방향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경북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 경남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1552년 건립), 경북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경북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전남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대구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경북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 전북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충남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의 9개 서원이다.

이들 9개 서원은 16세기 중반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어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한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들 서원은 역사와 교육 전통,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통해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과정을 증명하는 9개 서원으로, 이들 9개의 연속유산이 지닌 완전성과 진정성을 요약하여 강조한다면

- 1) 400여 년 동안 원형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지성의 요람이자 한국의 대표 서원이라는 점,
- 2) 조선 서원의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인 강당, 사우, 누각 등 건축물의 탁월한 사례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원래의 지형, 주변 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 3)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남긴 전적, 문집, 기문, 목판 등 기록유산이 잘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무형유산으로 제향과 의례들은 지금까지 보존, 전승되어 지속된 전통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그 특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서원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이며,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서원에 깃들여 있는 교육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전통은 향후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세계에 그 가치를 새롭게 알리게 되었다.¹⁾

2. 연속 유산 9개 서원의 통합 성격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의 연속 유산으로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였다. 서원은 당시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중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유산이었다.

주지하듯이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기준(iii)에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이다.

라고 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총평으로 지적하고,

- 조선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 대표적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
-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 교육기관으로서 탁월한 증거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9개의 각 서원들이 독특한 배경과 성격, 문화 유산을 전승하기도 하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이들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합쳐져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일 것이다.

제향의례, 서원이 자리 잡은 위치와 배치 공간의 탁월함, 유산 보존의 온전함, 각 서

1) 이상해, 2019,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학보』 9호, 한국서원학회.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선비정신」, 『서원 -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라』, 국립전주박물관.

원이 행하는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 역할, 수장한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 현판과 기문 등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유지, 전승, 존속된 유산이다. 이러한 연속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와 특성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한국의 서원’ 연속유산 가치, 특성

구분	criterion(iii)					criterion(iv)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림활동	건축특징	입지	배치	건축물	경관
소수서원	제도 도입	●	●	●	◎	건축 요소	●	◎	●	●
남계서원	설립 주체	●	◎	●	●	배치 방식	●	●	●	◎
옥산서원	출판 활동	●	◎	●	●	누각 도입	◎	●	●	●
도산서원	학맥 형성	◎	●	●	●	경관 구현	◎	●	◎	●
필암서원	운영 방식	●	◎	●	◎	평지 특성	●	●	◎	◎
도동서원	교육 체계	●	◎	●	◎	경사 특성	●	●	◎	●
병산서원	사회 활동	◎	◎	●	●	누각 특화	◎	◎	●	●
무성서원	교화 활동	●	◎	◎	●	입지 특화	●	◎	◎	◎
돈암서원	예학 심화	●	●	●	◎	강당 특화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이를 통하여 이들 9개 서원이 지닌 독특하거나 특별한 모습들이 종합되고, 이들이 합해져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9개 서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의 마련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물론 9개 서원은 지역과 건립 주체가 다르고 건립 이후의 활동과 문화가 독특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화된 문화유산 가치를 귀중하게 전승해 왔고, 이를 상대적으로 강조 특화하여 계승·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 지닌 통합적인 성격을 인정받았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연속적 문화유산으로서의 특성도 통합하여 관리, 계승·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연속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이 지닌 통합적인 성격은 크게 (1)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으로 상징적인 유산이라는 점, (2) 자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이었다는 점, (3)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기능이 모두 갖추어져 특성을 보여준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4) 조선시대 선비문화, 유교문화의 자료관·박물관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 :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이었다. 서원 문화에서 보여진 이들 고급 지성들의 개성과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은 현대 지성

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한국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 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한국 서원의 진면목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간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서원은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이 되어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다.

· **지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 또 한국의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즉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어떤 주체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9개 서원이 각각 특징 있는 여러 모습들로 밝혀진다. 9개 서원들은 각각 건립 이래 지역별로 그들 세력을 양성하고, 사회·정치 활동의 근거지로서 지역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 ‘결집’, ‘소통’, ‘대변’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론 형성과 사회적 역할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한국 서원만의 특성이자다. 그리하여 서원은 지역 지성들의 활동 거점으로 국난기에 의병창의라든가, 연명상소, 격렬한 학문토론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 : 한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나라의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으로, 제향공간인 사우와 강학공간인 강당, 교류와 회합의 공간인 누정 등의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오랜 역사와 정형화의 과정도 중요하며 탁월한 사례라는 점이 인정을 받는다. 모든 서원을 상징하는 사우와 강학공간과 함께 교류와 회합의 공간으로 도산서원의 경림정,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원의 학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돈암서원의 응도당 등은 대표적 건물들이다.

· **유교문화 자료관·박물관** : 한국의 서원은 ‘한국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9개 서원에 소장된 고서, 고문서, 그리고 목판들은 신청유산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출판물은 주로 제향인물의 문집, 저작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출판을 위한 목판도 소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서원의 강학 규약, 강학 내용, 평가, 그리고 강학 의례와 관련된 자료, 당시의 학적 부라든가, 학칙, 재정, 인적구조, 교육과정 등을 전해주는 다양한 고문서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 이들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서원문화유산들은 한국의 서원이 지닌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통합 관리 정책 방향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결정문에 보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등재결정문(2019. 7) 중 “보호관리 요건”에서

개별 서원에는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핵심이 되는 보존관리 메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통합관리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다. 위험대비 대책 또한 일정 부분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방문객 관리 내용 또한 만족스러운 상태이나 9개 서원을 단일 유산으로 보다 잘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권고 사항으로 9개 서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을 마련할 것을

- a)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할 것
- b)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

이라고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등재 직후인 2019년부터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기본적인 9개 서원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완비하기에 이르렀고, 2020년 7월부터는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 보존관리 통합 모니터링
- 통합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마련

등 9개 서원의 현장관리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²⁾[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박성진 선생의 발제를 참조 바람]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그 문화유산 가치와 특성이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볼 때에 연속특성으로 특화되고 부각되어 전승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9개 서원의 통합관리는 필요하고 그 방향의 설정이 기대되는 것이

2)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박성진 선생의 발제를 참조 바람.

다.

사실상 향후 통합 관리의 범위, 방향 등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또 대체로 체계적인 보존관리, 통합 가치의 체계화, 향후 전승과 연계 활용 등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지적한 것처럼 등재 이후 원활한 통합관리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조직)의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 통합관리 조직은 9개 연속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 관리, 계승 활용하도록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서원운영자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는 다소 미흡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향후 통합 관리의 정책과 그 방향을 4가지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의 통합관리 정책계획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통합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이다. 9개 서원의 보존현황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보존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관리단에서는 이를 운영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 보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9개 서원의 개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하여 통합 보존 관리 계획(보존, 정비, 활용)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통합 계승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9개 서원의 통합, 연계 가치를 최대한 알리고 홍보하며 계승, 활용하는 노력과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승·활용·교육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통합 정보서비스와 해설·홍보자료 간행이다.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특성과 가치를 정리해 알리는 종합 해설, 안내서와 함께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과 서원 홍보·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유산 소개,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는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도 제안하여 본다. 서원의 문화유산 자료들은 다양하고 특징적인 고문서 자료들과 제향인물 관련 문집과 목판 등의 자료들, 기문 현판 등 금석문 자료 등 독특한 자료들, 그리고 서원과 제향인물 관련 역사적 사건과 관련 유적, 일화, 전설 등이 전해진다. 이들을 모으고 아카이브화 하여 공개하고 자료전시관을 건립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4. 통합 관리 정책 과제와 방향

4-1. 통합 보존 관리

한국의 서원 보존 및 관리체계는 등재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즉 (1) 9개 서원의 보존·관리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가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는 점, (2) 한국의 서원은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에 포함되었고,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산림, 농경지, 강, 계곡 등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 유산을 위협하는 개발 및 환경압력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미하지만, (3) 서원유산이 목재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설비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4) 또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 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조례를 제정하여 유산의 통합관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각개 서원의 보존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9개 서원의 통합적인 보존관리가 과제로 지목된다. 그리하여 세계유산 등재 권고 사항에서 신청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등재 이후 준비할 때에 9개 서원을 단일 유산으로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사국인 한국에

- a)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
- b)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서 통합하기 위한 해설 개발

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등재신청서에서 개별 서원별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이 되는 보존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설정하였었다. 그러나 연속유산으로 등재와 더불어 9개의 연속유산이 지니는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통합관리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서원통합관리단에서는 지자체와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9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계획을 작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등재 이후 통합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통합관리를 시행하기로 하고, 통합관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서원통합관리단에서는 서원의 종합정비계획수립 안내서(보존, 정비, 활용)을 편찬하여 이를 9개 서원에 지침서로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9개 서원별로 보존 정비 활용계획, 건물 복원, 수리 등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9개 서원의 공간 구성은 크게 주변 경관,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과 회합공간, 지원 공간으로 구분된다. 9개 서원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이러한 서원의 경관과 공간이 온전하게 보호, 관리됨으로써 유지된다. 통합관리단에서는 연속유산 9개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에 집중하기 위하여 등재 이후 보존현황 통합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담당 서원유사 선정)하고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비교 분석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역 서원과 지자체와 공유,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속한 유산관리,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존 관리와 관련 방문객 무인계수기 설치를 완료(2021년 6월)하였고,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대책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관리 평가체제도 첨가하여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서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향후 서원의 물리적 관광압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관리할 관리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 통합 계승, 활용

다음은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통합 특성을 계승, 홍보, 특화하는 연계 활용이다.

한국의 9개 서원은 각각 독특한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저명 성리학자 추숭·제향하는 공간이자, 지역의 교육·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 철학적 사색과 문학적 창의성을 공감하게 하는 우수한 경관 자원까지 갖추고 있다. 즉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며 유·무형의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 종합 보존처이다. 그리하여 각 서원별로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자원들을 콘텐츠 화하여 다양한 수요층과 대상,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별 서원별 독자적 활용은 대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서원’이 지닌 세계유산 가치를 연계하여 계승, 활용하는 9개 서원 통합 활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연속유산으로 지정, 특화된 한국의 서원 문화 특성과 종합성(경관, 지성, 교육, 의례, 인물, 유적)을 연계, 상생하여 콘텐츠 화하여 통합 활용하는 대책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한다.

서로 다른 역사 배경과 학문, 사상적 기반을 지닌 9개 서원들의 독자성과 함께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성을 연계하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서원문화를 보다

가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연속유산으로서의 9개의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징과 성격을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연계, 통합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안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본 발제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1) 한국의 서원 9개의 연계 투어, (2)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3) 한국의 서원문화축제 개최 등을 제안하여 본다.

· 1안 「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 이는 영남, 호남, 호서 등 지역 대표 서원을 탐방하여 한국의 대표적 서원이 보여주는 독자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답사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였으면 한다. 이 서원 투어는 9개 서원으로 지역성을 상징하며 그 서원이 지니는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 각각 독특한 서원문화를 함께 살피고 비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층은 30명 내외로 9개 서원 유림, 전통문화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 관리자 등 문화유산 관련 인력 등으로 하고, 권역별 3개 서원을 묶어 3개 코스를

- 1코스 :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 2코스 :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 3코스 :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로 정하고 월 1회씩 3개월 연속 운영(코스별 운영, 토요일~일요일)하며, 총 12회로 4개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 좋을 듯하다.

운영은 서원전문가(통합관리단, 전문위원)의 인솔, 특강으로 진행하고, 해당 서원들은 안내해설(전문가, 서원장의)과 안내자로 준비하고, 참가자들은 소감 및 답사 기행문을 제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세부 일정은 서원 소개[안내], 건물, 경관, 건축 특성, 제향, 자료 문서 등 [탐방 체험], 제향인물 및 다양한 역사, 활동 설명[특강, 토론], 사색 체험 등등으로 구성하여 각 서원의 특화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서원의 공통적 성격이 이해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 서원 문화투어와 연계하여 관련 서원의 유림 교류회도 같이 시행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문화 특성과 보존 관리, 계승, 활용의 방향을 협의하고 점검하는 교류모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영남권과 호서·호남권으로 나누어 지역간 교류를 연대·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2안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 이는 한국의 서원 특성을 테마로 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심화, 토론을 진행하는 활용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테마는 세계유산 지정과 관련된 한국의 서원 특성을 보여주는 서원들을 연계하여 탐방하면서 연속 체험하고, 서원별 비교 체험도 가능하도록 기획하면 좋을 것이다. 대체로 테마는 교육 강학, 경관(구곡) 문학, 건축 당호, 제향 의례, 인물사상과 학맥, 도서출판 기능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듯하다.

대상층은 서원 관련 유림이나 제향인물의 후손, 서원관련 연구자, 전통문화 관련 동아리, 서원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6개 테마로 전·후반기 2회씩 12회를 운영하며, 매월 1회 6개 주제 연속으로 1박 2일(대상 서원은 동선과 주제에 따라 재 선택)하도록 한다. 테마별로 특별 강사 및 인솔자를 정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및 테마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프로그램 일정계획은 상세하게 다시 구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획과 구상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테마를 학맥, 건축과 경관, 전통 강학과 교육, 제향과 의례, 장서·책판과 고문서로 정한다면 매월 주제와 해당 서원을

- 1월, 7월 ; 교육 강학 : 도산, 소수, 옥산, 도동, 무성서원 등 연계
- 2월, 8월 ; 경관(구곡) 문학 : 소수, 도산, 도동, 옥산, 병산서원 등 연계
- 3월, 9월 ; 건축 당호 : 옥산, 도동, 필암, 남계, 병산서원 등 연계
- 4월, 10월 ; 제향 의례 : 소수,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 등 연계
- 5월, 11월 ; 인물사상 학맥 : 도산, 옥산, 필암, 도동, 돈암서원 등 연계
- 6월, 12월 ; 도서·출판 : 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 등 연계

등으로 선정하여 일정과 동선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예컨대 ‘書院의 山水와 講會 및 山水實景’ 체험으로 테마를 잡아 도산서원(天光雲影), 옥산서원(風月無邊), 필암서원(廓然大公), 도동서원(秋月寒水), 남계서원(吟諷詠歸), 병산서원(翠屏晚對) 등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서원의 강회, 시회를 함께 열어 그 성격을 이해하고, 서원 경관과 저명인물들의 시문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창작 발표를 겸하는 방안 등등이 모색, 기획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안 「한국 서원문화축제」 개최 : 9개 서원이 교류, 연계하는 한국의 서원문화 축제를 9개 서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한국서원의 특성을 테마로 매년 특화된 주제로 이벤트와 축제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알리고, 계승과 활용, 보존관리를 지속화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매년 주제별로 특화하여 기획하고, 이를 통하여 서원문화를 재조명, 널리 알리고 전국 9개 서원 관련 유생들과 서원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회의 개최

- 서원관련 문화 답사, 기행
- 특화된 서원문화 이벤트 개발
(도산 별시, 강학거점례, 사액봉행제, 제향의례, 상소활동 등)
- 9개 서원 홍보와 전시
- 영상, 예술 공연, 책자 발간

등을 구안하여 조직화하고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되 지역, 혹은 서원별로 교체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4-3. 통합 정보서비스와 해설·홍보자료 간행

세계유산 등재시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등재 이후 곧바로 통합관리단은 통합 해설, 안내서와 함께 브로슈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대한 유산 해설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통합 정보 서비스와 홍보·해설** : 이와 함께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구축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홍보 및 해설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9개 서원 자료를 통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K-seoWon.or.kr)’를 개설하였는데 9개 서원의 역사, 서원의 공간체험, 소통과 교류, 디지털 아카이브, 9개 서원 VR과 로드투어 영상 등을 수록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향후 9개 서원 통합홈페이지에 각 서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점, 개별 서원의 독특성, 등재기준 등을 추가하여 소개하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총 4개국어로 통합홈페이지를 확장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통합관리단에서 발간한 책자와 제작 영상들이 모두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 계획된 3D영상도 업데이트되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세계유산 지정 홍보 표지석도 서원마다 건립되어 연속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홍보영상도 다양하게 제작되어 방송된다. 또 일반인들을 위한 서원 브로슈어(통합, 서원별) 제작되었는데 이들 자료도 각 서원에 비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며 QR 코드로 영상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매년 2회 발간되는 9개 서원의 소식지이자 홍보지인 『서원산책』도 3호가 발간되었고 4호가 편집 중이다. 이를 통하여 9개 서원의 특성과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 **통합 해설서 간행** :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여러 형태의 종합 해설, 안

내서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홍보, 활성화 하고 있다. 종합해설, 안내서로는 예컨대 서원백서 발간을 필두로 서원자료집, 사진집, 안내서 등으로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도면집』, 『한국의 서원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보고서』 등이 그것이고, 곧이어 간행될 교양총서로 9개 서원의 역사, 문화유산 특징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한국의 서원』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 **통합 해설 교육 실시** : 세계유산 소개,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지역의 서원 관리자, 학예사, 해설사들은 해당 서원에 대하여 높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유산의 성격, 연속유산 중에서 해당 서원이 지닌 독특한 성격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연속유산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서원의 홍보와 해설, 활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 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것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합관리단은 9개 서원 전체 및 개별 서원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개 서원의 통일된 해설 자료[교육교재]를 편찬하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문화유산해설사와 서원운영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교육 콘텐츠는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의 등재 가치와 통합 성격에 대한 해설, 서원 간의 연계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그리고 해당 서원의 역사, 제향인물, 건축물, 관련 유물 등으로 이 교육을 토대로 지식과 성격을 공유하여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9개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원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원 소개와 홍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당 서원과 연속유산 특성을 고려한 제향 프로그램, 강학 프로그램, 교류와 유식 프로그램 등을 교육 프로그램과 공유하여도 좋을 것으로 본다.

4-4.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의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보다 체계적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학술연구 진행과 서원관련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가 이루어졌으나, 발제자의 의견으로는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통합관리와 계승, 활용의 차원에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를 보다 다양하게 점검, 정리하여 널리 알리고 자부심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단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서원관련 기록물을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향후 과제이자 통합관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발간한 9개 서원 관련 도록 및 홍보물, 사진 등을 통하여서 알려지듯이 9개 서원과 관련된 기록 자료들을 전자 아카이브로 만들어 연구자나 관련 서원관계자가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 **한국의 서원 학술 연구** : 학술연구는 크게 9개 연속유산의 세계유산 가치와 향후 보존관리에 관련한 연구로 나누어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2) 서원 OUV 보호를 위한 분야별 학술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통합 보존관리와 관련한 지속적 분야별 연구가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9개의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성을

- 9개 서원별 학술회의
- 주제, 분야, 유산 성격별 서원 학술회의

로 나누어 보다 깊이 살피고 결과를 단행본으로 모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9개 서원 각각의 역사와 문화, 지성적 활동, 문화유산과 학맥, 기타 고문서 등 자료 등을 모아 종합안내와 해설서로 정리하는 것이 그 첫째이다. 그리고 한국의 9개 서원이 지닌 공통적 특징을 주제별로 나누어 서원의 경관, 건축, 교육과 성리학, 제향의례, 학맥과 인맥,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 네트워크, 고문서와 전적, 목판과 출판문화 등을 주제로 비교하고 그 특성을 연구 정리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연구서로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 **서원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 다음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은 자료들의 보고로, 아주 다양하고 특별한 형태의 역사성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전해진다. 그리하여 유교문화 자료관, 박물관이라고도 칭해지기도 한다.

특히 9개 서원은 교육과 의례의 거점이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그런 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남아 전하는데 서원운영과 관련된 자료로 학적부와 원임안, 강학 규약, 강학 의례, 그리고 서원의 인적구조, 교육과정, 노비와 전답 등의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고문서, 출입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다양한 고서와 책판, 문집 등 소장전적 목록들이 자료로 남겨져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과거 서원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원의 고문서와 전적, 기문과 현판, 금석문 등등 기록 자료들의 아카이브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미 기존의 연구와 정리를 통하여 다양한 관련 도록 및 홍보물, 사진 자료들이 알려지기도 하고 유물관 자료관에 전시되기도 하였지만, 9개 서원과 관련된 이들 기록 자료들을 전자 아카이브로 만들어 연구자나 관련 서원관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해준 외, 2010,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 이해준, 2011,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 이코모스, 2011, 『한국 서원의 국가브랜드화 방안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국가브랜드위원회
-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5, 『한국의 서원(9개 서원별) 특화프로그램 계획』
- 이해준 외, 2018,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책임)
-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선비정신」, 『서원 -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라』, 국립전주박물관
-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이상해, 2020,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이해준, 2020, 「한국의 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 정책

이 해 준
(공주대 명예교수)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 연속유산 9개 서원의 통합 성격
3. 통합관리 정책 방향
4. 통합관리 정책 과제와 방향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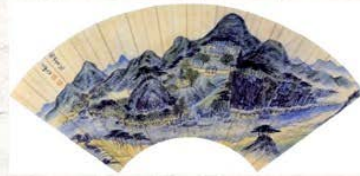
2019년 7월 6일 세계유산 등재

-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
- 성리학 발전, 지역의 교육과 문화, 지성 활동의 구심점
- 한국 정신문화 상징적 유산, ‘지성과 인문학의 전당’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곳

경북 영주 소수서원 (紹修書院, 1543년 건립)
 경남 함양 남계서원 (濫溪書院, 1552년 건립)
 경북 경주 옥산서원 (玉山書院, 1573년 건립)
 경북 안동 도산서원 (陶山書院, 1574년 건립)
 전남 장성 필암서원 (筆巖書院, 1590년 건립)
 대구 달성 도동서원 (道東書院, 1605년 건립)
 경북 안동 병산서원 (屏山書院, 1613년 건립)
 전북 정읍 무성서원 (武城書院, 1615년 건립)
 충남 논산 돈암서원 (遯巖書院, 1634년 건립)



○ 한국 서원문화의 특성, 가치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
 자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
 유교문화가 전승되는 자료관, 박물관



2. 연속유산 9개 서원의 통합성격

- 한국서원의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며,
- 한국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으로서 서원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연속유산으로
-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해 건립된 대표적인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
-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9개의 연속유산
- 그런가하면 건축적으로도 한국 서원의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전통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서원' 연속유산 가치 특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기준, 속성

구 분	Criterion (iii)					criterion (iv)				
	서원 발전	교육 체계	강학 특성	제향 특성	사림 활동	건축 특징	입지	배치	건축 물	경관
소수서원	제도도입	●	●	●	○	건축요소	●	○	●	●
남계서원	설립주체	●	○	●	●	배치방식	●	●	●	○
옥산서원	출판활동	●	○	●	●	누각도입	○	●	●	●
도산서원	학맥형성	○	●	●	●	경관구현	○	●	○	●
필암서원	운영방식	●	○	●	○	평지특성	●	●	○	○
도동서원	교육체계	●	○	●	○	경사특성	●	●	○	●
병산서원	사회활동	○	○	●	●	누각특화	○	○	●	●
무성서원	교화활동	●	○	○	●	입지특화	●	○	○	○
돈암서원	예학심화	●	●	●	○	강당특화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 성격

-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으로 상징적 유산
- 자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 기능을 가진 특별한 공간
- 선비, 유교문화의 자료관·박물관





3. 통합관리 정책 방향

* 세계유산 등재시(2019. 7) 권고사항

-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할 것
-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마련 중

통합 보존관리 정책 방향

1. 통합 보존 관리
2. 통합 계승 활용
3. 통합 정보 서비스와 해설·홍보 자료 간행
4.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4. 통합 관리 정책 과제와 방향

4-1. 통합 보존 관리

연속유산 9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과제
세계유산 등재시 권고; 연속유산 통합 보존관리 계획 마련

통합관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통합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개발 운영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매월 비교 분석 지자체와 공유, 점검
유산관리, 데이터를 구축 통합적 효율적 관리
방문객 무인계수기 설치,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구축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서 데이터 구축

4-2. 통합 계승 활용

· 9개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의 특성, 종합성 활용

- 9개 서원 연계 문화투어
독자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이해하고 공유
서원특성 안내, 탐방 체험, 특강, 토론
-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교육 강학, 경관(구곡) 문학, 건축, 제향 의례,
인물사상과 학맥, 도서출판 기능 등
- 한국의 서원문화축제 개최
9개 서원이 교류, 연계 문화 축제, 9개 서원연합회 주관
한국서원 특성을 테마로 이벤트와 축제 개발
한국의 서원의 계승과 활용, 보존관리

4-3. 통합 정보서비스와 해설·홍보자료 간행

※ 세계유산 등재시 '9개 서원 통합 위한 해설 개발' 권고

· 통합 정보서비스

: 한국의 서원 통합홈페이지(K-seoWon.or.kr)개설

- 9개 서원 역사, 공간체험, 소통과 교류, 디지털 아카이브, VR과 로드투어 영상 등 수록, 홍보
- 세계유산 지정 홍보 표지석 건립 특성 가치 홍보
- 홍보영상 제작 방송
- 서원 브로슈어(통합, 서원별) 제작, QR코드 영상 자료
- 매년 2회 홍보지 『서원산책』 간행.



· 통합 해설서 간행

: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가치와 의미 홍보, 활성화

-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도면집』
- 교양총서 『한국의 서원』 등



· 통합 해설 교육 실시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연속유산적 특성을 이해
- 연속유산 중 해당 서원이 지닌 특성 교육
- 해당 서원의 홍보와 해설, 활용 프로그램에 동참
- 9개 서원 통합 및 개별 서원 해설 교재 개발
- 문화유산해설사와 서원운영자 교육 실시

4-4.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회의

- 9개 서원 통합 주제별 연구, 보존, 활용 연구
- 서원 경관과 건축, 제향의례, 교육과 학맥, 기록문화 등
- 서원 OUV 보호를 위한 분야별 학술연구
- 학술세미나 연구서 발간

- 9개 서원별 학술회의

- 서원의 역사와 문화, 학맥, 지성 활동
- 문화유산, 고문서 자료 등
- 특화, 보존 계승, 활용
- 종합안내와 해설서 제작



- 서원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 유·무형의 다양한 서원문화 유산들
- 서원 고문서 : 제향, 강학, 조직, 운영, 재정
- 기문 현판, 금석문, 고서, 책판 등
- 연구자, 서원관계자, 일반인 활용





감사합니다.

토론 Discussion

최종호_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Choe Jong-Ho_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평가·해석, 신청·등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과 길라잡이를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해준 교수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필원 교수님과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이해준 교수님은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과 방향을 4가지로 제안했습니다(이해준, 2021). “첫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으로 9개 서원의 보존현황을 통합 모니터링, 보존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 관리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관리단에서는 이를 운영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 보고 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9개 서원의 개별 관리와 함께, 이를 통하여 통합보존 관리계획(보존, 정비, 활용)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제안사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한국의 서원’ 등재 결정문의 권고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발표자 또는 관계자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준 교수님의 둘째 제안사항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 계승 활용에 대한 적극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9개 서원의 통합, 연계 가치를 최대한 알리고 홍보하며 계승, 활용하는 노력과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승·활용·교육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제안사항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의 ‘한국의 서원’ 등재 결정문의 권고사항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발표자 또는 관계자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준 교수님의 셋째 제안사항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 정보서비스와 해설·홍보자료 간행이다.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특성과 가치를 정리해 알리는 종합 해설, 안내서와 함께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과 서원 홍보·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유산 소개,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

는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셋째 제안사항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의 ‘한국의 서원’ 등재 결정문의 권고사항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발표자 또는 관계자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준 교수님의 넷째 제안사항인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다. 서원의 문화유산 자료들은 다양하고 특징적인 고문서 자료들과 제향인물 관련 문집과 목판 등의 자료들, 기문 현판 등 금석문 자료 등 독특한 자료들, 그리고 서원과 제향인물 관련 역사적 사건과 관련 유적, 일화, 전설 등이 전해진다. 이들을 모으고 아카이브화 하여 공개하고 자료전시관을 건립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넷째 제안사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발표자 또는 관계자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소의 통합 관리 정책의 방향은 발표자 이해준 교수님이 밝힌 바와 같이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통합 특성을 계승, 홍보, 특화하는 연계 활용 방안이 통합 관리 정책의 방향이라고 토론자도 이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특히 ‘한국의 서원’ 통합 해설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세종시에 자리잡은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와 협치(governance)를 통해 ‘한국의 서원’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개 서원의 특성이 담긴 표준화된 양식의 해설 자료집 편찬하여 각 서원의 문화유산해설사와 운영관리자를 위해 해설 자료집과 함께 해설 지침서를 함께 배포할 수 있다면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걸음 나아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한국의 서원’ 관련 유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련 단체 등이 신헌치(new-governance)를 통해 ‘한국의 서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개 서원의 특성이 담긴 표준화된 양식의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개발하여 각 서원의 문화재교육사와 문화유산해설사, 운영관리자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과 함께 교수 학습 지침서를 함께 배포할 수 있다면 ‘한국의 서원’ 통합 해설 및 교육 실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실행·평가에 유념할 것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서문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 고이치로 마츠우라(2007: 4)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유산교육 또한 21세기 교육의 네 기둥인 지식을 위한 학습과 행동을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구현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 또한 세계유산교육은 다양한 세계 문화들 간의 정체성 확인과 상호 존중과 다양성 속의 통일성, 그리고 연대성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목표로 한다.”는 목표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도 유념하여 ‘한국의 서원’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및 인증 등을 추진하여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의 ‘한국의 서원’ 관련 민관산학연단의 학술연구 DB와 아카이브를 자료를 가칭 ‘한국의 서원’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통해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서원’ 9개소와 유관기관 및 단체가 상호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국의 서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상호교류, 교환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서원박물관을 허브 뮤지엄 또는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그 밖의 ‘한국의 서원’ 8개소 및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한국의 서원’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통합 관리 효과와 효율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 정책의 방향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소와 관련된 유관, 정부와 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관련 단체, 관련 공동체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보장되고 고무될 수 있도록 실험치를 통해 추진·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Policies for Integrated Promotion and Use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박동석_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

Park Dong-Seok_ Chairman,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ies
Strategy Center

초록

문화재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의 책무 중의 하나로 사익 우선주의보다는 공익우선주의를 취하고, 문화국가를 지향하면서 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존과 함께 문화재 활용을 정책의 주요 행정방침으로 보고 정치적·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 가치를 해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란 개념을 설계하여 문화재 활용정책을 수립하였다.

지역 문화재 활용정책의 기본계획은 문화재 가치 창출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문화재를 시대성을 반영한 융·복합적 활용으로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화란 미래상을 제시하고, 핵심전략-정책목표 추진방향-기본강령-성과목표-사회적 기능을 정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시작한 ‘생생문화재’사업이 문화재 알기와 홍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크게 내어 2014년에 향교·서원문화재, 2016년에 문화재 야행, 2017년에 전통산사문화재, 2020년에 고택·종가문화재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향교·서원문화재에 포함되어 있던 세계유산 서원문화재를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다.

향교와 서원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학교생활과 교육목표를 내용적 요건을 근간으로 ‘옛 선비의 교양덕목 6예(藝)’를 현대화하여 ‘신 인재 인성덕목 여섯 쌍기역’으로 꾸며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문학과 선비정신의 현대적 가치를 발현하고 전통문화를 터득하여 계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 홍보를 통합하여 매체별-지역별-단계별로 문화상품 마케팅 기법으로 전파하고 ICT 실감 콘텐츠를 홍보마케팅에 사용한다.

한국의 서원문화재 활용과 통합적 홍보도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서원문화재 지정가치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인문학적 해석에 사회과학적 해석을 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재 활용정책의 최고 성과를 달성하는 길이라 여긴다.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I. 글을 시작하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의 책무 중의 하나이고 문화재 보호 목적은 사익 우선주의보다는 공익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고 기회를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족이 동질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문화국가 이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분야 못지않게 문화 분야에서도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68조(대통령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규정은 국가목적에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헌법」의 문화 관련 규정들을 지원·보충하여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의 지침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가목적의 일차적인 수범자인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가의 최고 집행권자인 대통령에게 문화국가 이념의 성실한 책무를 지우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은 문화영역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바탕 위에서 온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규범으로 문화국가를 지속해서 추구해야 할 사명을 선언하고 있어 국가가 지향하여야 하는 목표와 활동원칙 그리고 방향을 확실히 정해주고 있다. 이에 문화국가를 지향하면서 문화 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가 바로 민족유산뿐만 아니라 인류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류 유산 보호 정책은 「헌법」을 준수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중대한 책무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당성의 법적 근거로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은 문화재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높은 규범성을 지니고 전하여 내려오는 민족

의 전통문화를 승계 전승하는 증거문물로서 보존하되, 무조건 절대적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문화국가 원리를 충실히 실현하면서 국민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향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신장하도록 활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정책에서 문화재보존과 함께 문화재 활용을 정책의 주요 행동방침으로 보고 있는 문화재 활용정책과 통합적 홍보를 위한 대안을 살펴본다.

Ⅱ. 문화재 활용의 개념과 의미

1. 개념적 의미

문화재 활용에 대한 용어적 개념은 사전적 의미, 법률적 의미, 사회적 의미, 유산적 의미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1) 사전적 의미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과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사용의 대전제는 대상물의 능력과 기능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의미이다.

2) 법률적 의미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문화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재법 전반적인 목적이나 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시·공간적으로 제한 없이 효율적 사용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사회적 의미

문화재 활용의 사회적 의미로는 ‘문화재에 내재하여 있는 가치-기능-능력 등을 살려 지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이는 문화재의 본질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재 잠재적 가치와 기능을 새롭게 해석 발견하여 시대성에 맞는 가치를 부여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문화재 소비시장에 내놓는 행위이다.

4) 유산적 의미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승인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설명 센터가 2021년에 세계최초로 대한민국에 생긴다.

이 국제기구는 세계유산 협약 취지에 맞는 세계유산의 해석 원칙과 사례를 연구하는

유네스코 산하 연구기관이다. 해석센터의 주요업무는 세계유산 해석이 원칙과 방법론 연구, 세계유산 관련 자료 수집, 온라인 정보서비스,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

이런 세계유산 해석 분야 기관과 문화유적의 해석과 해설에 관한 이코모스 현장(2008)에 기초하여 생각할 경우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를 해석하여 전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싶다.

① 문화재 해석(解釋, interpretation)의 의미

일반적으로 해석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혹은 그 언어에 의한 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한다(위키백과).

이에 반해 문화재해석은 문화재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상징을 찾는 일로 주관성을 바탕으로 역사적·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과거의 문화재를 해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첫째,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재미있어야 하고, 셋째 정확해야 한다.¹⁾

시간적·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해당 문화재를 좀 더 많이 누리게 하고 그 문화재를 좀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은 그 해당 문화재를 전시대와 동시대 사람들과의 연관 안에 놓음으로써 현재 우리의 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의 눈을 통해서 문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시간적·공간적으로 먼 문화재에 대한 해석은 현재 문명적 담론과 사회적 현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인문학적 해석과 더불어 사회과학적 해석을 더 한다.

문화재의 인문학적 해석은 전통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소수의 전문연구자에 의해 결정된 문화재 가치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문화재를 해석하는 경우이다. 인문학적 해석은 근대주의적 시각으로 일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에 의해 선택된 문어와 문장에 의해 제도화되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된 내용은 근대국가 또는 민족국가에서 ‘공식기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인문학적 해석과 더불어 문화재를 둘러싼 사회학·경제학 등의 학문적 관점에서 다수 관계자가 풀어낸 문화재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대주의적 시각으로 인문학자의 언어가 아닌 사회과학자 언어로 해석 전달하는 사회과학적 해석이 추가로

1) 마이클 인우드(Michael Inwood, 1944~)는 옥스퍼드 철학 시리즈의 목적으로 헤겔 철학에 관한 해석논집을 편집하면서 서문에서 헤겔 같은 철학자를 다룰 때의 조건을 원용하여 문화재해석론에 적용함.

요구되고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② 전달형식

문화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해석을 수행하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해석의 방향 사회적 배경과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람객에서 바르게 전달하여야 한다. 문화재를 해석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① 관람객 자주식, ② 해설자 안내식, ③ 수혜자 체험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람자 자주식은 관람자가 기록자료를 보면서 자가 이동하여 이해하는 기법이다. 여기에는 자주식, 전시식, 책자식, 장치식 등이 있다. 해설자 안내식은 해설가가 인솔 이동 해설, 특정 지점에 자리하여 해설하는 기법으로 거점식, 이동식, 강연식 등이 있다. 수혜자 체험식은 문화재 방문자가 과거 인간의 기본생활인 의·식·주·행·문(衣·食·住·行·文)의 문화상을 생생하게 몸소 겪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활동기법으로 재현식, 학습식, 예술식 등이 있다.

관람자 자주식	자주식	관람로를 따라 지도, 책자, 안내판 등으로 이해하는 방법
	거점식	박물관·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을 둘러보면서 이해하는 방법
	장치식	음성기기 및 동영상 기기를 통해 문화재를 이해하는 방법
해설자 안내식	이동식	관람객을 직접 인솔 문화재를 이동하면서 해설하는 방법
	거점식	일정 경점이나 장소에서 자리하여 해설하는 방법
	강연식	옥내외 특정 장소에서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
수혜자 체험식	재현식	문화재 성립과 당시 사회적 생활상을 경험하는 방법
	학습식	문화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
	예술식	해석된 내용을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전통을 창조하는 방법

2. 문화재 활용의 방향

문화재 활용의 방향은 크게 ① 문화재의 현재화, ② 문화재의 대중화, ③ 문화재의 산업화, ④ 문화재의 세계화란 기본노선을 기울인다.

현재화	. 원형 유지 - 기능회복 - 일상문화화
대중화	. 누림의 생활화 - 스마트 정보화 - 서비스 고도화
산업화	. 문화재 관광 - 문화산업화 - 대표 브랜드화
세계화	. 국외 문화재 활용 - 세계유산 등재 - 국제협력 적극화

3. 문화재 활용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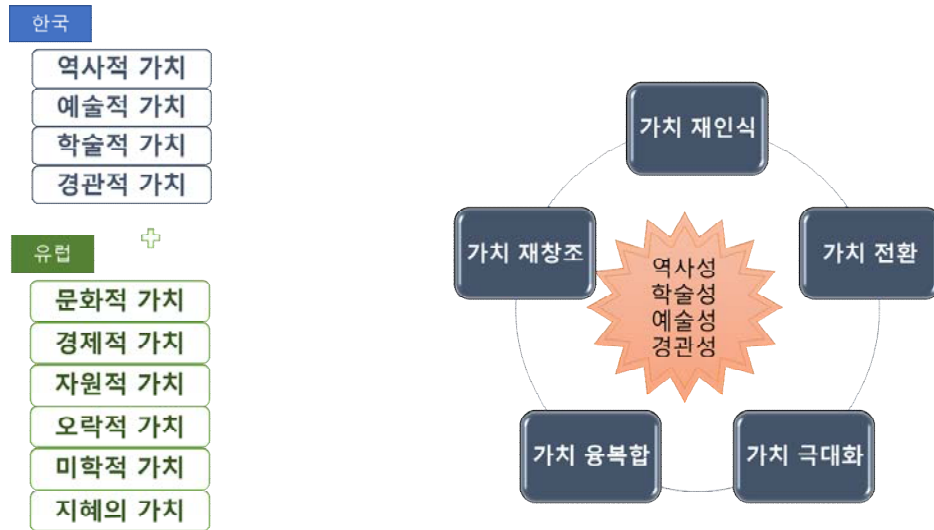
문화재 활용의 근본 방도는 ‘문화재를 말하게 하라’ 방식으로 찾아 기획한다. 문화재를 말하게 하는 방식은 스스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융복합해, 국제협력을 통해 말하게 한다.

문화재를 스스로 말하게 하라	수집보존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하여 말하게 하라	고증복원
문화재와 사람과 통합하여 말하게 하라	향유체험
문화재와 모든 분야를 융복합하여 말하게 하라	학문예술
문화재와 매체를 복합하여 말하게 하라	문화콘텐츠
문화재와 국제협력을 통해 말하게 하라	해외교류

4. 문화재 활용가치의 선순환

문화재 활용가치를 지정가치(역사성-학술성-예술성-경관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문화적-경제적-자원적-오락적-미학적-지혜적)를 재인식 - 전환 - 극대화 - 융합 - 재창조란 경로를 선순환적으로 구조화하고 과정별로 할 일의 정도를 수준을 유지한다.

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정은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통해 인식을 확장하는 일이고 문화재 가치의 전환과정은 새롭게 해석되고 부여된 문화재의 가치로서 문화재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문화재 가치의 극대화 과정은 통합적인 인식체계로 문화재 가치를 바라보아 가장 나은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문화재 가치의 융복합과정은 문화재 가치를 다른 가치나 매체와 결합해 서로 조화시키는 과정의 일이고, 문화재 가치 재창조 과정은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나 가치를 발견하여 새로운 가치 부여하여 새로운 문화상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5. 문화재 활용의 인식 전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관람 위주의 소극적 활용으로 떨어져서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동결적 활용이 었다.

현재의 문화재 활용은 수요자 중심의 체험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궁리하여 문화재 를 일상에서 향유 소비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문화재 관광 상품화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한 전략자원과 지역의 장소형 마케팅화를 위한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태 적 활용이다.

Ⅲ. 문화재 활용정책

1. 문화재 활용의 정책환경

문화재 활용의 정책환경은 정치적·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 그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 기로 한다.

1) 정치적 환경

문화재 활용정책은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설정 목표 에 따라 세부과제로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문화 분권’을 추진한다는 환경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이런 정부의 ‘문화 분권’ 국정철학이 문화재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문화재 정책도 서 을 중심에서 지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분권적 철학을 담고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문화 분권이란 지역문화의 자치이며 지역문화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문화의 생산-소비-분배에 있어서 탈중양화와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정책이다.

2) 사회적 환경

1962년부터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정책은 ‘원형보존’이 행정의 최고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꾸준히 기초를 유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주의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활용에 대한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문화재 분야의 유네스코 활동의 확장으로 국제적 안목이 넓어지면서 2000년도부터 학계 등에서 문화재의 동결적 보존에서 동태적 보존의 논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활용 없는 보존 없고, 보존 없는 활용 없다”라는 생각을 공론화하였다. 이에 행정에서도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관심을 가져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서 문화재 가치를 지정가치인 역사적 가치·학술적 가치·예술적 가치·경관적 가치 중심에서 활용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어 문화재의 사회경제적 가치·유산 교육적 가치·문화 관광적 가치 등 내재적,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공의를 끌어냈다.

유네스코의 국제 규범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문화재가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상품으로 평가되어 문화재를 동결적 보존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동태적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를 변화시키면서 문화재를 국가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재고의 상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주5일제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여가 문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간 문화 소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문화재를 향유 소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책당국도 문화재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문화재를 구경만 하는 관람 중심주의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3) 행정적 환경

문화재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급의문화소비를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법정 행정계획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행(5년 단위)하여 지방정부에 문화재 활용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2002년부터 제1차 계획을 시작하여 2007년 제2차, 2012년 제3차, 2017년 제4차에 걸쳐 시행한 결과 문화재 활용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문화재 활용의 시대에서 문화재경영의 시대로 전환전략을 구상한다.

문화재 활용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행정조직을 강화하였다. 2005년에 문화재활용정책과 신설하여 활용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2009년에 문화재활용국을 신설하여 문화재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2016년에 문화재활용 국내 문화유산교육팀(과 단위)을 신설하여 문화재 활용의 범용성을 문화재 관광과 문화재교육으로 확장하는 조직 구조를 형성하였다.

2. 문화재 활용정책 기본계획

1) 정책의 사명과 미래상

문화재 활용정책은 문화재 가치 창출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문화재를 시대성을 반영한 융·복합적 활용으로 살아 숨 쉬는 문화 공간화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사명과 미래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① 다양하게 구현되는 전통문화, ② 생기 찬 젊은 문화공간, ③ 가까이 있는 문화동산, ④ 편리한 문화놀이터, ⑤ 특화된 콘텐츠와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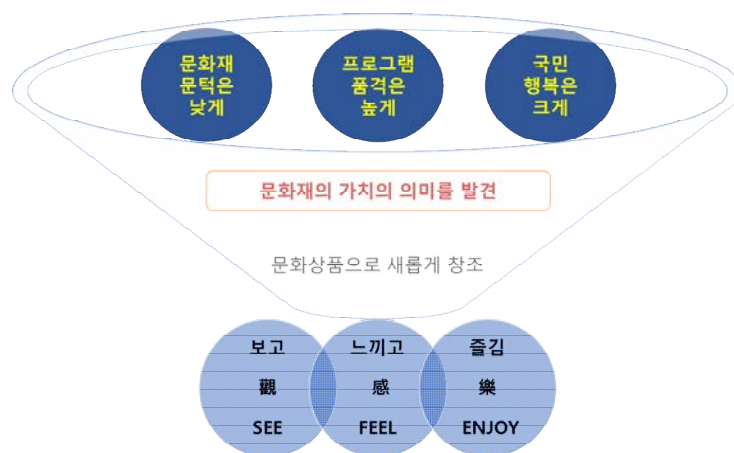
사 명	. 문화재 가치 창출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미래상	. 융·복합적 활용으로 살아 숨 쉬는 문화 공간화	
핵심 전략	. 다양하게 구현되는 전통문화 . 생기 찬 젊은 문화공간 . 가까이 있는 문화동산 . 편리한 문화놀이터 . 특화된 콘텐츠, 개성 있는 프로그램	
정책 목표	. 단기 : 1지자체 1활용사업 . 장기 : 1문화재 1활용사업	
정책 방향	엄격-지루한 문화재	▶ 본질적 가치를 계승하고 흥미-재미-의미가 있는 문화재
	잠기고 텅 빈 문화재	▶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기가 넘치는 문화재
	찾아가기 힘든 문화재	▶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문화재
	불편한 문화재	▶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재
	활용이 유사한 문화재	▶ 킬러 콘텐츠, 슈퍼스타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재

2)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문화재 활용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1지자체 1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세워 문화재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임을 깨닫게 한 후 장기적으로는 1문화재 1문화재활용사업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엄격하고 지루한 문화재를 본질적 가치를 제승하고 흥미-재미-의미가 있는 문화재로 만들고, 잠기고 텅 빈 문화재를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기가 넘치는 문화재로, 찾아가기 힘든 문화재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문화재로, 불편한 문화재를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재로, 활용이 유사한 문화재를 킬러콘텐츠 슈퍼스타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재로 만들고자 한다.

3) 정책 강령



문화재 활용정책을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강령의 기본입장을 ① 문화재 문턱은 낮게, ②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③ 국민 행복은 크게로 정하고,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매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창조해 보고(觀·SEE) - 느끼고(感·FEEL) - 즐김(樂·ENJOY)을 근본 규범으로 세우고 있다.

4) 문화재 활용정책의 목적

문화재 활용의 목적은 ‘활용이 보존의 근본 방도’란 정책이념을 실현하고 문화재를 역사교육장과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 상품화로 만들어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향유 서비스 혜택을 지방으로 확산하여 균등화를 추구하고 관람객 중심의 특화된 문화녹색산업 대표자원으로 자리하게 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책이념 실현	문화재 활용이 보존의 근본 방도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 상품화	지역문화재의 역사교육장
지방확산, 균등화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향유 서비스 혜택
지속 가능한 문화재 향유권 신장	관람객 중심의 특성화
국부창출	문화녹색산업 대표자원으로 최유효적 활용
국가경쟁력 확보	MINE 산업 상승효과 기반환경 조성

5)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3대 목표

문화재 활용정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활용 성과목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계획수립 단계에서 ① 조사-연구-분석-해석 방향, ② 전달방식 및 매체 미디어, ③ 실현 프로그램 목표 설정하여 학습-감성-행동별로 활용성과를 이루려고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다.

① 문화재 활용 학습 목표

문화재 활용의 학습 목표는 무엇을 배우고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하는지 등에 초점을 둔다. 문화재 향유 소비 체험이 완료되었을 때 관람객들에게 해당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한 이유 3가지 이상을 설명하게 하여 그 목표달성 여부를 파악한다.

② 문화재 활용 감성 목표

문화재 활용의 감성 목표는 문화재보호 행동화의 원동력과 감성을 자극하여 관람 동기를 부여하고 지혜를 얻는 영감(靈感)을 착상하는 행동을 취한다. 이는 관람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재를 애호하는 행위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활용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지역사회와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로 여겨 문화기획가와 기관의 문화재 활용 상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인식능력을 배양한다.

③ 문화재 활용 행동목표

문화재 활용의 행동목표는 체험, 전시, 기타에서 얻은 지식정보나 영감을 행동화하는 목표를 제시하여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시민의 자발적 문화재보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활용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를 방문하게 하는 동기를 부추기고 활용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바람직한 문화재 체험문화를 배우기 시작한다.

6)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기능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는 교육-관리-홍보 측면에서 기능을 한다.

① 교육적 측면

교육적 측면은 문화재를 더욱 잘 알고-보다 잘 느끼고-보다 잘 이해할 기회를 얻어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한다.

② 관리적 측면

관리적 측면은 문화재 관람과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의식변화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정신을 일어나게 한다.

③ 홍보적 측면

홍보적 측면은 동태적 문화재 정책을 널리 알리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 확충에 간접적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3. 지역 문화재 활용정책사업 종류

구 분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문화재야행	전통산사 문화재	고택·종가	세계유산
사업 대상	향교·서원· 산사, 고택·종가를 제외한 모든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서원	1.5~2km 지역에 다수의 문화재- 문화시설- 상권이 밀집·집적된 권역	문화재 보유 사찰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고택·종가	세계유산 (서원 제외) 세계 기록유산
시작 연도	2008	2014	2016	2017	2020	2010
추진 방식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국비 보조율	40%	40%	40%	40%	40%	50%
지원 예산 (원)	시범: 5천만 집중: 1억 지속: 2억	시범: 5천만 집중: 1억 지속: 2억	1억~5억 (시범형 2억)	시범육성형3~4 천만 집중육성형 5천~8천만	2억	2억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2008년 ‘생생문화재’란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가 지역을 살리고 돈을 버는 공공재로 자리하고 문화기획가란 신종 직종이 나타나는 등 문화재 알기와 홍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도 수반되어 문화재의 수동적 동결적 보존에서 능동적 동태적 보존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뤄 2014년에 향교·서원문화재, 2016년에 문화재 야행, 2017년에 전통산사문화재, 2020년에 고택·종가문화재로 분리하여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10년에 시작된 세계유산 홍보사업을 명칭 변경하여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향교·서원문화재에 포함되어 있던 세계유산 서원문화재를 추진형식과 내용을 분리하여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다.

1) 향교(鄕校)·서원(書院)문화재 활용덕목

조선 시대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시의 학교생활

과 교육목표를 내용적 요건이 근간을 이룬다. 더불어 ‘옛 선비의 교양덕목 6예(藝)’인 예(禮)·악(樂)·사(射)·어(禦)·서(書)·수(數)를 현대화하여 꿈(희망)·끼(소질)·피(지혜)·깡(용기)·꾼(장인)·꼴(개성) ‘신 인재 인성덕목 여섯 쌍기역’으로 꾸며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문학과 선비정신의 현대적 가치를 발현하고 계승하며, 전통문화예술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향교·서원문화재 연도별 지원 건수 및 예산(국비:억 원)
 지역의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원은 2014년 38건에 국비 12억 원을 지원을 시작으로 8년이 지난 2022년에는 107건(280% 증)에 51억 원(425% 증)으로 증대하여 발전 정도가 괄목함만 하다.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건수	38	71	77	87	95	97	113	116	107
예산	12	21	22	28	31	31	51	51	51

그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문화재를 2022년부터 세계유산활용사업으로 변경 전환하여 5개소에 국비 438,8천 원을 지원한다²⁾.

2) 1. 경북 경주 옥산서원 93,000 천원, 2. 충남 논산 돈암서원 165,000 천원, 3. 전남 장성 필암서원 52,500 천원, 4. 전북 정읍 무성서원 72,500천원, 5. 대구 달성 도동서원, 55,800천원

IV. 문화재활용 통합홍보 마케팅

1. 방식

세계유산 서원을 비롯해 문화재 활용을 문화재 향유 소비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 홍보방식을 보도-홍보-광고 3가지를 변별하여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문화재 소비 세상과 교감하기 위한 보도와 홍보는 같지 않으므로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여도 사회적 관심에 쏠려 외면당하기 쉽다. 따라서 전통은 전통대로, 소통을 현재의 형식으로, 기술은 당대의 최고의 것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방식	항목
보도 press	정보전달, 뉴스, 국민·외신
홍보 communication	소통, 문화재, 국민·국내·국외
광고 commercial	판매, 상품·아이디어·저작권, 사용자, 재화 돈과 귀결

2. 고객관리

문화재 향유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문화상품을 알리기 위해 홍보 매체별-지역별-단계별로 접근성이 우수한 홍보 채널의 다각화로 메시지를 전파한다. 매체는 미디어-언론-입소문-오프라인별로 사전-진행-사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공급한다. 기초작업으로 소비자의 DB화 및 중요한 자료화, 통계자료집 발간 등을 꾸준히 한다.

매 체 별		단 계 별		
구 분	내 용	단계	명칭	내 용
미디어	TV(지상파-케이블), 라디오	1 단계	사전 홍보	다수국민 대상 문화상품인지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이슈성 홍보
언론	기획기사, 인터뷰, 현장취재	2 단계	진행 홍보	방문-구매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현장취재, 인터뷰
입소문	SNS, 블로거, 포털사이트, LMS-DM	3 단계	사후 홍보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한 언론 보도 내용 게시, 온라인 자발적 소문 마케팅
오프라인	전단지, 초청장, 광고지, 현수막, 전광판			

3. 고객유인

문화재 활용정책 홍보는 문화상품 마케팅 기법으로 통합적으로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과 감성마케팅 그리고 착한 소비와 가치 소비를 전제로 신규 문화재 향유 소비자를 유인하고 마니아층을 지속해서 두텁게 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행단체 문화재 활용상품 홍보 책자 배포, SNS 채널과 카드뉴스를 통한 문화재 활용상품 소개 및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는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시 ICT 기술(AR, VR, 홀로그램, 미디어 아트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고객유인 디지털콘텐츠를 확보하여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2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ICT 실감 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향교·서원문화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서원과 충청남도 서천군 문헌서원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8억 원을 지원한다.

V. 글을 마치며

문화재는 이제 과거 사람들의 유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흔적도 미래시간에 유산이 되므로 문화재활용도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흔적과 기억이 지어지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만들어 가는 전통을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est Hobsbawm)과 테런스 레인저(1929~2015)는 '전통의 창조'란 제목의 이 책을 통해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³⁾이란 것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전통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 통합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전통의 감춰진 뒷모습들이 흥미로울 뿐이다.

유럽에서 창조된 전통 또는 만들어진 전통에서 소위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의 만들어짐은 근대 국민성의 형성 과정과 국민주의에 의한 현상으로,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정체성 창조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만들어진 전통으로는 성경과 시온주의, 일본 무술, 스코틀랜드의 킬트 및 타르틴 무늬, 그리고 주요 종교들의 전통 등이 있다.

3) 1983년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과 테런스 레인저가 동명의 책에서 들고나온 개념

통제된 과거는 국민의 통합된 정체성으로 재생산된다. 과거는 공동의 기억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역사보다 큰 역할을 한다. 과거와 문화재가 이와 같은 정치적 생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사적 구성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 만들어진 전통과 과거 그리고 문화재는 정치적 이념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논점에서 한국의 서원문화재 활용정책과 통합적 홍보도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서원문화재 지정가치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여 인문학적 해석과 더불어 사회과학적 해석을 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문화재 활용정책의 최종 성과인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여긴다.



한국의 서원의 통합홍보와 활용정책

생생문화재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연구 문화재아카데미

전통문화재

고택 종가집



박동석(朴東錫)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
예원대-배재대 대학원 겸임교수
gkpds1@hanmail.net
010 - 9016 - 4357

시작하며-『헌법』의 문화재보호 정신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

제6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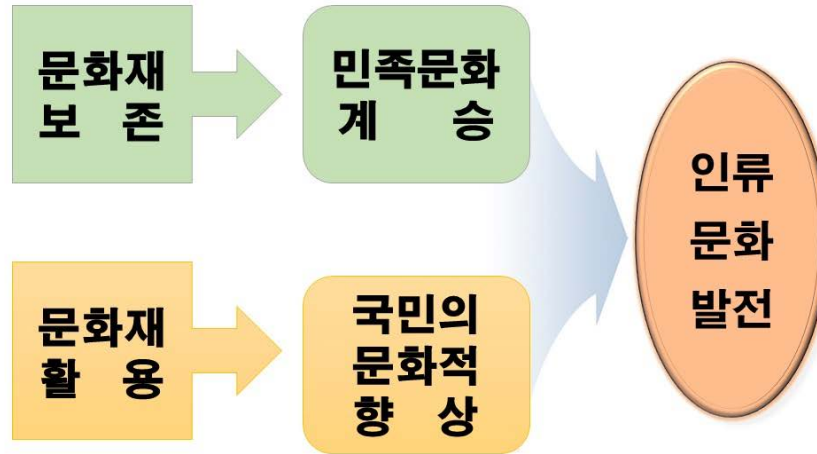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문화국가 지향

문화주의 정책 실현

인류유산 보호

시작하며 - 문화재보호 목적



문화재 활용의 개념



- ❖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
- ❖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설립 승인



문화재 해석(解釋, interpretation)

해석

문화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해석을 수행하는 우리를 위한 것

문화재해석의 방향 사회적 배경과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논의

✓ 3대 조건: 이해, 재미, 정확

인문학적 해석

근대국가 - 민족국가에서 '공식기억' 창출

- 소수의 전문연구자에 의해 결정된 문화재 가치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문화재 해석
- 근대주의적 시각으로 일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의 선택된 문어와 문장에 의해 제도화되어 대중에게 전달

사회과학적 해석

포용적 해석

- 문화재를 둘러싼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다학문적 관점에서 다수 관계자가 풀어낸 문화재 해석
- 현대주의적 시각으로 인문학자의 언어가 아닌 사회과학자 언어로 해석 전달

문화재 전달방식

관람자 자주식	자주식	관람로를 따라 지도, 책자, 안내판 등으로 이해하는 방법
	거점식	박물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을 둘러보면서 이해하는 방법
	장치식	음성기기 및 동영상 기기를 통해 문화재를 이해하는 방법
해설자 안내식	이동식	관람객을 직접 인솔 문화재를 이동하면서 해설하는 방법
	거점식	일정 경점이나 장소에서 자리하여 해설하는 방법
	강연식	옥내외 특정 장소에서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
수혜자 체험식	재현식	문화재 성립과 당시 사회적 생활상을 경험하는 방법
	학습식	문화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
	예술식	해석된 내용을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전통을 창조하는 방법

문화재활용의 인식

과거

- 공급자 중심의 관람위주의 소극적 활용
- 떨어져서 보고, 들어가서는 안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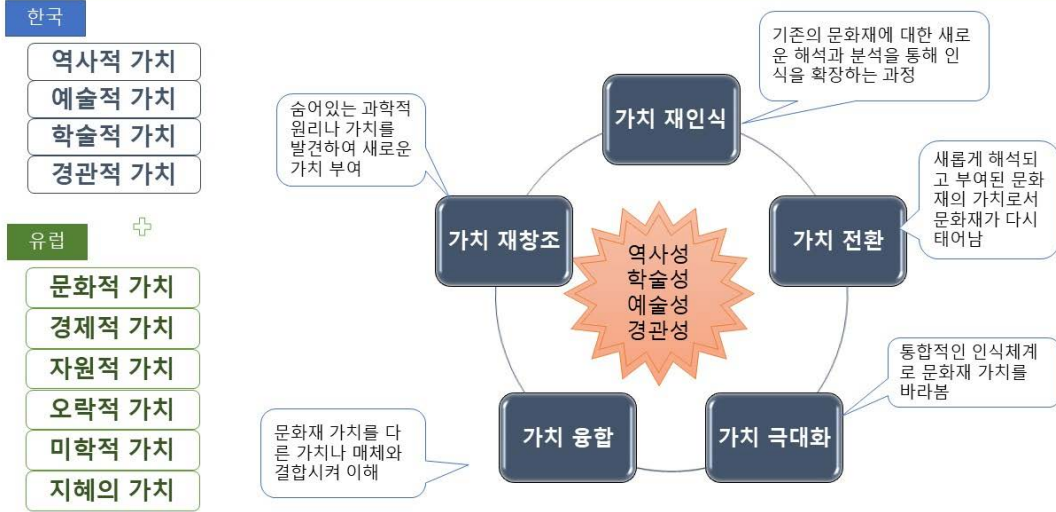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체험 등 적극적 활용 모색
- 향유 프로그램 개발
- 매력적인 문화재관광 상품화
- 지역명소 자원화(장소형 마케팅 브랜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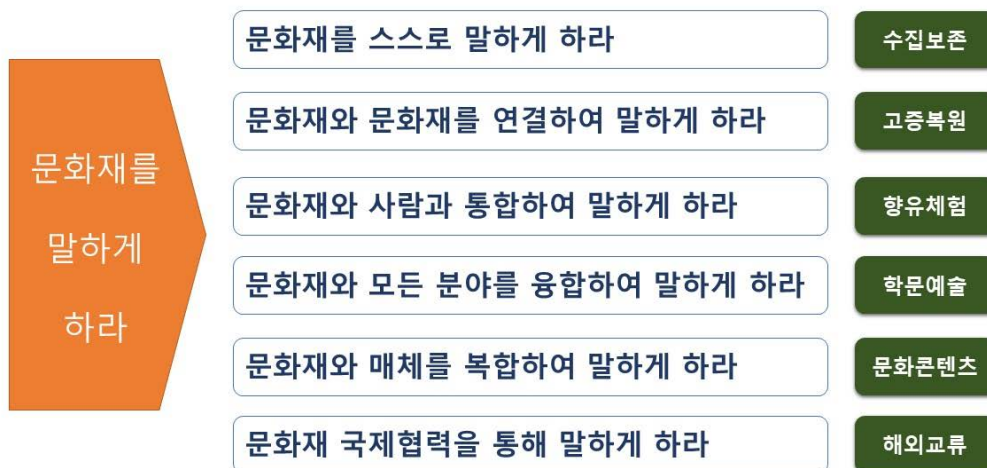
문화재활용 방향(1)



문화재 가치의 활용 선순환



문화재활용 방안



문화재 활용과 정부지원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 ❖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자본
- ❖ 개인의 효용과 생산관계에 영향
- ❖ 관리소홀, 미 사용시 가치 감소
- ❖ 문화를 의미하는 수단(편익, 유·무형 가치) 제공

정부지원

- ❖ 외부효과 크고 집단적 소유의 공공재(문화재)
- ❖ 시장경제에 의존 시 '**공유자원 비극**' 초래
- ❖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과소공급

시장 실패 치료

지속가능, 항구적 보존활용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 필요

문화재활용 정책환경

정치적 환경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설정

- 세부과제로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문화분권**'을 추진함

정부의 '**문화분권**'이란 국정철학이 **문화재정책에도 영향**

- 문화재활용도 서울중심에서 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 설정

문화분권? - 지역문화의 자치이며 지역문화주권의 회복

- 문화의 생산-소비-분배에 있어서 탈 중앙화와 문화다양성을 강조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
-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주인이 되는 것

문화재활용 정책환경

사회적 환경

1962년부터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정책

- ‘원형보존’이 최고라는 행정 핵심가치 꾸준히 지향 및 기조 유지
- 문화재보호주의자들의 의견이 지배적, 문화재 활용 자세 매우 소극적

2000년도부터 학계 등에서 문화재의 동태적 보존 논의 시작

- “활용 없는 보존 없고, 보존 없는 활용 없다”는 생각 공유
- 행정에서 활용정책에 대한 관심

문화재 가치를 지정가치 중심에서 활용적 가치에 주목

- 역사적 가치·학술적 가치·예술적 가치·경관적 가치에서
- 사회경제적 가치·유산교육적 가치·문화관광적 가치 등 내재적, 잠재적 가치발견

문화재활용 정책환경

사회적 환경

세계 각국이 문화재가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평가

- 보존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 변화

여가 문화 확산과 삶의 질 확산 향상으로 생활문화 변화

- 문화재를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남

문화재 향유방식 변화

- 문화재를 구경만 하는 관람중심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중심으로 전환

문화재활용 정책환경

행정적 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행-5년 단위

- 2002년 제1차, 2007년 제2차, 2012년 제3차, 2017년 제4차,
- 문화재 활용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남
- 문화재활용의 시대에서 문화재경영의 시대 추구

활용정책 조직강화

- 2005년 활용정책과 신설 - 활용정책 기반 마련
- 2009년 문화재활용국 신설 - 활용정책 실효성 확보
- 2016년 문화재활용국내 문화유산 교육팀(과단위) 신설

문화재활용정책(1)

사 명

- 문화재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미 래 상

- 융-복합적 활용으로 살아 숨 쉬는 문화 공간화

핵심전략

- 다양하게 구현되는 전통문화
- 생기 찬 젊은 문화공간
- 가까이 있는 문화동산
- 편리한 문화놀이터
- 특화된 콘텐츠, 개성 있는 프로그램

정책목표

- 단기 : 1지자체 1활용사업
- 장기 : 1문화재 1활용사업

문화재활용정책(2)

정책방향

- ❖ 엄격-지루한 문화재 ▶ 본질적 가치를 계승하고 재미와 흥미가 있는 문화재
- ❖ 잠기고 텅 빈 문화재 ▶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기가 넘치는 문화재
- ❖ 찾아가기 힘든 문화재 ▶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문화재
- ❖ 불편한 문화재 ▶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재
- ❖ 활용이 유사한 문화재 ▶ 킬러 콘텐츠, 슈퍼스타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재

문화재활용 정책 지향



문화재활용 목적

‘문화재 활용이 보존의 근본 방도’

지역 문화재의 역사교육장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향유 서비스 혜택

관람객 중심의 특성화

문화녹색산업 대표자원의 최유효적 활용

MISE 산업 상승효과 기반 환경 조성

- 정책이념 실현

- 프로그램형 문화재관광상품화

- 지방 확산, 균등화

- 지속 가능한 문화재향유권 신장

- 국부(國富) 창출

- 국가경쟁력 확보

문화재활용 정책의 성과 3대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활용 목표 개발

계획수립단계

- 조사-연구, 분석-해석 방향
- 전달방식 및 매체 미디어
- 실현 프로그램 목표 설정

문화재보호 행동화의 원동력과 감성을 자극하여
관람동기를 부여하고
지혜를 얻는 영감(靈感)을 착상

무엇을 배우고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하는지 등에 초점

학습목표

행동목표

감성목표

체험 등에서 얻은 지식정보나 영감을
행동화하는 목표를 제시하여
문화재보호 사회적자본 확충

문화재활용 정책의 성과기능

- 교육적 측면** • 문화재를 보다 잘 알고-보다 잘 느끼고-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 관리적 측면** • 관람객에게 문화재관람 바른 자세 교육을 통해 문화재 훼손방지
- 홍보적 측면** • 문화재정책 노력 널리 홍보로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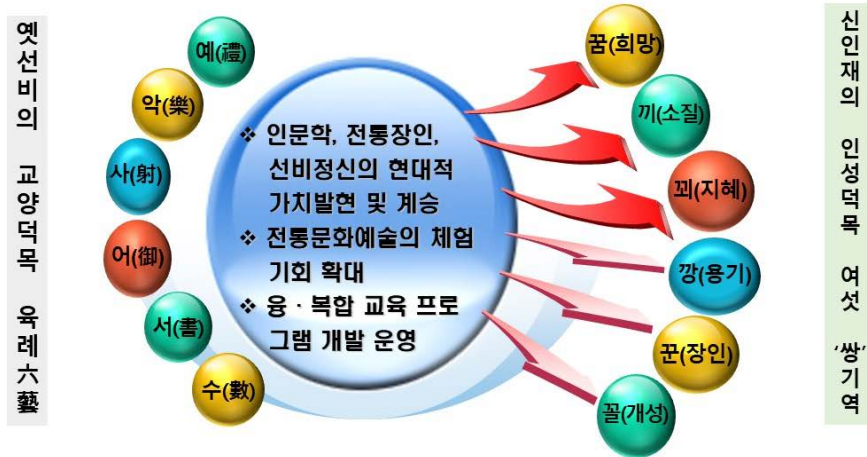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종류

구 분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문화재야행	전통산사 문화재	고택증가	세계유산
사업 대상	향교·서원· 산사, 고택·증가를 제외한 모든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서원	1.5~2km 지역에 다수의 문화재- 문화시설- 상권이 밀집·집적된 권역	문화재 보유 사찰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고택·증가	세계유산 (서원 제외) 세계 기록유산
시작 연도	2008	2014	2016	2017	2020	2010
추진 방식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국비 보조율	40%	40%	40%	40%	40%	50%
지원 예산 (원)	시범: 5천만 집중: 1억 지속: 2억	시범: 5천만 집중: 1억 지속: 2억	1억~5억 (시범형 2억)	시범육성형3~4 천만 집중육성형 5천~8천만	2억	2억

향교(鄕校)·서원(書院)문화재 활용방향

기본내용



향교서원 연도별 지원 건수 및 예산(국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38	71	77	87	95	97	113	116	107
예산(억원)	12	21	22	28	31	31	51	51	51

선정

5개소, 국비 438,883(천원)

2022년부터
세계유산활용
사업으로 전환

1. 경북 경주 옥산서원: 국비 93,000(천원)
2. 충남 논산 돈암서원: 국비 165,000(천원)
3. 전남 장성 필암서원: 국비 52,500(천원)
4. 전북 정읍 무성서원: 국비 72,583(천원)
5. 대구 달성 도동서원: 국비 55,800(천원)

문화재활용 통합홍보 마케팅 - 방법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 방식 3가지

- ❖ **보도press** : 정보전달, 뉴스, 국민·외신
- ❖ **홍보communication** : 소통, 문화재, 국민·국내·국외
- ❖ **광고commercial** : 판매, 상품·아이디어·저작권, 사용자, 재화 돈과 귀결

- 세상의 교감하기 보도와 홍보는 동일하지 않음.
-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여도 사회적 관심에 관심이 쏠림현상으로 참고에 차곡차곡 쌓이기만 함.

전통은 전통대로

소통을 현재의 형식으로

기술은 당대의 최고의 것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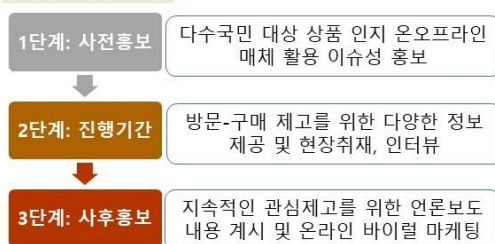
문화재활용 통합홍보 마케팅 - 고객관리

- ❖ 홍보 매체별-지역별-단계별로 접근성이 우수한 채널의 다각화로 메시지 전파
- ❖ 소비자의 DB화 및 빅데이터화, 통계자료집 발간 등

● 매체별 홍보

구분	내 용
미디어	TV(지상파-케이블) 라디오
언론	기획기사, 인터뷰 현장취재
바이럴	SNS, 블로거 포털사이트, LMS-DM
오프라인	전단지, 초청장 리플렛, 현수막, 전광판

● 단계별 홍보



문화재 활용 홍보마케팅 - 고객유인

- 지자체·수행단체 등 유관기관 홍보 책자 '유유자적' 배포(3천부)
- 문화재청 SNS 채널을 통한 홍보(페이스북·블로그 등, 주1회)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SNS 채널(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개설·운영(상시)
- 카드뉴스를 통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소개 및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활용사업 홍보 책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SNS 채널(인스타그램)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SNS 채널 및 홍보 알림톡(카카오톡)



문화재 활용 통합홍보 마케팅 - 고객유인

ICT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22년 신규)

2022년도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 시

- ICT 기술(AR, VR,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실시
- * '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ICT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향교-서원 2건 선정(국비 1.8억원)



광주 광산구 월봉서원



충남 서천군 문헌서원

마치며-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



영국의 에릭 홉스봄
(Eric Hobsbawm)
(1917~2012)



영국 테런스 레인저
(1929~2015)

'전통의 창조'

"대부분의 전통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최근에 형성된 것"

국민통합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전통의 감춰진 뒷모습들이 흥미로울 뿐임.

창조된 전통
만들어진 전통

전통

19C말~20C초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

전통을 "만든다"

VS

전통이 "시작된다"

전통이 만들어짐

- 근대 국민성의 형성 과정과 국민주의에 의한 현상
-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정체성 창조의 일환으로써 이루어.

예) 성경과 시온주의, 일본 무술, 스코틀랜드의 킬트 및 타르탄 무늬, 주요 종교의 전통

감사합니다

토론 Discussion

류호철_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Ryu Hocheol_ Professor, 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에 일찍이 고등교육이 체계화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세계유산, 서원(書院)에 관한 학술포럼이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을 넘어 등재 후에도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세계유산 제도를 도입한 의도에 비추어서도 의미가 큰 일일 것입니다.

박동석 선생님의 발표는 문화재 활용에 관해 일별한 후 그 토대 위에서 서원 홍보와 활용 정책에 관해 살펴본 것으로, 문화재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세계유산 서원 활용의 위치와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해석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입니다. 이에 관해 토론자로서 몇 가지 여쭙보고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화재 활용과 관광 간 관계에 관한 선생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발표문에 ‘문화재 관광, 문화재 관광 상품화’ 등의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화재의 가치에 비추어 이 둘은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문화유산 교육 방향과 방법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 교육을 역사교육의 한 분야로, 또는 그 일부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교육 소재로서 주입식 교육, 지식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셋째로, 문화재이자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을 보존·활용하는 데 대학생 등 청년층의 참여를 늘려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서원을 대학 교육과 연계하여 고등교육이 펼쳐지던 조선 시대 사립대학으로서의 문화적 맥락을 살리면서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는 그 그것과 익숙해지며 그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때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보존과 활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학 교육과의 연계, 또는 보존·활용에 대학생 참여 증진은 문화재와 그 활

용을 홍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일반론적인 내용에 큰 비중을 두고 발표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원(書院)’ 활용 방법과 홍보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술포럼을 포함하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기울이는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서원이 문화재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 높여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원과 서원 문화를 친근하게 경험하여 그 본질적 가치를 두루 누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서원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 인류문화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더욱 크게 역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서원’ 관리 · 홍보 · 활용의 현황과 대책
-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

Managing, Promoting and Using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Current State and Measures

- With Special Reference to Sosu-seowon -



금창현_ 경북 영주시 문화예술과 팀장
Geum Changheon_ Yeongju City

초록

1. 들어가는 말

지난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영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그 이유는 영주시를 비롯한 전국 8개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회의 결과 ‘한국의 서원’은 7월6일에 심의가 완료되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서원의 가치와 현황

소수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은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과, 조선 시대 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전체유산과 각 구성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즉 각각의 유산이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제향(祭享), 강학(講學), 유식(遊息)의 공간과 주변경관이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서원은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의 명신이며 대학자인 회헌 안향(安珦)선생을 추모하고 그 분의 얼을 계승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곳으로 처음에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하였으며 후에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라 하였다.

소수서원은 그 역사만큼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문화재급 유물도 많아 지금도 끊임없이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이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므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과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보존과 관리에 대한 요건

소수서원 유산구역내의 토지는 대부분이 서원과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는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즉 서원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문화재청의 지도아래 문화재보호법과 조례를 기반

으로 소수서원과 유림 및 주민, 중앙정부와 영주시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유산 주변의 개발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5년마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주시에서도 상시점검과 소방훈련과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소수서원 보존상태 및 대책

소수서원의 유산구역안인 경내에는 주요구성요소들이 집중되어 이는 지정문화재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정문화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과 완충구역의 대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지형 보존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1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유산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수서원은 서원의 원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화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재감시설비와 CCTV, 소화전과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의 소방서와도 긴밀한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현지 조치 및 예산이 필요할 시 국비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5. 홍보와 활용 대책

소수서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30만명 이상 찾아오는 유명관광지이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소수서원의 홍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시청과 소수서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서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원 안내 팸플렛과 각종 홍보물을 구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서원’ 통합 팸플렛 및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디지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원의 활용사업으로는 서원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위하여 사마선비과정, 서원스테이, 경독(經讀), 예절교육, 인성교육, 선비유림생활체험, 유림 및 일반시민을 위한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원이 과거의 공간만이 아닌 현재에 살아 숨 쉬는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의 서원’ 관리·홍보·활용의 현황과 대책

-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지난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영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그 이유는 영주시를 비롯한 전국 8개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8건의 유산에 대한 심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회의 결과 ‘한국의 서원’은 7월6일에 심의가 완료되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영주시는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부석사와 더불어 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는 도시가 되었다. 등재된 9개의 서원은 영주의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함양의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이다.

본 글에서는 서원의 보존관리와 홍보 및 활용에 대해서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서원의 가치와 현황

소수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은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과, 조선 시대 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전체유산과 각 구성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즉 각각의 유산이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제향(祭享), 강학(講學), 유식(遊息)의 공간과 주변경관이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서원은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의 명신이며 대학자인 회헌 안향(安珦)선생을 추모하고 그분의 얼을 계승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 사묘를 건립하고 영정을 봉안하고 강학당을 세워 강학의 중심으로 삼도록 했으니 이것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며 후에 사액을 받아 소

수서원이라 하였다.

이 서원에 봉안(奉安)된 회헌 안향 선생은 우리나라에 유학을 도입한 선구자였다. 선생이 활약한 13세기 후반 충렬왕(忠烈王), 충선왕(忠宣王) 당시의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駙馬國)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정치는 기강을 잡지 못하고 국민의 풍속은 무속(巫俗)에 찌들어 있었다. 선생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자학(朱子學)을 도입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 행정, 문화, 교육면에서 유교 교리에 따른 많은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

그 후 명종 4년(1549)에 풍기군수 퇴계 이황이 서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국가적인 뒷받침을 위해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요청하여 그 이듬해인 1550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친필 현판과 함께 토지(土地), 서책(書冊), 노비(奴婢) 등을 하사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그 후 소수서원은 크게 발전하여 이 나라의 중요 교육연구기관으로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고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소수서원은 그 역사만큼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문화재급 유물도 많아 지금도 끊임없이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우선 소수서원 자체가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향초상(국보 제111호), 숙수사지 당간지주 보물(보물 제59호), 대성지성문성왕전좌도(보물 제485호), 주세붕 초상(보물 제717호), 문성공묘(보물 제1402호), 강학당(보물 제1403호), 서충대친림연회도(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명종어필 소수서원 현판(지방유형문화재 제330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지방유형문화재 제331호) 등이 있다.

말게 흐르는 죽계천 건너에는 “백운동(白雲洞)”이라는 흰색글씨와 붉은 색이 칠해진 “경(敬)”자 바위가 있는데 이는 모두 주세붕이 손수 써서 새긴 글씨이다. 주세붕의 문집인 무릉잡고에는 석벽에 경(敬)자를 새기려고 하니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이 괴이하게 여긴다고 하고, 또 마땅히 마음속으로 공경할 것이지 굳이 돌에 새길 필요는 없다. 라고 하여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晦翁)의 말을 찾게 되어 여러 벗에게 보이고 ‘선천(先天)의 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자만 안된단 말인가? 경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不敬)이다.’ 하였다. 이는 실로 회헌(晦軒)이 회옹(晦翁)에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廟院)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할지라도 이 각석(刻石)이 마멸되지 않아 1천년 후에 이를 일러 경석(敬石)이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라는 구절이 있어 경자 바위가 새겨진 유래를 알 수 있다.

서원 내에는 명종 임금이 직접 써서 내렸다는 「소수서원(紹修書院)」 현판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0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지 6년만인 명종4년(1549)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취임하여 이 곳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요청한바 이듬해인 1550년에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에게 명하여 이름을 짓게 하고 사액을 내려주게 되었다. 신광한은 서원의 이름을 소

수서원이라고 한 까닭을 “학문의 도가 쇠퇴하여 강구되지 못한지 오래이고, 배우고 그 이치를 강명(講明)하지 않으면 몸을 닦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경(敬)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의(義)로써 밖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서원이름을 소수(紹修)라고 한 까닭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 白雲洞紹修書院 臣竊惟爲學之道廢而不講久矣 學而不講明其理 不知修己之爲何事 既不能敬而直之於內 況能義以方之於外乎 此紹修之所以名書院也 -

이에 임금께서 손수 ‘소수서원(紹修書院)’의 글자를 써서 현판에 새겨 하사하시면서 노비(奴婢), 전답(田畓), 서책(書冊)을 함께 내려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다.

근래에는 영정을 보관하기 위해 영정각(影幀閣)을 지어 회헌영정을 비롯한 주자, 주세붕, 이황, 이원익, 허목 등의 영정을 보관하고 있으며, 서원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사료관(史料館)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옛 선비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강학과정으로 사마선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영주 선비정신을 구현한 선비촌을 조성하여 각종 체험을 하게 하여 옛 선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소수박물관을 건립하여 서원 관련 유물과 영주지역의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무형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이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므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과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수서원 소재 문화재 및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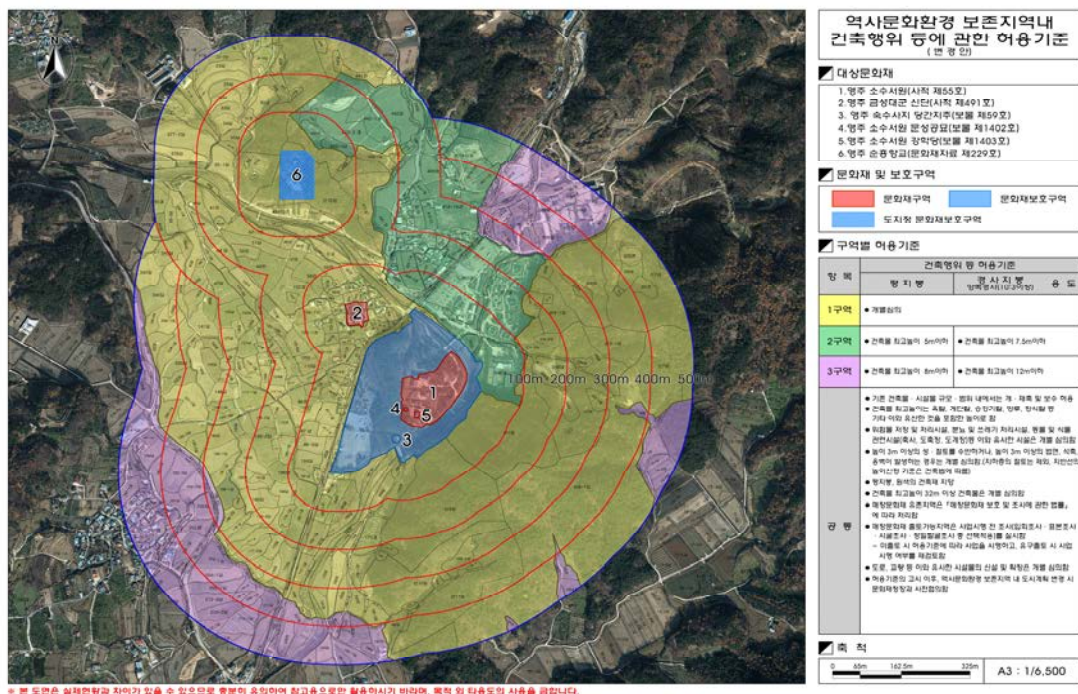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비 고
사적 제55호	소수서원(紹修書院)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 강학당(講學堂)	강학공간
비지정	지락재, 학구재, 일신재, 직방재, 장서각	강학공간
보물 제1402호	문성공묘(文成公廟)	제향공간
비지정	전사청(典祀廳)	제향공간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幢竿支柱)	유식공간
비지정	경자바위, 소나무 군락, 경림정, 취한대, 광풍대	유식공간
국보 제111호	안향초상	기타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기타
보물 제717호	주세붕 초상	기타
지유 제238호	서충대친림연회도	기타
지유 제330호	명종어필 소수서원 현판	기타
지유 제331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	기타
비지정	고직사(庫直舍)	관리사
비지정	영정각(影幀閣)	관람공간
비지정	사료관(史料館)	관람공간

3. 보존과 관리에 대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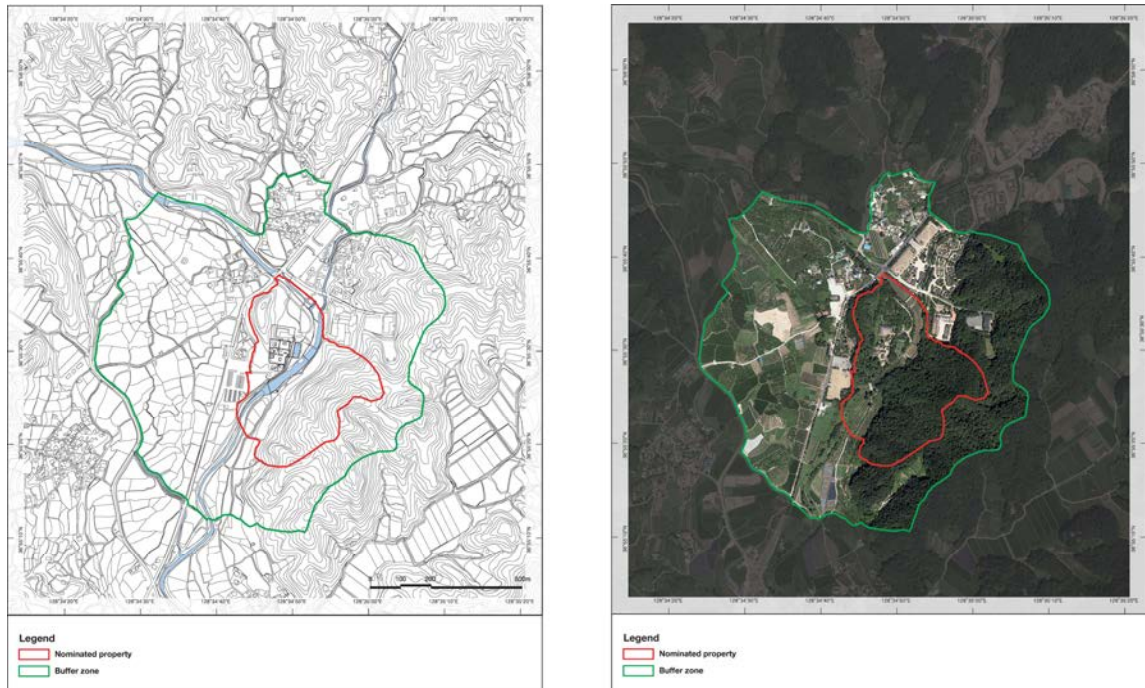
소수서원 유산구역내의 토지는 대부분이 서원과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는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즉 서원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문화재청의 지도아래 문화재보호법과 조례를 기반으로 소수서원과 유림 및 주민, 중앙정부와 영주시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유산 주변의 개발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소수서원 유림에서도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으며 주변의 자연 경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5년마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주시에서도 상시점검과 소방훈련과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소수서원 현상변경 구역도



소수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4. 소수서원 보존상태

소수서원의 유산구역안인 경내에는 주요구성요소들이 집중되어 이는 지정문화재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정문화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과 완충구역의 대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지형 보존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1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유산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수서원의 건축물 보존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5. 보존관리 대책

소수서원은 서원의 원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대부분은 국공유지이며 서원 소유로 난개발에 휘말릴 소지는 거의 없다.

소수서원은 현재까지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와 영주시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화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조건축물이 많은 서원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감시설비와

CCTV, 소화전과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근의 소방서와도 긴밀한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영주소방서와 주기적으로 합동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한 건축물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현지 조치 및 대규모 예산투입의 경우 국비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6. 홍보와 활용 대책

소수서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30만명 이상 찾아오는 유명관광지이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소수서원의 홍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시청과 소수서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서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원 안내 팸플릿과 각종 홍보물을 구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서원’ 통합 팸플릿 및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디지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원의 활용사업으로는 서원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위하여 사마선비과정, 서원스태이, 경독(經讀), 예절교육, 인성교육, 선비유림생활체험, 유림 및 일반시민을 위한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원이 과거의 공간만이 아닌 현재에 살아 숨 쉬는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의 서원 관리 홍보 활용의 현황과 대책 -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

영주시청 금창헌

소수서원 현황

- 2019년 세계유산 등재
- 1543년(조선 중종 38)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세움
-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 문화유산 현황 : 국보 1점, 사적 1점, 보물 5점, 도 유형문화재 3점
- 배향인물 :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 서원의 배치가 강학공간, 배향공간, 유식공간 등이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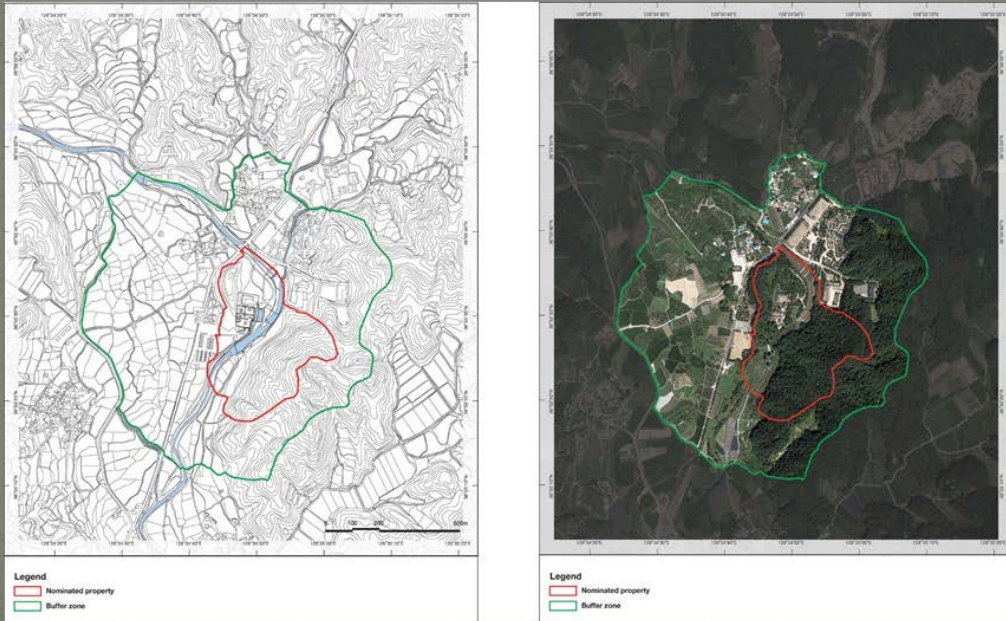
소수서원 문화재 및 건축물 현황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사적	소수서원 紹修書院	최초의 사액서원
국보	안향초상 安向肖像	
보물	강학당 講學堂	강학공간
보물	문성공묘 文成公廟	제향공간
보물	숙수사지 당간지주 宿水寺址 幢竿支柱	사찰의 흔적
보물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大成至聖文宣王展座圖	
보물	주세붕 초상 周世鵬 肖像	
지방유형문화재	서충대친림연회도 瑞菴臺親臨宴會圖	
지방유형문화재	명종어필 소수서원 현판 明宗御筆 紹修書院 懸板	
지방유형문화재	소수서원 소장 판목 紹修書院 所藏板木	
비지정	지락재 至樂齋, 학구재 學究齋, 일신재 日新齋, 직방재 直放齋, 장서각 藏書閣	강학공간
비지정	전사청 典祀廳	제향공간
비지정	경림정 景濂亭, 경자바위, 취한대 翠寒臺, 광풍대 光風臺	유식공간
기타	고직사 庫直舍, 영정각 影幀閣, 사료관 史料館	

소수서원 무형유산

- 향사 享祀 : 서원의 양대 기능중의 하나인 존현 尊賢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에 문성공묘에서 제례를 올림
- 도동곡 道東曲 - 소수서원의 제례중에 부르는 경기체가 양식의 음악으로 성리학이 우리나라로 전래되는 과정을 노래로 표한 것으로 서원의 창건자인 주세붕이 지음

유산구역 현황



보존과 관리에 대한 요건

- 경내지내 토지 소유대부분이 서원과 국·공유지임.
 - 문화재보호법과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법률적으로보호 관리 됨
 - 경내 토지는문화재보호구역과역사환경 보존지역으로구성되어 구역의 중요도에 따라 각각행위제한
- 서원의뛰어난보편적 가치는문화재청의지도이래 문화재보호법과 조례를기반으로 소수서원과유림, 영주시 관제자들의 다양한노력에 의해 보존 관리됨
- 특히 소수서원 유림은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있으며 매년 향사도봉행하고있음.
- 영주시에서도 상시점검과소방훈련과화재예방시스템 구축등 보존관리 활동
- 건축물 보존상태는 양호하나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하여 필요한 조치 실행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활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표 2)

1. 영주 소수서원(사적 제55호)
 2. 영주 읍성대문 신전(사적 제491호)
 3. 영주 옥수사지 일간지루(보물 제59호)
 4. 영주 소수서원 문정공묘(보물 제1402호)
 5. 영주 소수서원 광학당(보물 제1403호)
 6. 영주 순흥암굴(문화재자료 제229호)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구역별 이용기준

항 목	건축형의 평 이용기준		
	형 지 방	결 사 지 형 일률형사(10:3이상)	용 도
1구역	● 가용 60㎡		
2구역	● 건축용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용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용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용 최고높이 12m이하	

- [illegible]

0 45m 162.5m 325m A3 : 1/6,500

홍보 및 활용대책

● 홍보

-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안내 및 홍보
- 각종 홍보물이나 팸플렛, 책자 등을 통한 홍보
- 한국의 서원 통한 팸플렛 및 가이드북 제공
- 향후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예정

● 활용사업

- 서원스태이, 사마선비과정, 예절교육, 인성교육, 유림생활 체험
- 유림 및 일반시민을 위한 연수 과정 운영
-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과거의 죽은 공간이 아닌 현재의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토론 Discussion

황상훈_ 기분좋은큐엑스(주) 대표

Hwang Sang hoon_ CEO, GivenzoneQX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도 세계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축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을 공모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핵심자산이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던 그 열정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의미와 차이를 국민들은 별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 뛰었던 노력의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세계유산 활용에 주력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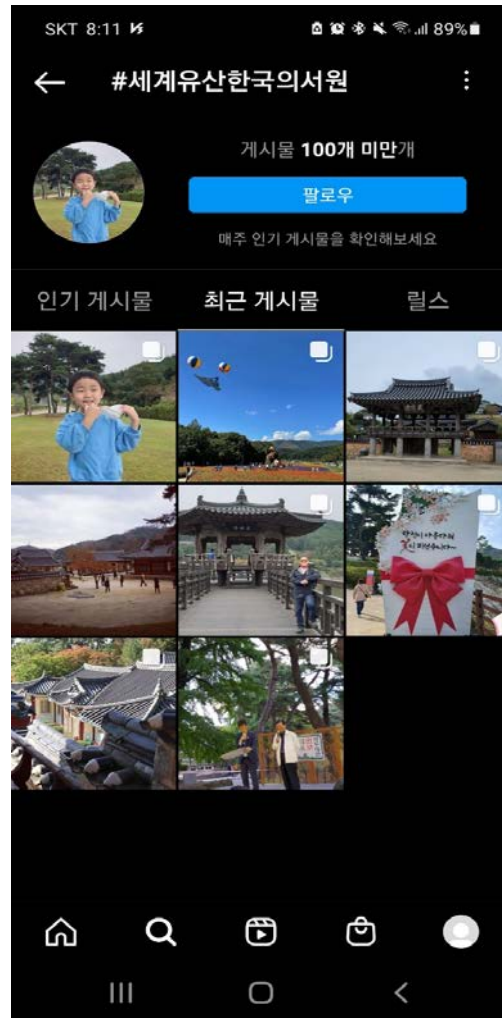
SNS를 1도 모르는 한국의 서원

대표적인 글로벌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세계유산 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등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코모스가 주최하는 본 포럼에 대한 정보와 세계유산 청소년 지킴이 단체의 계정이 전부였다. 인스타그램은 해당 게시물이 총 8건 뿐이었다. 게시물들도 방문객들이 자신의 계정에 올린 콘텐츠들이었고, 서원들이 올린 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당연한 결과다. 한국의 서원들은 SNS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된 서원중에 SNS계정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곳은 돈암서원 한 곳밖에 없다. 현대의 대표적인 소통채널로 자리 잡은 SNS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외국인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세계인을 만나는 일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 들마다의 개별 SNS와 외국어로 된 한국의 서원 통합 SNS가 필요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계유산에 대한 글로벌 소통이 필요하다.

한국의 서원은 지역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일반 서원과는 달리 세계유산으로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국적 언어와 온라인 매체로 세계와 공감하는 것은 기본이다.

언어와 채널을 갖추었다면, 두 번째는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이라도 교감을 위한 변주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대에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 동시대성에 대한 서원의 탐구도 필요하다. 서원의 현대적 의미를 찾는 중요한 일이다.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서원은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한국적 아카데미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경치 좋은 곳에 옛날 한옥이 몇 채 있다.

“아 옛날에 여기가 공부하던 곳이야? 옛날 건물들이 많네. 경치도 좋네.” 서원에 대해 잘 모르는 현대인들이 서원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으며 느끼는 소감의 대부분이다. 서원이 위치한 장소와 주변의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 서원 고건축 외형과 공간이 뿜어내는 전통적 정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일상 탈출의 감흥을 얻는다. 하지만, 이게 끝이다. 보존된 공간으로 박제되어 남아있을 뿐, 학문을 강(講)하고 세상을 논(論)하며 지역과 교(交)하는 서원은 찾을 수가 없다.

한국의 서원은 과거의 공간과 방식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현재의 내용은 접하기 어렵다. 과거완료형에 멈추어 있다. 동시대성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현재진행형의 살아있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

젊은 사람이 없다.

요즘은 “옛날엔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등으로 얘기하면 라떼가 되고 꼰대가 된다. 전통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 모두 라떼이자 꼰대다. 옛것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기꺼이 감내한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박제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젊은 사람을 채용하자. 세계유산 활용 일이던, 서원 업무일이던 젊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 돌아가는 촉과 감각이 살아난다. SNS도 젊은 사람이 잘 다룬다. 외판 섬으로 남지 않으려면 젊은 사람이 일하고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그동안 문화재활용을 통해 서원에 방문하는 연령층을 살펴보면 청소년층과 장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배려도 없다. 고립될 것인지 연결할 것인지 선택과 실천이 필요하다.

젓밥에 관심이 없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경주했는가. 판은 깔렸고 제사상은 차려졌는데, 정작 젓밥에는 관심이 없는 이상한 현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유산을 고차원적으로 활용해서 문화관광,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젓밥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시도하기보다 일차원의 단편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밥도 먹기 전에 헛배가 부른 것처럼 세계유산이 있는 도시라는 정도로 만족하는 듯하다.

세계유산이 있는 지자체는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세계적 수준, 세

계적 메시지를 담은 세계적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이 상시적으로 관여하지 않고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계유산과 지역의 문화유산,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서원, 동양의 아카데미아를 꿈꾼다!

서원이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현재적 의미의 공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로서의 성리학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 기여하는 성리학을 서원에서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행복을 좇는 동시대인들을 위로하고, 철학으로서 지표가 되는 현대적 성리학을 서원이 자력으로 발전시키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저명인사 초청해서 특강하는 정도, 교육프로그램 몇 가지 돌리는 정도는 호홉기 잠깐 붙였을 뿐인 것이다.

한국의 서원이 성리학과 이 시대를 연구, 대화, 토론하며 담론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며 진화하는 꿈을 꾀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신세대와 구세대가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접하는 교류의 장, 문화의 충돌지이자 융합지로서 한국의 서원이 21세기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성과와 과제

Achievements and Task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박성진_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장

Park Seongjin_ Secretary General, Conservation &
Management Foundation of Seowon

초록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년의 시간을 거쳐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인이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차 등재추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차 등재추진 과정을 거치며 2019년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추진준비위원회→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서원관리단)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원관리단은 등재추진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서원’ OUV 발굴을 위해 다수의 국내·국제학술회의와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그간에 학술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를 도출하는 한편, 그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들에게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학술연구들이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 조치라는 OUV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국의 서원’의 OUV를 발굴하고 인정받은 경험을 기초로 이제는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유산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와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공유하여야만 한다.

더불어 서원관리단은 등재 이후에도 ‘한국의 서원’통합 홍보와 보존관리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등재 기념행사 개최, 통합 교육 시행, 통합 홈페이지 운영, 통합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정기보고 DB 구축, 무인계수기 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세계유산 신청 당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의 서원관리단은 재단 기능 확대를 위해 (가칭)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이하 유산관리센터)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재단 정관의 주 내용이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등재 이후 연속유산 통합관리에 부합된 목적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9개 서원 통합관리기구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 5Cs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는 연속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방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성과와 과제¹⁾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500년이란 긴 역사를 견디며 온전하게 계승, 보존되어 온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인이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무려 9년이 넘는 여정을 함께했다. 2011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고, 2015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6년 4월 이코모스 반려 평가에 의해 세계유산 등재신청 자진 철회라는 고비를 겪었다. 이후 2016년 8~9월 등재신청 재추진(이사회→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과정과 2016년 10월~2017년 2월 이코모스(ICOMOS) 자문 미션을 거쳐 2018년 1월 두 번째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이라는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²⁾에서 개최된 국내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 회의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전문가로 참여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서원은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의례·교육·학술·학파 등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유산임 이야기하며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제안하였다. 이후 ‘한국의 서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³⁾ 이배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2010년 구성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⁴⁾를 통해 등재절차 및 추진 주체 구성, 잠정목록 등록, 등재 작업 관련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하고 준비해나갔다.

1) 필자(박성진)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2010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지금까지 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2008.3.~2013.2.)

3)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2009.1.~2013.3.)

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는 전문가 및 관련 정부기관, 9개 서원의 유기적인 팀워크로 구성되었고 관련 회의(6회)를 진행하였다.

1.2. 세계유산 등재추진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먼저 등재신청서 제출 이전(최소 1년)에 잠정목록을 먼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예비목록으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잠정목록에 등록된다. 이에 등재추진위원회는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을 위한 한국서원의 가치 재발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등재추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⁵⁾들을 통해,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운영된 교육기관으로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정형화했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제향의례를 중심으로 서원의 무형적 가치를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서원의 가치를 재해석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로 잠정목록 신청서를 작성했고 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외교부를 통해 2011년 9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제출하였고 같은해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한국의 서원(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이 등록되었다.

- 1차 등재추진(2011년-2016년)

잠정목록 등록 이후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후속 작업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 잠정목록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에 대한 사항들로 첫째, 문화재청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재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추진단 발족. 둘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셋째, 등재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회의 이후 등재신청서 작성, 예산 수급을 포함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들이 마련되었으며, 등재추진위원회를 넘어 ‘한국의서원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는 실질적인 기구가 출범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이 속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⁶⁾하였다. 이를 통해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적인 협업체계가 갖추어졌고 2012년 4월 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사무국이 운영되었다.

이후 등재추진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등의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동시에 등재대상 9개 서원의 도면 및 사진 등의 기초자료들도 함께 확보해왔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 ‘한국의 서원’의 OUV에 중점을 두고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청서 작업

5)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정책과 방향(이배용 위원장), 서원건축(이상해 교수, 이왕기 교수), 서원역사(정만조 교수), 향토서원(이해준 교수), 서원지리(김덕현 교수), 세계유산(이해은 교수), 서원운영(박성진 서원연합회 사무이사)

6) MOU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문화재로서 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에 필요한 9개 서원의 도면사진집, 서원총서, 도록 3종, 홍보영상들과 같은 작업들도 함께 병행하였다.



그림1. 추진단 발족과 협약(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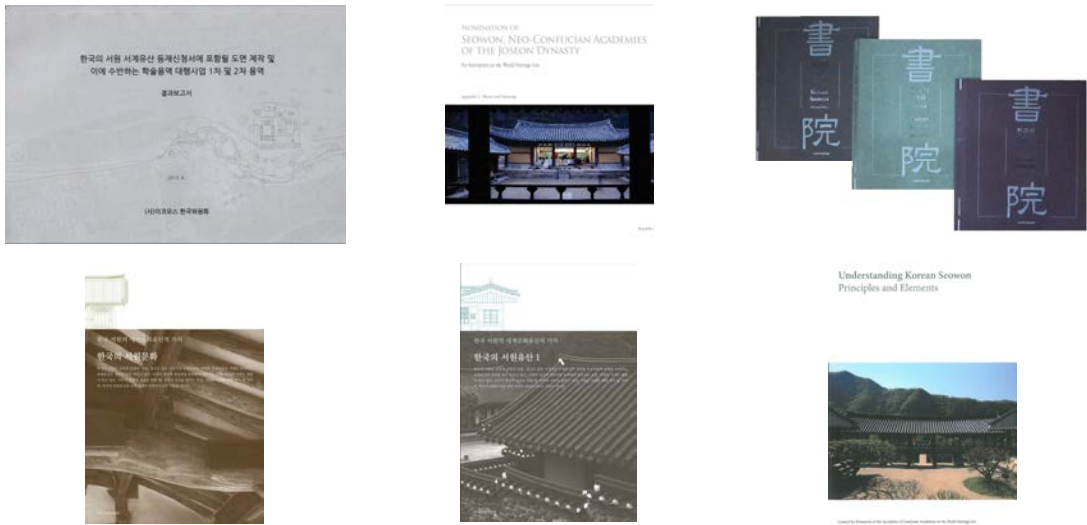


그림2. 신청서 작업과 병행한 성과물

2015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한국의 서원(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 등재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어 문화재청은 외교부를 통해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후 현지실사를 대비한 두 차례의 예비실사(중국-구어쑤, 호주-크리스탈 벅클리)와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점검 및 국내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같은해 9월 본 심사인 현지실사가 시작되었고 심사자는 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심사시 참여하였던 린 디스테파노(캐나다)가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이코모스로부터 두 차례의 보완자료 요청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과 패넌회의(파리) 참석 등 서원등재를 위한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ICOMOS 평가결과 반려(Defer)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하게 되었다.

○ 주요 추진경과

- 2011. 12.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 2014. 9. : 등재신청서(초안) 제출
- 2015. 1.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5. 9~10. : ICOMOS 전문가 현지실사 및 보완자료 제출
- 2015. 12.~2. : ICOMOS 패널회의
- 2016. 4. : ICOMOS 평가결과 반려(Defer), 세계유산 등재신청 자진 철회

- 2차 등재추진(2016년-2019년)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 위해 서원관리단에서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9개 서원 실무자와 세계유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재추진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등재 재추진을 위한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모든 이들의 만장일치로 재추진 사항이 의결(2016.8.16.)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재추진을 위한 등재신청서 작업에 앞서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시행(2016.7~2017.2.)하였다.

등재신청서 재작성을 위해 서원관리단은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기반으로 기존 신청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롭게 필진을 재구성하였다. 등재신청서 재작성 작업에서 서원관리단은 연구용역팀을 이원화하여 등재기준, 비교 분석을 서술하는 팀과 보존관리와 활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기존에 신청서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롭게 작성된 등재신청서를 검토하는 자문단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등재신청서 집필진들은 문화재청, 서원관리단과 함께 등재신청서 작업을 하였다. 이후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등의 세부 연구를 지속했다. 2018년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등재신청서가 완료되어 문화재청과 외교부를 통해 같은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8년 5월 현지실사를 대비한 국외 전문가 예비실사(일본-유가카리아)와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같은해 9월 본 심사인 현지실사가 시작되었고 심사자는 중국 이코모스 사무국장 쩡젠(중국)이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코모스로부터 두 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요청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과 당사국 면담 등 서원등재를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2018년 5월 ICOMOS 평가결과 등재(Inscribe)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서원 9곳이 등재되었다.

○ 주요 추진경과

- 2016. 9. : 우선 등재추진대상으로 재선정(문화재위원회)
- 2016. 12. :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문화재위원회)

- 2017. 7. : 세계유산 최종등재신청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 2018. 1.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8. 9. 2.~9. : ICOMOS 전문가 현지실사
- 2018. 11. 23. : ICOMOS 제1차 패널회의(프랑스, 파리) 및 당사국 면담
- 2019. 3. 11.~13. : ICOMOS 제2차 패널회의(프랑스, 파리)
- 2019. 5. 13. : ICOMOS 평가결과 당사국 통보
(ICOMOS→유네스코 대표부→문화재청) : ‘등재’ 권고 통지
- 2019. 7. 6. :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재 결정

1.3. OUV 발굴을 위한 연구성과와 과제

서원관리단은 ‘한국의 서원’ OUV 발굴을 위해 다수의 국내·국제 학술대회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1년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2020년까지 국제 4회, 국내 2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유산 가치, 서원의 보호관리 방안, 서원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학술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를 도출하는 한편, 그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들에게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서원관리단은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현장 실무자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9회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표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주제

	구분	기간	학술회의 주제
1	국내	2013.4.18.-19.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2		2014.4.18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3	국제	2011.10.27.-29.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4		2013.5.23.-24.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5		2014.10.24.-25.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
6		2020.10.29.	서원의 가치와 보존
7	워크숍	2011.12.12.	한국 서원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1차)
8		2012. 4. 18.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2차)
9		2012. 6. 15.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3차)
10		2012. 11. 9.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4차)
11		2013. 3. 15.	세계유산등재 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5차)
12		2015. 4. 17.	세계유산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6차)
13		2015. 5. 27.	실사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 보존관리 현안과 과제(7차)
14		2015. 7. 17.	실사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 보존관리 현안과 과제(8차)
15		2015. 8. 21.	실사대비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 최종 점검(9차)
16	국내 (예정)	2021. 11. 5.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17	국제 (예정)	2021. 11. 12.-1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 과제

국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서원’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으며, 국제 학술대회는 서원의 비교연구 대상인 국외 교육유산과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서원의 역사·건축을 비롯한 학술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보존관리·활용·문화재 구역 등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크게 한국서원의 가치, 서원의 보호, 서원의 교육, 서원의 활용이라는 4가지 대주제로 나눌 수 있다.

○ 한국서원의 가치

먼저, 한국서원의 가치와 관련하여 67건의 학술자료 중 27건의 학술자료가 있다. 본 주제에서는 서원의 가치를 발굴함과 동시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등재기준 및 절차, 비교연구를 통한 세계유산의 의미와 과제 제시, 속성(attributes) 관련 자료 정리 등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서원의 보호

서원의 보호와 관련된 자료는 14건에 해당하며,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이나 지속가능

한 보호·관리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한국서원의 가치와 관련된 학술자료는 주로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반면, 보존현황과 운영실태 및 과제에 관한 내용은 주로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전문가 워크숍에서 다루어졌다. 학술대회의 주요 목적이 세계유산 가치 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학술대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존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가 주목받지 못했다. 향후 학술대회에서는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 현황과 발전 방향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다루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서원의 교육

서원의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총 9건이 있으며, ‘한국의 서원’의 3대 기능인 제향, 강학, 교류 및 유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OUV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등재 정당성을 강화하고, OUV의 주요 속성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대부분이 등재추진 초기의 자료이기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속성을 토대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맞는 심층적인 자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 서원의 활용

서원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총 6건의 학술자료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및 계승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서원 연계 문화재활용사업이나 활용시설 등을 사례로 한 발표가 주를 이룬다. 서원 활용에 관한 학술자료는 전체 자료 중 약 9%에 그치며, 등재 이후에는 ‘한국의 서원’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학술연구들이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 조치라는 OUV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국의 서원’의 OUV를 발굴하고 인정받은 경험을 기초로 이제는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유산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와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공유하여야만 한다.

○ 등재 실사 관련 워크숍

이외에도 등재 실사 관련 워크숍이 3회 개최되면서 관련 학술자료 8건이 축적되었다. 해당 자료들은 실사 일정 및 동선, 시나리오 안내, 서원별 보존관리 현황, 실사 보완사항 등을 보여준다. 본 자료들은 실사 과정 중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여러 전문가나 실무 담당자에게 생생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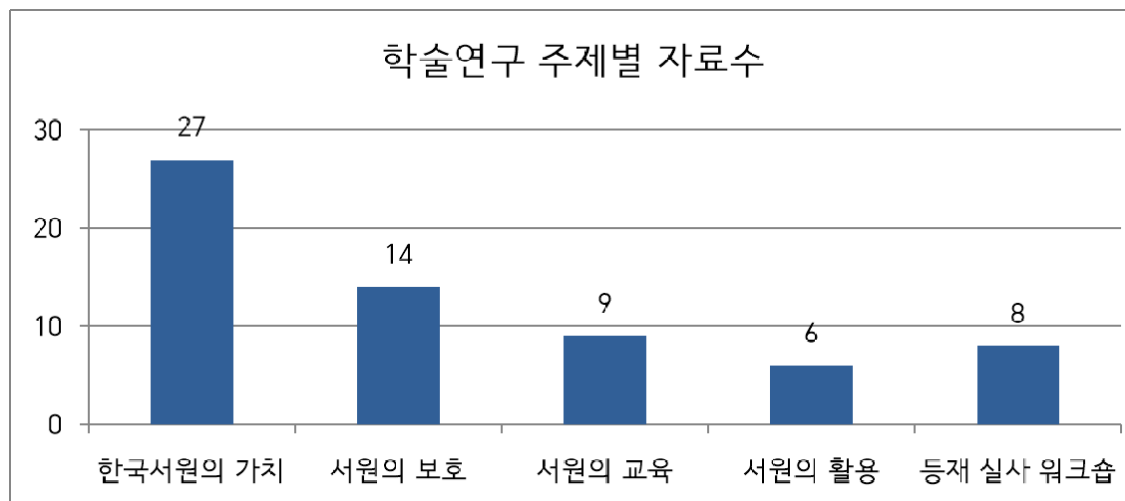


그림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성과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의서원 세계유산 추진 준비위원회(추진준비위원회)→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추진단)→(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서원관리단)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업무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추진단과 서원관리단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추진단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만을 목표로 했다면, 서원관리단은 세계유산 등재뿐만 아니라 이후의 통합 보존관리, 홍보 및 활용, 교육 등의 총체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추진단이 임시조직에 가까웠다면, 서원관리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이사회를 통해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와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셋째, 추진단이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라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면, 서원관리단은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이외에 9개 서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세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당해 유산에 소속된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협업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서원관리단의 설립을 통해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의 큰 윤곽이 정해지게 되었으며 서원관리단을 중심으로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홍보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1. 설립배경 및 추진연혁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전국에 분포한 연속유산이다. 따라서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이 강구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위한 운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등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2014년 12월 통합관리에 대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급협약을 진행하였다. 2012년 4월에 추진했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협약’이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실무급협약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9개 서원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근거로 추진단은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관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재단 설립 신청을 하였고, 마침내 2015년 8월 5일 법인설립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추진단)’에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서원관리단)’으로 출범하였다.



그림4.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급 협약(MOU)

○ 주요 설립배경






- 성격 : 추진단 성격으로 발족,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 설립 목적 : 세계유산 등재추진 지원과 등재 이후 통합보존관리
- 주요 업무
 - : 등재 이전(세계유산 등재추진), 이후(9개 서원 통합관리 및 활용)
- 설립 근거
 - :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협약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 : 통합관리체계 구성에 대한 실무협약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 세계유산 운영지침(114조)
 - :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반드시 필요

○ 주요 추진 연혁

- 2010. 10. :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국가브랜드위원회)
- 2012. 4.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족
- 2015. 9.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창립(법인 인가)
- 2019. 7. : 세계유산 등재(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 마련 권고)
- 2019. 12. :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를 위한 기구 개편(이사회 승인)
- 2020. 2. : 재단 정관개정 허가신청(문화재청)
- 2021. 10.~현재 : 지원조례 제정 추진 및 정관 개정 병행
- 2022. 상반기 : (가칭)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 발족(예정)

2.2.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등재 이후)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구 개편과 예산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서원관리단은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제5회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 개편을 위해 재단 정관, 관련 규정 및 세계유산 관리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서원관리단은 현재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서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서원운영자, 행정조직, 전문가 등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과 서원의 OUV와 보존관리 수준을 지속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관리단의 기능과 역할은 세계유산 신청 당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서원관리단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은 크게 통합 홍보사업과 보존관리사업으로 구분되며 관련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통합 홍보			통합 보존관리		
2019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및 기념행사 - 등재백서 발간 -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제작 - 홍보물 제작(통합브로셔, 달력, 서원 사진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지표 및 시스템 구축 연구 - 세계유산 등재기념 표지석 디자인 - 통합모니터링 시행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세계유산축전 - 통합교육교재<서원안내서> 발간 - 통합홈페이지 제작 : 각종 DB 자료 공개 - 소식지 발간(1, 2호) - 광고(KTX 및 지하철 역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 구축 -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1차(3개 서원) - 통합 안내판 제작 설치 - 건축도면집 제작(보완) 		
						
2021년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유산 통합 홍보사업의 지속관리 - '한국의 서원' 홍보 기념품 제작 - 서원 관리자 심화교육 (해설사, 서원관계자)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서원 홍보를 위한 지상파 방영 영상 제작기획 - 서원 세계유산 알리기 청소년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운영 - 방문객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한 DB 구축 - 9개 서원 통합관제 시스템 (CCTV) 구축 - '한국의 서원' 유산관리를 위한 정사영상 촬영 - 9개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 데이터 구축 		
						
						

등재일 전후 2년간 '한국의 서원'에 대한 관심도를 인터넷 게시물 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등재 전에는 3,721건의 게시물이 있었으며 등재 이후에는 6,885건의 게시물이 나타났다. 세계유산 등재 전에는 등재 시도 및 철회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등재 이후에는 등재 성공이나 '한국의 서원' 소개 등의 결과물이 보이며 등재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게시물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향후 국내외 주요 검색 사이트를 대상으로 통합 홍보사업에 대한 ‘한국의 서원’ 검색어 트렌드 분석 등 보다 전문적인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표2. 등재 전('17~'19), 후('19~'21 현재) ‘한국의 서원’ google 검색 결과

(단위: 건 / 19.7.9. 등재 전후 2년)

google 플랫폼 / 키워드		게시물(전체)		뉴스		동영상	
		등재 이전	등재 이후	등재 이전	등재 이후	등재 이전	등재 이후
한글	“한국의 서원”	3,090	6,030	181	980	145	383
일문	"韓國の書院"	150	235	3	4	1	5
중문	"韩国书院"	154	180	9	5	3	3
영문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327	440	32	34	16	20
총계		3,394	6,885	193	1,023	149	411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현재의 서원관리단은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목적으로 현 재단의 기능 확대를 위해 (가칭)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이하 유산관리센터)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 5Cs를 바탕으로 연속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방향에 근거한 것이다.

-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 강화
 - : 서원과 행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 유도
-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 보장
 - : 서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법, 제도)을 통한 보존여건 보장
- 당사국의 효과적인 역량구축(Capacity-building) 촉진
 - : 서원 관계자들의 보존관리 역량 강화
- 소통(Communication) 강화
 - : 서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제고, 참여와 지지 향상
-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 증대
 - : 서원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을 통한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환경 조성

이러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9개 서원(연속유산) 통합관리기구 개편

(안)과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 내용

- 명칭 변경 : 서원관리단 ⇒ (재)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

○ 개정 사유 : 세계유산 연속유산 통합관리에 부합된 재단 정관 개정

○ 목적 및 사업 변경

: 세계유산 등재추진 과정(삭제) ⇒ 세계유산(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보호

-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 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
- ‘한국의 서원’ OUV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 9개 서원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①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권고사항 1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원별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기초지방자치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세계유산(연속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원칙의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향후 서원의 물리적 관광압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광압력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각 서원에서 적용 가능한 관광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권고사항 2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홍보방안 마련

9개 서원에 대한 통합홍보는 세계유산의 OUV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서원에 대한 개별 혹은 통합홍보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여 개선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 전시 및 박물관 등과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강점이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기 등재된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와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사업의 개발 운영을 할 것이다.

②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DB) 구축

세계유산 정기보고 제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상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체약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 제29조에 따라 체약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이며, 매 6년을 주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해서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를 유산관리센터에서 보관되도록 하며, 모니터링 성과는 매년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유산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될 사항은 통합보존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이다.

- 통합 모니터링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대비 안전점검(화재, 풍수해, 재난 예방) 활동과 문화재관리원을 배치하여 상시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서원 내 전체 건축물과 시설물,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유산관리센터에서는 각 서원의 특성에 부합되는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지표개발,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과 운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③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에 관한 사항

9개 서원에 대한 통합모니터링과 연속유산에 대한 국내·외 학술연구, 통합보존관리에 관한 우수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유산으로서 유산 소개, 통합해설을 위한 교육실시,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통합관리 및 통합해설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④ ‘한국의 서원’ OUV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서원에 대한 OUV 심화연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학술논문 공모’와 ‘학술총서 발간’ 등의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서원의 OUV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기관·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 외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⑤ 서원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서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서원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들의 역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⑥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에 대한 국내·외 교류협력, 학술활동, 홍보활동 등 국제기구 및 기관, 국
외 전문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는 중심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성과와 과제

박 성 진

목차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 1.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
- 1.2. 세계유산 등재추진
- 1.3. OUV 발굴을 위한 연구성과와 과제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 2.1. 설립배경 및 추진연혁
- 2.2.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등재 이후)
-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1.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 :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건의**
- 국가브랜드위원회(2010) : **이배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1.2 세계유산 등재추진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2011.12.) :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재청(외교부) > WHC**
- 1차 등재추진(2011~2016)

- '11. 12.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 '15. 1.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15. 9.~10. : **ICOMOS 전문가 현지실사** 및 보완자료 제출 (실사자: 린 디스테파노(캐나다))
- '15. 12. : ICOMOS 제1차 패널리회의
- '16. 4. : **ICOMOS 평가결과 반려(Defer), 세계유산 등재신청 자진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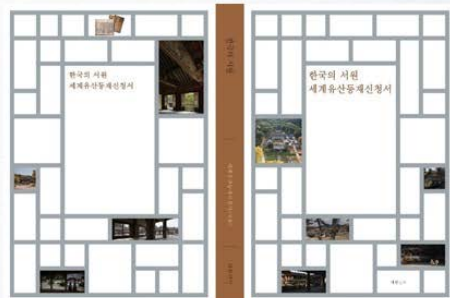
3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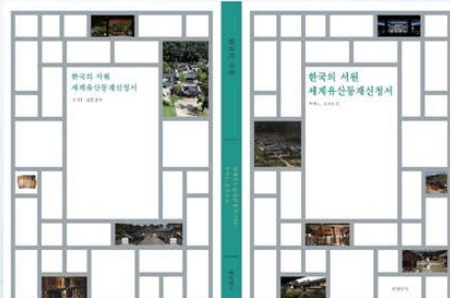
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

Republic of Korea	
Date of Submission: 09/12/2011	
Criteria: i, ii, iii, iv, vi	
Category: Cultural	
Submitted by: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Ref.: 5648	
Description:	
Seowon Academy	151-2 Namwon, Seonheung-myeon, Yeongju-si City, Gyeongbuk-do Province
Yongju Academy	585-1 Hongseong-mi, Suklong-myeon, Hwangpyeong County, Gyeongbuk-do Province
Oksan Academy	7 Oksanri, Gyeongju-si City, Gyeongbuk-do Province
Daejeon Academy	184 Daejeonmangri, Daejeon-myeon, Andong-si City, Gyeongbuk-do Province
Pilhan Academy	378 Pilhanri, Hwangrye-myeon, Jeongs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Daejeon Academy	30 Daejeonri, Gaecheon-myeon, Daejeong-gun County, Gyeongsangbuk-do Province
Buwon Academy	14 Buwonri, Pungcheon-myeon, Andong-si City, Gyeongbuk-do Province
Daejeon Academy	74 Daejeonri, Yoonan-myeon, Namwon-si City, Chungcheongbuk-do Province
Museong Academy	500 Museongri, Chobamyeon, Jeongseong-si City, Jeollabuk-do Province

잠정목록 신청서



등재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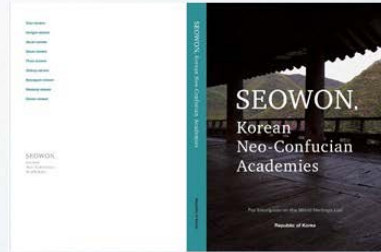
보존관리계획서

4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 2차 등재추진(2016-2019)

- '16. 9. : 우선 등재추진대상으로 재선정(문화재위원회)
- '16. 12. :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문화재위원회)
- '16. 7.~ '17. 2. : **ICOOS 자문실사**
- '17. 7. : 세계유산 최종등재신청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 '18. 1.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18. 9. 2.~9. : **ICOMOS 전문가 현지실사** (실사자: 평전(중국))
- '18. 11. 23. : ICOMOS 제1차 패널회의(파리) 및 당사국 면담
- '19. 3. 11.~13. : ICOMOS 제2차 패널회의(파리)
- '19. 5. 13. : **ICOMOS 평가결과 당사국 통보**(ICOMOS→유네스코 대표부→문화재청) : 「등재」 권고 통지
- '19. 7. 6. :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재 결정**



5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1.3 OUV 발굴을 위한 연구성과와 과제

	구분	기간	학술회의 주제
1	국내	2013.4.18.-19.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2	(2회)	2014.4.18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3	국제 (4회)	2011.10.27.-29.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4		2013.5.23.-24.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5		2014.10.24.-25.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서원과의 비교
6		2020.10.29.	서원의 가치와 보존
7	워크숍 (9회)	2011.12.12.	한국 서원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1차)
8		2012. 4. 18.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2차)
9		2012. 6. 15.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3차)
10		2012. 11. 9.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4차)
11		2013. 3. 15.	세계유산등재 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5차)
12		2015. 4. 17.	세계유산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6차)
13		2015. 5. 27.	실사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 보존관리 현안과 과제(7차)
14		2015. 7. 17.	실사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 보존관리 현안과 과제(8차)
15		2015. 8. 21.	실사대비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 최종 점검(9차)
16	국내 (예정)	2021. 11. 5.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17	국제 (예정)	2021. 11. 12.-1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권 고사항 이행 과제

6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 학술연구주제별 자료 수

* 2011년~2020년 총 67건 학술자료 축적

- 1) 한국서원의 가치(27건) : '한국의 서원' OUV 발굴
- 2) 서원의 보호(14건) : 서원 보존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
- 3) 서원의 교육(9건) : 제향, 강학, 교류 및 유식 관련 기초자료
- 4) 서원의 활용(6건) :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및 계승 방안
- 5) 등재 실사 워크숍(3회) : 등재 실사 시나리오, 보존관리 현황



등재 이후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심화연구 필요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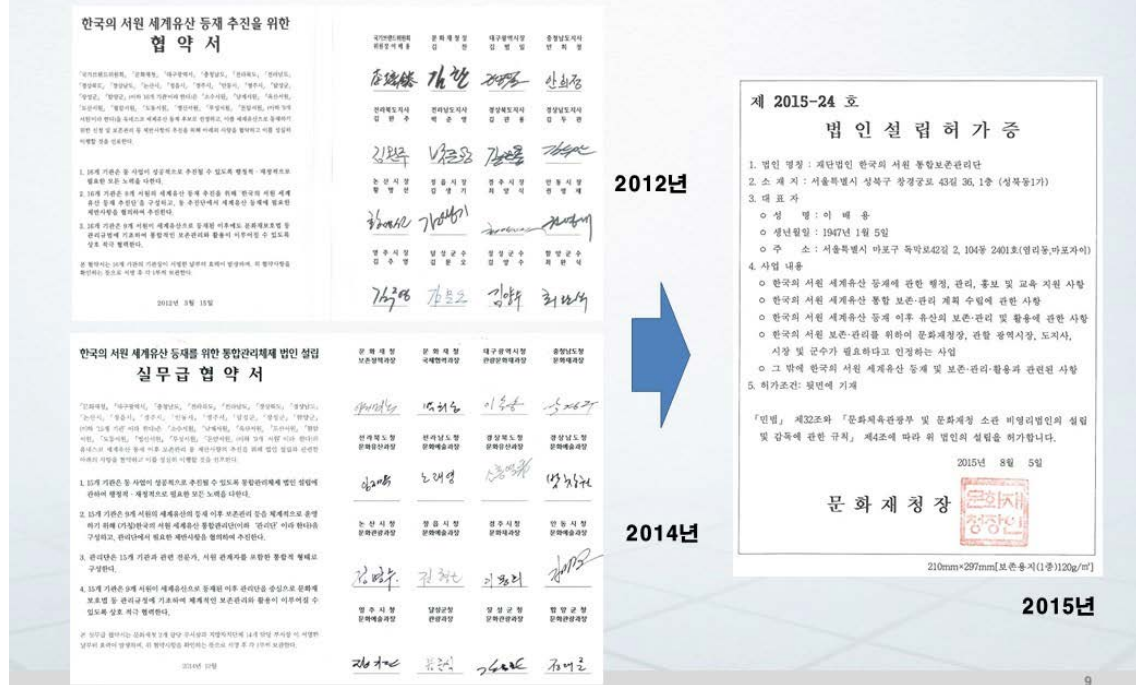
: 세계유산 추진준비위원회 >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통합보존관리단 (현재)

2.1 설립배경 및 추진연혁

- 설립배경

- 성격 :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성격으로 발족,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 설립 목적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과 등재 이후 통합보존관리
- 주요 업무
 - 등재 이전(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재 이후(9개 서원 통합관리 및 활용)
- 설립 근거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성에 대한 실무협약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 세계유산 운영지침(114)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필요"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 추진연혁

- 2010. 10.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국가브랜드위원회)
- 2012. 04.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
- 2015. 09.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창립(법인 인가)
- 2019. 07. : 세계유산목록 등재
 - ※ 한국의 서원(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 마련 권고
- 2019. 12.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위한 기구 개편(이사회 승인)
 - ※ 재단 정관개정 및 세계유산 관리기구 지원조례 제정 추진
- 2020. 02. : 재단 정관개정 허가신청(문화재청)
 - ※ 정관변경으로 인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제도적 근거 필수. 제도 정비 후 재신청 요청
- 2021. 10. ~ 현재 : 지원조례 제정 추진 및 정관 개정 병행 > 문화재청(허가신청)
- 2022. 상반기 : (가칭)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 발족(예정)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2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 : 등재 이후 2019년 하반기

1. 통합 홍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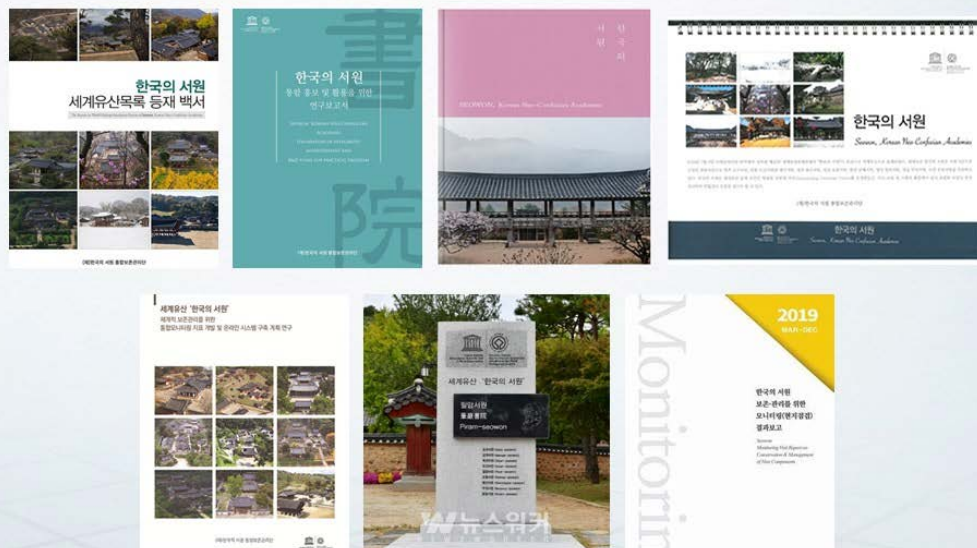
-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및 기념행사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발간
- 한국의 서원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제작
- 한국의 서원 홍보물 제작(통합브로셔, 달력, 서원 사진집)

2. 통합 보존관리사업

- 통합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 계획 연구
- 세계유산 등재기념 표지석 디자인
- 통합모니터링

11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12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2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 : 2020년

1. 통합 홍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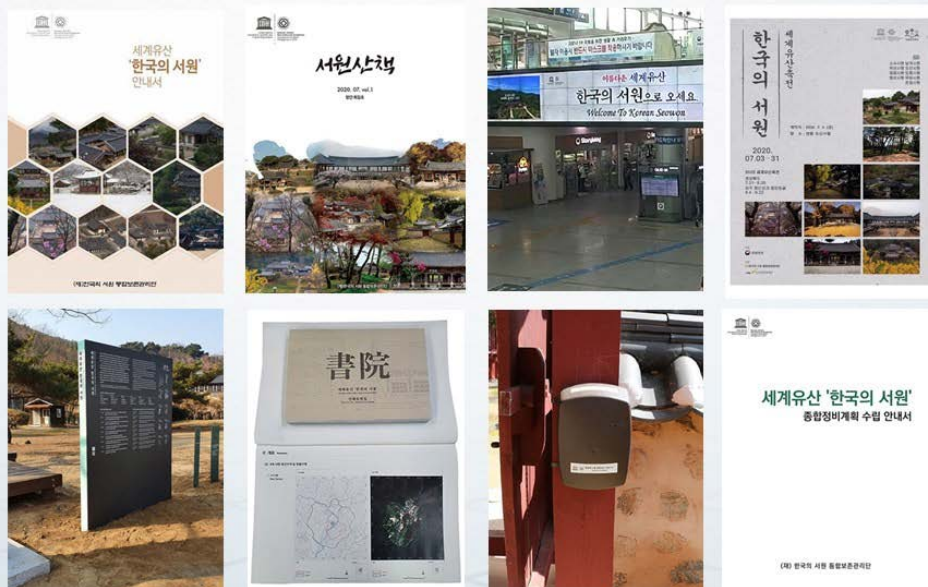
- 2020 세계유산축전
- 통합교육교재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서 > 발간
- 통합홈페이지 제작 : 각종 DB 자료 공개
- 소식지 발간(1, 2호)
- 광고(KTX 및 지하철 역사 등)

2. 통합 보존관리사업

- 통합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 구축
-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1차(3개 서원)
- 통합 안내판 제작 설치
- 건축도면집 제작(보완)

13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14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2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 : 2021년

1. 통합 홍보사업

- 연속유산 통합 홍보사업의 지속관리
- 홍보 기념품 제작
- 서원 관리자 심화교육(해설사, 서원 관계자=유림)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서원 홍보를 위한 지상파 방영 제작기획

2. 통합 보존관리사업

- 통합모니터링 운영
- 방문객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한 DB 구축
- 9개 서원 통합관제 시스템(CCTV) 구축
- 유산관리를 위한 정사영상 촬영
- 9개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 데이터 구축

15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 : 2021년 (통합 홍보)



2021.6. 통합리플렛 제작 완료



2021.7. 청소년 지킴이 운영



2021.8. 소식지 발간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홈페이지 운영
(k-seowon.or.kr)



2021. 11. 5. 국내 학술대회 예정



2021. 11. 12.~13. 국제 학술대회 예정

16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 : 2021년 (통합 관리)



2021.2. 정기보고 워크숍 참석



2021.3. 월간 모니터링 교육



2021.6. 무인계수기 설치



2021.6. 서원 정사영상 촬영 완료

17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 등재 전후 ‘한국의 서원’ google 검색 결과 : 2019.7.9. 기준 (단위: 건)

google 플랫폼 / 키워드		게시물(전체)		뉴스		동영상	
		등재 이전	등재 이후	등재 이전	등재 이후	등재 이전	등재 이후
한글	“한국의 서원”	3,090	6,030	181	980	145	383
일본	“韓國の書院”	150	235	3	4	1	5
중문	“韩国书院”	154	180	9	5	3	3
영문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327	440	32	34	16	20
총계		3,394	6,885	193	1,023	149	411

등재 이후

* 증가율

1. **게시물(전체)**: 등재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
2. **뉴스**: 등재 이전보다 **약 5배** 이상 증가
3. **동영상**: 등재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

등재 이전

18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세계유산협약 근거



세계유산협약(1972)

4.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recognizes that the duty of ensuring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Articles 1 and 2 and situated on its territory, belongs primarily to that State.

4조 협약가입국은 제1조 및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자국내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활용**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자국에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



운영지침(2019)

112.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유산의 **보호, 보존, 설명**에 대한 **단계별 계획(실행) 필요**.

114.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나 메커니즘 필요**.

117. 관리활동을 위해 **거버넌스 협약, 협력관리 시스템 등 개발**.

유산관리자, 관리당국,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

137. C)...(**중략**)유산의 통합관리 측면에 대한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

19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 **일관된 관리역량 고려 = 협업을 관장하는 관리체계 필수**



State of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통합관리, 의사결정, 거버넌스(Integrated management, Decision making, Governance)”

23. 세계유산위원회는 통합관리 접근방식의 결여가 특히 복합, **연속**, 초월경유산의 경우 서로 다른 기관이 관련된 유산의 관리 및 의사결정 과정의 조정에 어려움이 초래됨에 따라 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유산관리를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촉구**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Decision: 40COM7)
2016년 터키 이스탄불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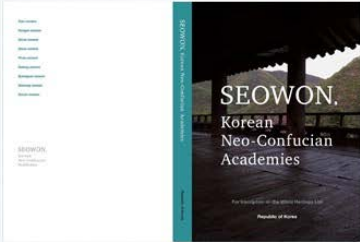
관리계획 거버넌스에서 주요 행위자는 **유산관리자**가 되어야 하며, 당사국 중심의 하향식 관리방식이 아닌 **유산 지역 중심의 상향식 관리방법**이 도입되어야 함. 또한 유산 유형, 배경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국가, 광역, 지역 수준의 관리계획이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제4차 세계유산 관리자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4th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Forum at the extended 44th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2021년 중국 주저우 개최

20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등재신청서 근거 (통합관리)



※ 4장 : 보존현황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청유산은(9개 서원)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립 문화재연구소에서 정기모니터링(3~5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설립 이후 9개 서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유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 관리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 5장 : 유산의 보호 및 관리(5.e. ii 관리체계)

1. 신청유산의 관리주체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각 서원의 조직(운영위원회)
- 정부기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재 이후 서원관리단 업무 범위 확대 예정

(통합관리 및 홍보)

2. 신청유산의 통합관리

- 목적 : 9개 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홍보)하는 역할
- 운영 : 문화재청, 각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간의 협의를 주도, 이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관리 추진

21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ICOMOS / WHC 근거 (권고사항)

* ICOMOS 주요 추가질의 및 답변자료

- 2차 ICOMOS 보완자료(2019.01.)

Q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해설 준비에 대한 추가사항 정보

A : 연속유산에 대한 온. 오프라인 해설 준비 / 통합해설 교육 / 유산 인근 지역 간의 연계 강화

-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권고(2019.07.06.)

1. 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마련

Additional recommendations

ICOMOS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2. 9개 서원 통합해설 마련



22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목표 이행

※ 주요 개정 내용

- 명칭 변경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재)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
- 개정 사유 : 세계유산 연속유산 **통합관리**에 부합된 재단 정관 개정
- 목적 및 사업 변경
: 세계유산 등재추진 과정(삭제) ⇒ 세계유산(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보호)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에 관한 사항
 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재청장,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3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목표 이행

※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 지원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현황

서원	지자체	관련 조례	추진 현황
도동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유산지원 및 보호 관련 통합조례안	2021년 하반기 조례 제정 예정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4/29), 조례 제2694호
돈암	충청남도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5년 제정
	논산시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6/10), 조례 제1389호
무성	전라북도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제정
	정읍시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4/10), 조례 제1703호
필암	전라남도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2017년 제정
	장성군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8/3), 조례 제2423호
옥산 도산 병산 소수	경상북도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년 제정
	경주시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하반기 조례 제정 예정
	안동시	안동시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4/17), 조례 제1521호
	영주시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제정(5/15), 조례 제1265호
남계	경상남도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2016년 제정
	함양군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5/7), 조례 제2473호

24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목표 이행

※ 서원관리단 2022년 예산(안) : 재단 이사회 승인

1. 세계유산협약 이행

- 한국 서원의 OUV 보호

2.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 마련



Additional recommendations

ICOMOS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25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목표 이행

비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증진

목표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 보호관리 및 활용
- 한국의 서원 3대 기능(제향·강학·교류 및 유식) 활성화

전략 목표 (‘5Cs’) 이행

• 신뢰성 강화

- 1) 학술연구 총서 제작
- 2) 서원 건물 현판 소책자 제작
- 3) 서원자료집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 보존 보장

- 1) 통합모니터링 운영
- 2) 방문객 무인계수시스템 관리운영
- 3) 9개 서원 통합관제 시스템(cctv) 운영
- 4) 유산 관리를 위한 정사영상 촬영

• 역량구축 촉진

- 1) 세계유산 국제 협력체계 구축
- 2) 세계유산 관리 전문교육 시행

• 소통 향상

- 1) 소식지 제작
- 2) 통합기념품 제작
- 3)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 지역공동체 참여

- 1) 제향 절차 기록화 사업
- 2) 문화관광해설사 서원 현장교육

26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2.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목표 이행

※ 서원관리단 2022년 사업(안) :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

▶ 권고 사항 1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 이행.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DB 구축
- 통합모니터링 시행(온라인 & 오프라인)
- 서원 운영자 협의회 및 주민협력 등

▶ 권고 사항 2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홍보방안 마련

9개 서원 통합홍보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해설 마련(홍보물 발간 등)
- '한국의 서원' 심화연구 및 통합교육(서원관리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 서원 운영자 협의회 및 주민협력 등

27

감사합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박 성 진

토론 Discussion

류한옥_ 한국의 서원 협의회 회장

Rhew hanwook_ Chairman, Seowon Council



박성진 국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등재와 보존관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 시간이 통역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 한다고 하여 마지막 부분인 “통합관리기구 개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구가 “서원유산 관리 센터”로 변경되어도 유형유산 보존관리에만 치중되어 무형유산 보존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무형유산 보존관리 방안을 현재 서원을 운영관리 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 제향 기능 전수자 무형유산 지정등록

○ 서원의 기능은 존현양사尊賢養士에 있다. 그러나 서원 제향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전승력을 잃고 있는 것은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우리 서원의 가치는 면면히 이어져오는 제향기능이 살아 있음이다. 중국 서원의 경우는 존현양사의 서원기능이 단절되어 버렸지만, 우리 서원은 교육기능은 현대교육으로 개편되어버렸지만 제향기능은 살아 있다. 그러나 우리 서원도 제향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생들이 없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원의 제향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례전승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 제례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9개 서원에서 제향하고 있는 향사享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제향기능을 이어가는데 실효성이 있다.

2.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성 제안

○ 9개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보 등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작업

이 필요하다.

- ▶ 서원지書院誌 발간
- ▶ 서원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서원자료 번역 발간
- ▶ 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

3. 서원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서원문화 활용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서원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문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지만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교육제도의 개편으로 서원의 교육기능은 축소되어 존립의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 서원의 교육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과거의 계승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현불가능하다.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욕구와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21세기형 서원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재보존에 묶여 버린 서원을 원형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라는 두 축이 조화를 이루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문화유산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시설 확충을 제안
- ▶ 전통사회 속에서의 서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서 21세기형 서원문화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연수시설 확충, 50명 정도인 소규모 인원을 수용하여 서원문화를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수시설 확충을 통해 현대인에 맞는 서원문화 가치 전승
- ▶ 충효교육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와 같이 서원문화의 바람직한 계승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계승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 속에 녹아 들 수 있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수용할 수 있는 21세기형 서원문화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9개 서원 협의회를 대표하여 9개 서원이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